

2015 제7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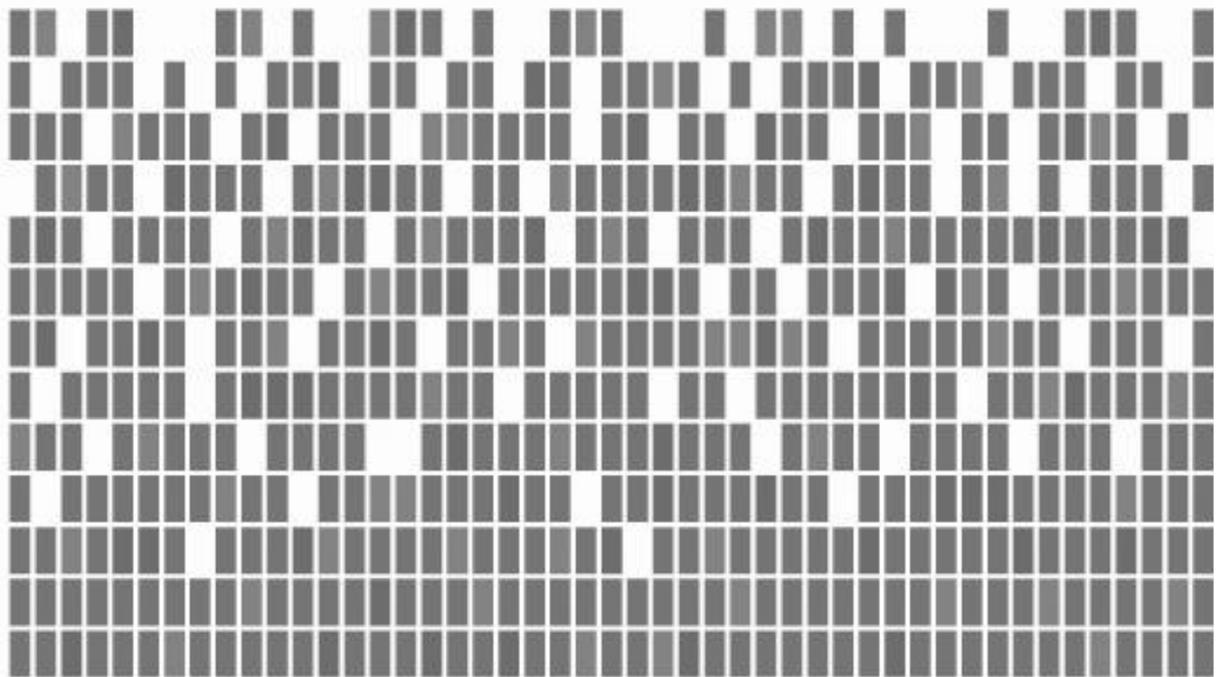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2015 제7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목차

제1장 연구결과 요약	9
I. 201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11
1.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7년 만에 OECD 최하위 탈출	11
2.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7년간 꾸준히 증가	12
3. 여전히 위태로운 어린이·청소년의 현실, OECD 평균 이하의 주관적 행복지수,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느낌	13
II. 어린이·청소년의 행복과 부모와의 관계	14
1.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부모와의 관계’	15
2. 아버지와의 관계가 스마트폰 사용과 공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완화	16
III. 어린이·청소년의 수면과 행복	16
1. 수면시간 길수록 행복감 높고 학교생활에 만족	16
2. 초등학생만 “학교성과 수면시간 비례”	16
3. 가출 및 자살충동, 수면시간 8시간 미만일 때 약 2배 높아	17
제2장 연구개요	19
I. 조사개요	21
1. 개요	21
2. 조사설계	21
3. 표본 특성	22
4. OECD 자료	22
II.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8
1.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8
2. 행복지수 산출 방법	28

제3장 OECD 행복지수 31

- I. 물질적 행복 33
 - 1. 상대적 빈곤 33
 - 2. 미취업 가정 34
 - 3. 빈곤 35
- II. 보건과 안전 37
 - 1. 영아건강 37
 - 2. 예방접종 39
 - 3. 사고사 42
- III. 교육 43
 - 1. 학업성취 44
 - 2. 교육참여 46
 - 3. 고용으로의 전환 48
- IV. 가족과 친구관계 49
 - 1. 가족구조 49
 - 2. 부모관계 51
 - 3. 친구관계 53
- V. 행동과 생활양식 54
 - 1. 건강행동 54
 - 2. 위험행동 54
- VI. 주관적 행복 66
 - 1. 건강 66
 - 2. 학교생활 67
 - 3. 개인 행복 68

제4장 수면시간 73

- I. 수면시간과 행복감 75
 - 1. 교급별 수면시간 75
 - 2. 수면시간과 주관 및 상대적 행복 76
 - 3. 수면시간과 삶 만족 78
 - 4. 수면시간과 건강인식 79
- II.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80
 - 1.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적응 80
 - 2.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스트레스 81

Ⅲ. 수면시간과 기출·자살충동	82
1. 수면시간과 기출충동	82
2. 수면시간과 자살충동	83
제5장 기출충동과 자살충동	85
I. 기출충동	85
1. 기출충동 경험 비율	85
2. 부모관계, 계층인식, 학교성적과 기출충동 경험	88
3. 기출충동 경험 이유	89
II. 자살충동	91
1. 자살충동 경험 비율	91
2. 부모관계, 학교성적, 계층인식과 자살충동 경험	92
3. 자살충동 경험 이유	93
제6장 스마트폰 이용과 스트레스	95
I. 스마트폰 이용현황	97
II. 스마트폰 이용과 스트레스 경험	98
1. 부모관계 스트레스	98
2. 공부·시험 스트레스	100
3. 친구관계 스트레스	103
부록1.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영역별 통계표	105
부록2. 주관적 행복지수 증가경향	111
부록3. 설문지	115
1. 초등학생용 설문지	117
2. 중고등학생용	125
부록4. 1922~1923년 어린이날 선언	133

표목차

표1-1. OECD 국가의 영역별 행복지수 비교	11
표1-2. 2009~2015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변화	12
표2-1. 설문조사의 개요	21
표2-2. 표본 특성	22
표2-3.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23
표2-4. 2009~2014년 측정지표	25
표2-5. 2015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연구(KCWI)의 각 지표별 표준점수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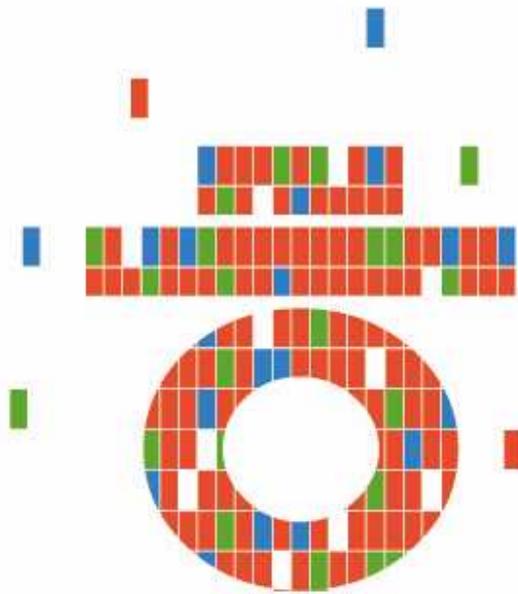
그림목차

그림1-1. 2009~2015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변화	12
그림1-2. 2009~2015년 주관적 행복지수 OECD 국가비교	13
그림1-3. 학교급별 자살충동 경험률	13
그림1-4. 학교급별 자살충동을 느낀 이유	14
그림1-5. 가정형편과 부모관계에 따른 주관적 행복도 비교	14
그림1-6. 성적과 부모관계에 따른 주관적 행복도 비교	15
그림1-7.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15
그림1-8.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부모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15
그림1-9. 수면시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비교	16
그림1-9. 수면시간과 성적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비교	16
그림1-10. 학교급과 학교성적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17
그림1-11. 수면시간에 따른 가출 및 자살충동 차이 비교	17
그림3-1. 국가별 상대적 빈곤 : 중위수입	33
그림3-2. 미취업 가정	34
그림3-3. 교육여건	35
그림3-4. 문화적 결핍	36
그림3-5. 영아사망율	37
그림3-6. 저체중아	38
그림3-7. 홍역 예방접종	39
그림3-8. 소아마비 예방접종	40
그림3-9. DPT 예방접종	41
그림3-10. 아동사고사	42
그림3-11. 읽기시험 점수	43
그림3-12. 수학시험 점수	44
그림3-13. 과학시험 점수	45
그림3-14. 학업유지	46
그림3-15. 실업상태	47
그림3-16. 미숙련 일자리	48

그림3-17. 홀부모가정	49
그림3-18. 의붓가정	50
그림3-19. 함께 식사하기	51
그림3-20. 함께 대화하기	52
그림3-21. 친절한 급우관계	53
그림3-22. 아침식사	54
그림3-23. 과일섭취	55
그림3-24. 과체중	56
그림3-25. 운동	57
그림3-26. 흡연	58
그림3-27. 음주	59
그림3-28. 마약	60
그림3-29. 성관계	61
그림3-30. 콘돔사용	62
그림3-31. 임신과 출산	63
그림3-32. 싸움	64
그림3-33. 왕따 경험	65
그림3-34. 주관적 건강	66
그림3-35. 학교생활 만족	67
그림3-36. 삶의 만족	68
그림3-37. 소속감	69
그림3-38. 어울림	70
그림3-39. 외로움	71
그림4-1. 초·중고 학생의 평일 수면시간	75
그림4-2. 초·중고 학생의 주말 수면시간	75
그림4-3. 학교성적에 따른 평일 수면시간	76
그림4-4. 초등학생: 수면시간과 주관 및 상대적 행복감	77
그림4-5. 중학생: 수면시간과 주관 및 상대적 행복감	77
그림4-6. 고등학생: 수면시간과 주관 및 상대적 행복감	77
그림4-7. 초등학생: 수면시간과 삶 만족도	78
그림4-8. 중학생: 수면시간과 삶 만족도	78
그림4-9. 고등학생: 수면시간과 삶 만족도	78
그림4-10. 초등학생: 수면시간과 건강인식	79
그림4-11. 중학생: 수면시간과 건강인식	79
그림4-12. 고등학생: 수면시간과 건강인식	79
그림4-13. 초등학생: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적응	80
그림4-14. 중학생: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적응	80
그림4-15. 고등학생: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적응	80
그림4-16. 초등학생: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스트레스	81
그림4-17. 중학생: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스트레스	81
그림4-18. 고등학생: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스트레스	81
그림4-19. 초등학생: 가출충동	82
그림4-20. 중학생: 가출충동	82
그림4-21. 고등학생: 가출충동	82
그림4-22. 초등학생: 자살충동	83

그림4-23. 중학생: 자살충동	83
그림4-24. 고등학생: 자살충동	83
그림5-1. 교급별 가출충동 경험 비율	87
그림5-2. 초등학생 : 연도별 가출충동 경험 비율	87
그림5-3. 중학생 : 연도별 가출충동 경험 비율	87
그림5-4. 고등학생 : 연도별 가출충동 경험 비율	88
그림5-5. 부모와의 관계 수준과 가출충동 경험	88
그림5-6. 계층인식과 가출충동 경험	89
그림5-7. 학교성적과 가출충동 경험	89
그림5-8. 초등학생 :가출충동 경험 이유	90
그림5-9. 중학생 :가출충동 경험 이유	90
그림5-10. 고등학생 :가출충동 경험 이유	90
그림5-11. 교급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91
그림5-12. 초등학생 :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91
그림5-12. 중학생 :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91
그림5-13. 고등학생 :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92
그림5-14.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92
그림5-15. 계층인식과 자살충동 경험	93
그림5-16. 학교성적과 자살충동 경험	93
그림5-17. 초등학생 : 자살충동 경험 이유	94
그림5-18. 중학생 : 자살충동 경험 이유	94
그림5-19. 고등학생 : 자살충동 경험 이유	94
그림6-1. 초·중·고 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	97
그림6-2. 초·중·고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97
그림6-3. 초등학생 : 부모와의 의견충돌 스트레스	98
그림6-4. 중학생 : 부모와의 의견충돌 스트레스	98
그림6-5. 고등학생 : 부모와의 의견충돌 스트레스	98
그림6-6. 초등학생 : 부모의 지나친 간섭 스트레스	99
그림6-7. 중학생 : 부모의 지나친 간섭 스트레스	99
그림6-8. 고등학생 : 부모의 지나친 간섭 스트레스	99
그림6-9. 초등학생 : 공부 스트레스	100
그림6-10. 초등학생 :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공부 스트레스	100
그림6-11. 중학생 : 공부 스트레스	101
그림6-12. 중학생 :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공부 스트레스	101
그림6-13. 고등학생 : 공부 스트레스	101
그림6-14. 고등학생 :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공부 스트레스	101
그림6-15. 초등학생 : 시험 스트레스	102
그림6-16. 초등학생 :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시험 스트레스	102
그림6-17. 중학생 : 시험 스트레스	102
그림6-18. 중학생 :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시험 스트레스	103
그림6-19. 고등학생 : 숙제/시험 스트레스	103
그림6-20. 고등학생 :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시험 스트레스	103
그림6-21. 초등학생 : 친구의 놀림/무시 스트레스	104
그림6-22. 중학생 : 친구의 놀림/무시 스트레스	104
그림6-23. 고등학생 : 친구의 놀림/무시 스트레스	104

제1장 연구결과 요약



I. 201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1.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7년 만에 OECD 최하위 탈출

-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상승하여, 본 연구를 시작한 이래 7년 만에 OECD 최하위를 벗어남
-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은 작년과 같이 세계 1위를 기록
- ‘물질적 행복’ 및 ‘교육’ 영역 또한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과 안전’, ‘가족과 친구관계’ 영역도 양호한 수준

표1-1. OECD 국가의 영역별 행복지수 비교

국가명	주관적 행복 (23개국 중 순위)	물질적 행복 (18개국 중 순위)	보건과 안전 (26개국 중 순위)	교육 (25개국 중 순위)	가족과 친구관계 (23개국 중 순위)	생활과 생활양식 (20개국 중 순위)
스페인	119.4 (1)	105.3 (5)	97.1 (19)	91.0 (21)	106.9 (5)	96.4 (12)
네덜란드	115.1 (2)	103.6 (6)	107.1 (7)	118.9 (2)	115.3 (2)	107.1 (2)
스위스	115.1 (3)		102.8 (12)	96.4 (18)	106.6 (6)	100.6 (8)
오스트리아	110.6 (4)	112.6 (3)	80.3 (25)	85.3 (23)	91.3 (19)	96.3 (13)
독일	106.5 (5)	99.0 (10)	104.6 (9)	108.3 (5)	100 (13)	102.7 (7)
그리스	105.6 (6)	95.4 (13)	98.0 (15)	88.3 (22)	92.1 (18)	90.8 (18)
이탈리아	105.6 (7)	99.4 (9)	102.2 (13)	80.9 (25)	119.8 (1)	95.0 (16)
아일랜드	104.2 (8)		106 (8)	104.4 (7)	103.2 (10)	105.9 (3)
아이슬랜드	104.2 (9)		112.8 (2)	98.1 (14)	101.2 (12)	
스웨덴	100.5 (10)		117 (1)	97.3 (15)	104.0 (9)	
덴마크	100.4 (11)		97.9 (16)	100.6 (13)	104.0 (8)	103.0 (6)
포르투갈	99.0 (12)	93.0 (15)	88.8 (23)	102.3 (10)	114.2 (3)	104.1 (5)
핀란드	98.9 (13)	118.9 (1)	112.6 (3)	101.9 (11)	94.5 (16)	98.7 (9)
체코	98.3 (14)	108.3 (4)	103.1 (11)	108.3 (6)	90.8 (20)	88.3 (20)
노르웨이	98.3 (15)		108.5 (5)	102.6 (9)	107.2 (4)	105.5 (4)
프랑스	97.8 (16)	103.1 (7)	103.3 (10)	94.8 (19)	97.1 (15)	95.9 (15)
영국	95.5 (17)	95.9 (12)	101.3 (14)	84.5 (24)	86.0(21)	93.5 (17)
벨기에	92.8 (18)	98.5 (11)	94.2 (22)	108.7 (4)	102.8 (11)	97.7 (10)
대한민국	90.4 (19)	114.4 (2)	110.7 (4)	114.5 (3)	106.1 (7)	135.7 (1)
캐나다	88.7 (20)		97.7 (17)	103.6 (8)	84.5 (22)	97.6 (11)
헝가리	88.0 (21)	89.3 (16)	94.7 (21)	96.7 (16)	99.5 (14)	89.2 (19)
폴란드	87.9 (22)	87.9 (17)	95.2 (20)	120.6 (1)	92.2 (17)	96.1 (14)
미국	77.3 (23)	78.7 (18)	76.1 (26)	94.3 (20)	80.6 (23)	
호주			97.2 (18)	101.3 (12)		
뉴질랜드		93.5 (14)	82.7 (24)	96.5 (17)		
일본		103.1 (8)	107.9 (6)			

* 비어있는 곳은 관련 데이터가 없는 경우

* 괄호 안의 숫자는 주관적 행복도의 등수를 뜻함

* 우리나라자료는 항목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되나 타 국가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조사시기가 다름 (별첨 2 참고)

2.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7년간 꾸준히 증가

그림1-1. 2009~2015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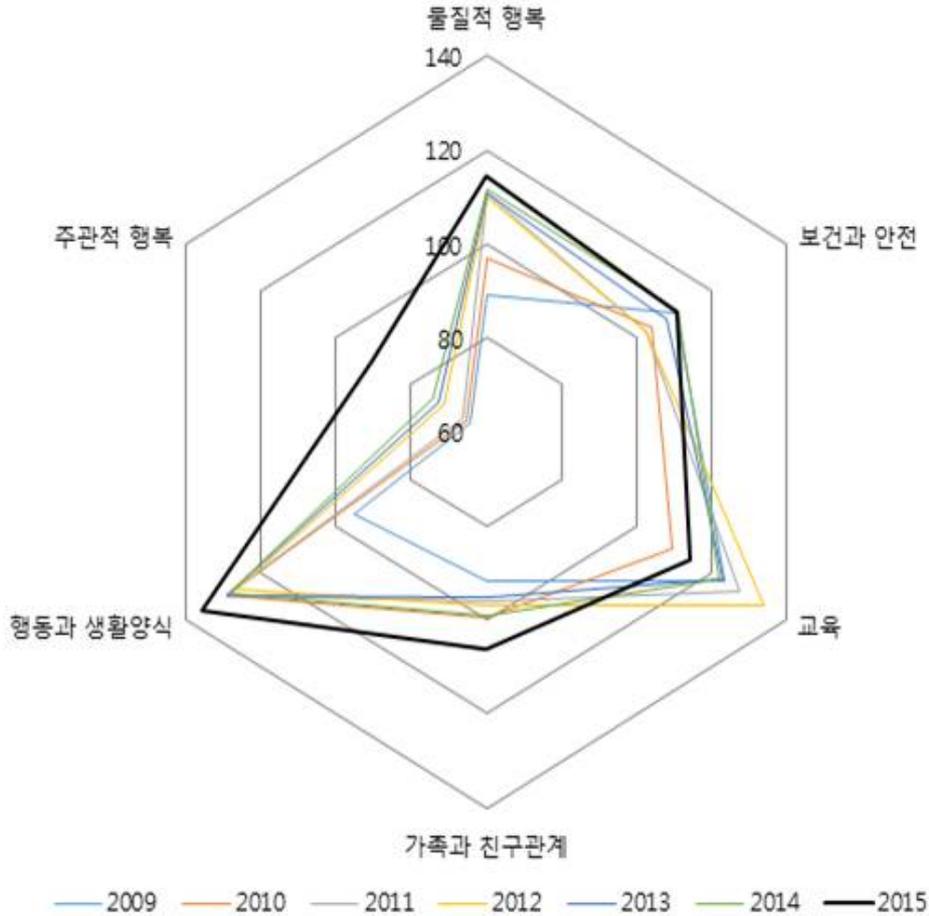


표1-2. 2009~2015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변화

	주관적 행복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2009	64.3	89.1	110.5	123.4	91.6	95.1
2010	65.1	96.9	104.2	109.6	99.4	129.2
2011	66.0	110.7	102.6	127.8	96.1	129.3
2012	71.4	110.1	102.6	133.9	96.7	126.6
2013	72.5	110.8	108.4	123.0	95.1	129.1
2014	74.0	111.9	111.1	122.2	98.9	128.8
2015	90.4	114.4	110.7	114.5	106.1	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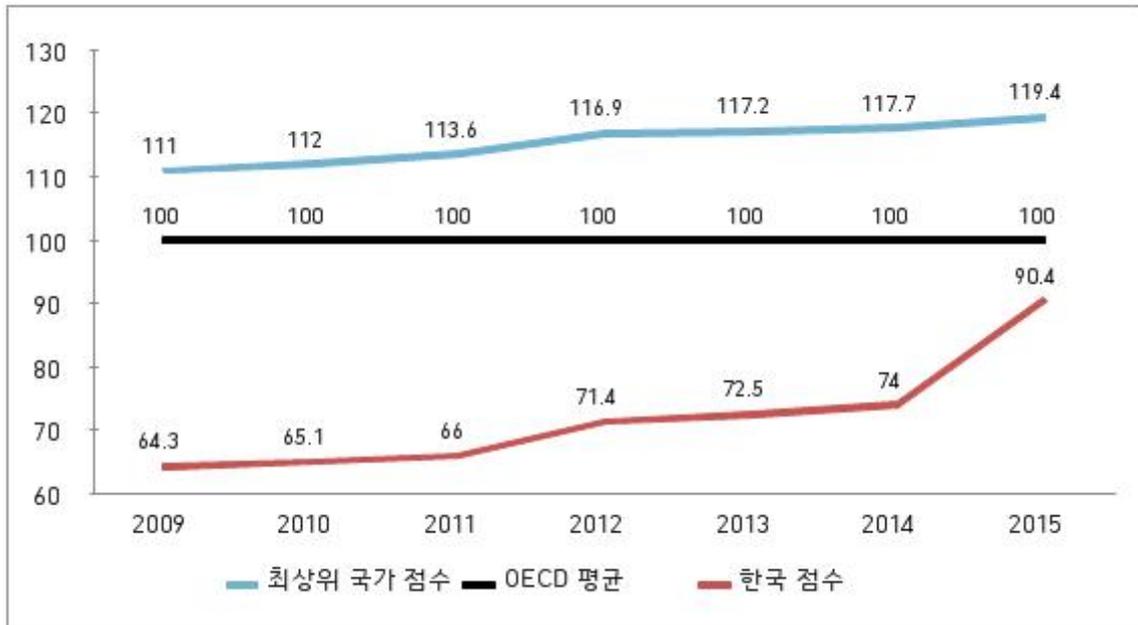
* 한국의 행복지수 상승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부록II 참고

3. 여전히 **위태로운** 어린이·청소년의 현실, OECD 평균 이하의 주관적 행복지수,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느낌**

- 주관적 행복지수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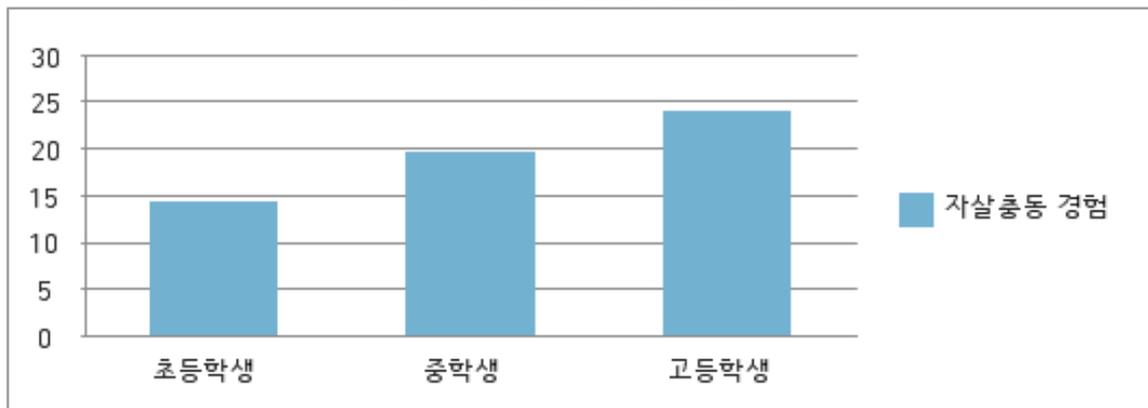
그림1-2. 2009~2015년 주관적 행복지수 OECD 국가비교

(OECD 국가평균=100)



- 어린이·청소년 약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경험
- 초등학생은 14.3%, 중학생 19.5%, 고등학생 24%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상승**

그림1-3. 학교급별 자살충동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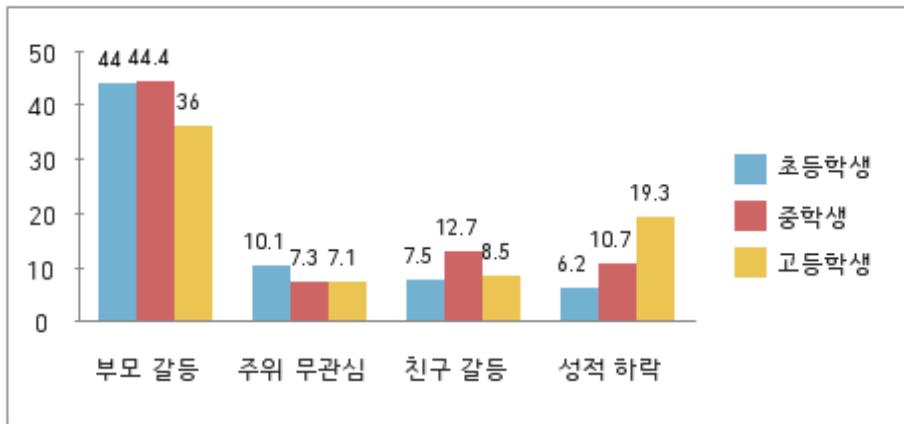


Ⅱ. 어린이 · 청소년의 행복과 부모와의 관계

1.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지수,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부모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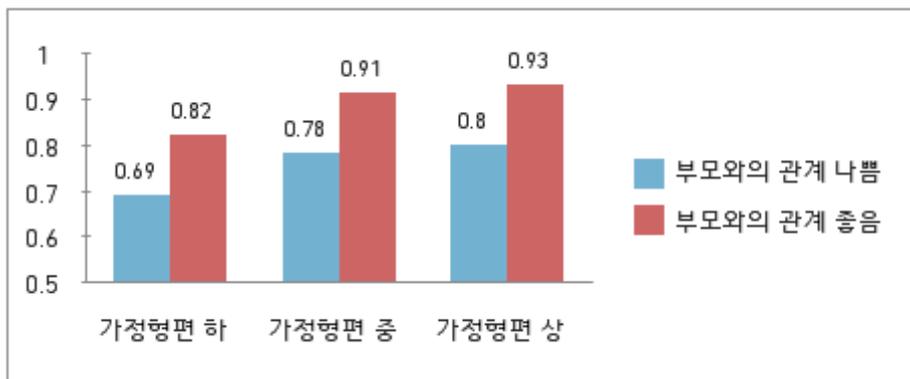
- 자살충동을 경험한 주된 이유는 ‘부모와의 갈등’
- ‘부모와의 갈등’이 자살충동 경험 원인의 대략 40%를 차지

그림1-4. 학교급별 자살충동을 느낀 이유



- 가정형편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주관적 행복에 중요
- 가정형편이 좋고 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학생보다 가정형편이 안 좋아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이 더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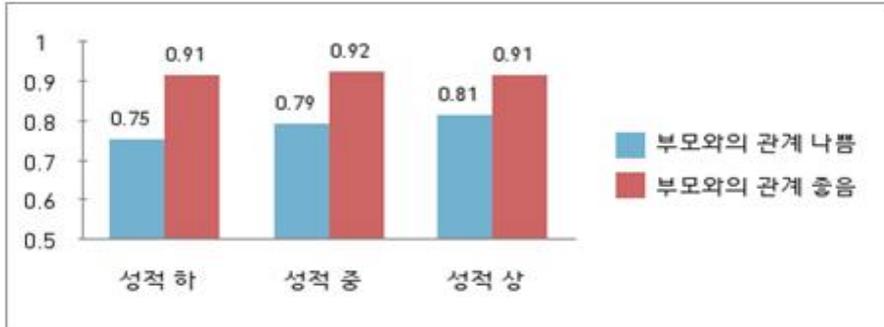
그림1-5. 가정형편과 부모관계에 따른 주관적 행복도 비교



- * 학년, 성별, 주관적 계층, 스마트폰 소유, 선생님과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친한 친구 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사교육 시간, 성적을 통제
- * 전반적으로 ‘매우’, 혹은 ‘대체로’ 행복하다고 응답했을 확률
- * 가정형편이 상, 중, 하라고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 성적에 따른 차이보다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남.

그림1-6. 성적과 부모관계에 따른 주관적 행복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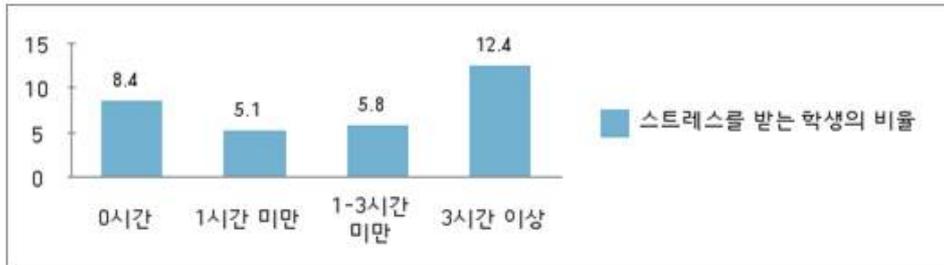


- * 학년, 성별, 주관적 계층, 스마트폰 소유, 선생님과 관계, 친구와의 관계, 친한 친구 수,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사교육 시간, 가정형편을 통제
- * 전반적으로 '매우' 혹은 '대체로' 행복하다고 응답했을 확률
- * 자신의 성적이 상, 중, 하에 속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2. 아버지와의 관계가 스마트폰 사용과 공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완화

- 초등학생 7.3%가 심각한 공부 스트레스를 경험
- 이 비율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 가장 낮았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일 때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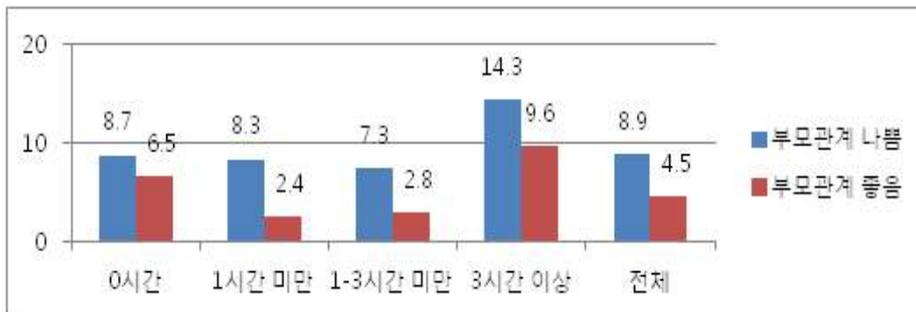
그림1-7.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주: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chi^2=67.784, p=.000$)

-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경우 공부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매우 낮음
- 스마트폰을 3시간 이상 사용해도 이 비율이 높지 않음

그림1-8.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부모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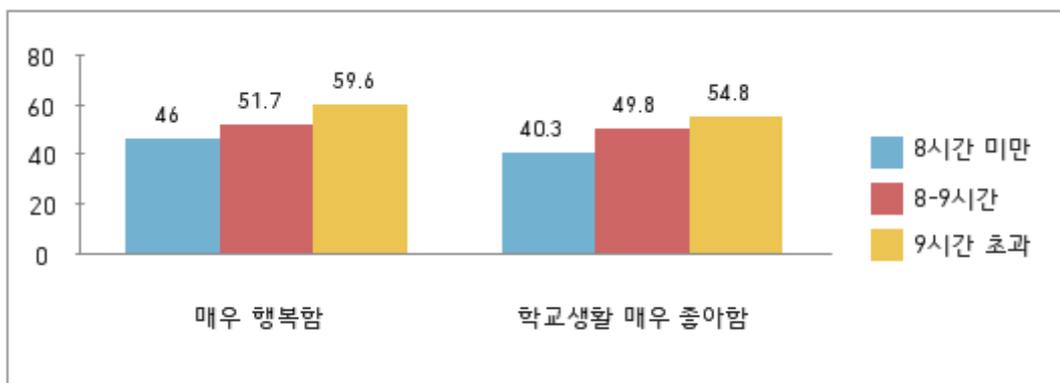


Ⅲ. 어린이 · 청소년의 수면과 행복

1. 수면시간 길수록 행복감 높고 학교생활에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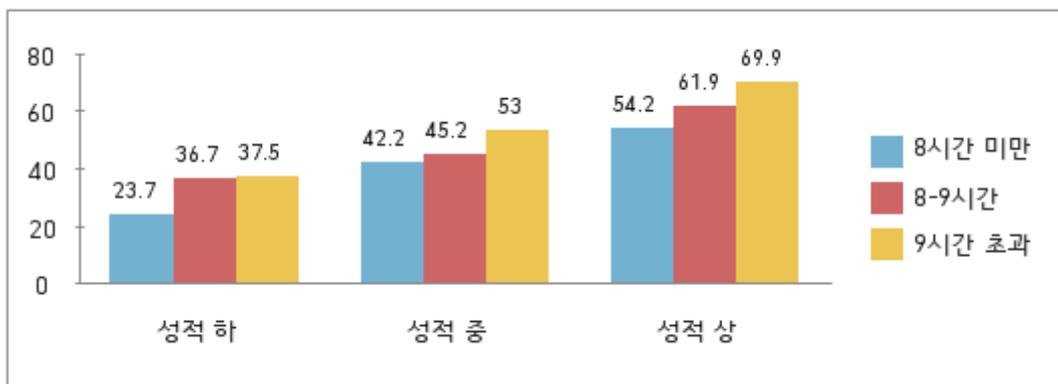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평일기준 8.5시간
- 수면시간이 길수록 행복감도 높고 학교생활에 만족
- 학교성적이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수면시간이 길수록 학교생활에 만족

그림1-9. 수면시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비교



주: 행복감($\chi^2=22.759, p=.001$), 학교생활($\chi^2=40.994, p=.000$)

그림1-9. 수면시간과 성적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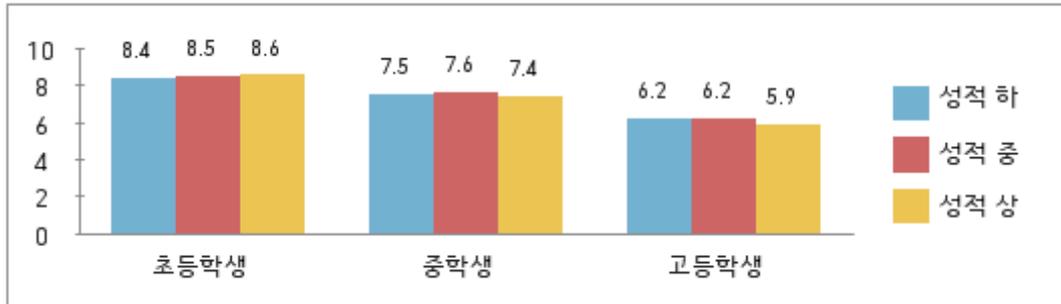


주: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2. 초등학생만 “학교성적과 수면시간 비례”

-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학교성적과 수면시간이 비례
-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학교성적과 수면시간이 반비례

그림1-10. 학교급과 학교성적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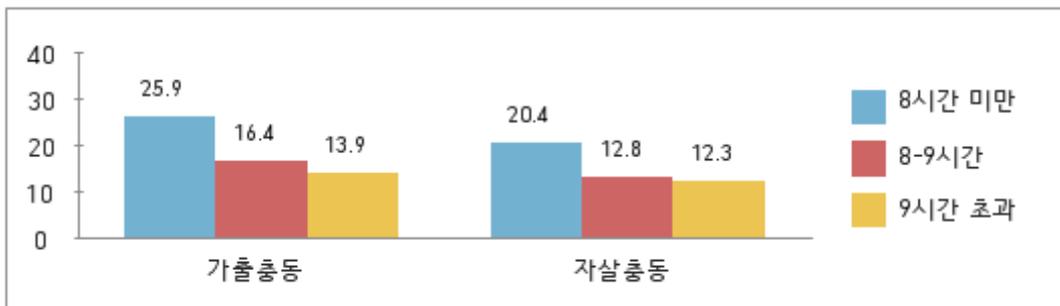


주: 초등(F값=3.366, p=.035), 중등(F값=3.650, p=.026), 고등(F값=13.001, p=.000)

3. 가출 및 자살충동, 수면시간 8시간 미만일 때 약 2배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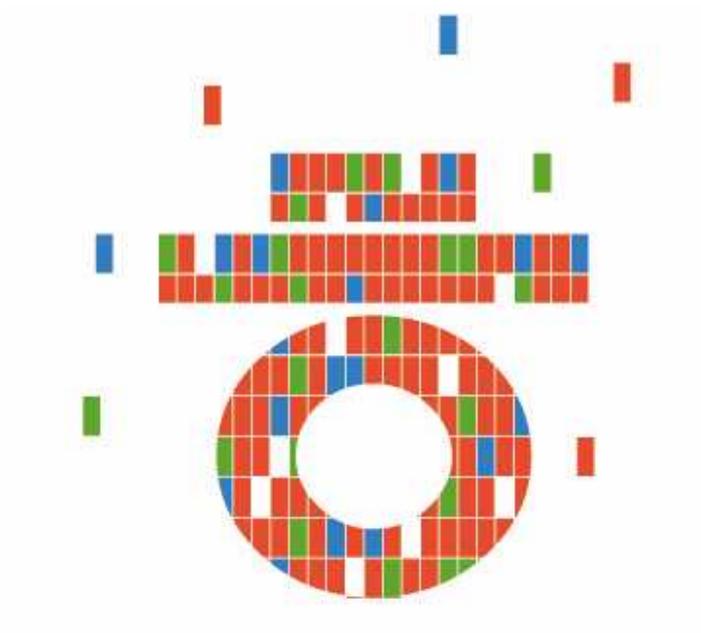
- 초등학생의 경우 수면시간이 8시간 미만인 학생의 가출 및 자살충동 경험 비율은 9시간 초과 학생의 대략 2배

그림1-11. 수면시간에 따른 가출 및 자살충동 차이 비교



주: 가출충동($\chi^2=28.889$, p=.000), 자살충동($\chi^2=18.050$, p=.000)

제2장 연구개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 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I. 조사설계

1. 개요

- 이 연구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고,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구체적으로,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삼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 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한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측정한다.
- 행복지수 조사가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됨에 따라 OECD 국가간 횡단 비교에서 나아가, 시간 흐름에 따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 2012년도부터 학교폭력 연구를 새로이 추가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분석했으며, 2014~2015년 스마트폰과 게임이용, 친구관계 등을 새로이 추가해서 연구했다.

2. 조사설계

- 2015년 설문조사는 2015년 3월 15일에서 4월 15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표본은 시도교육청의 2014년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학급을 표집단위로 했으며,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한 크기비례확률추출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 무작위로 추출된 학급이 소속된 학교의 교감선생님께 먼저 연락하여 조사 허락을 받은 후 각 학교에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이 설문조사는 학급을 표집단위로 했기 때문에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 비율이 실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표2-1. 설문조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조사지역	전국 (제주도 제외)
표 본 수	총 7,536명 (초등학생 2,096명, 중학생 2,611명, 고등학생 2,829명)
표본추출방법	크기비례확률추출법(PPS : Probability Propotional to size Sampling)
조사방법	배포-수거방식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5년 3월 15일 ~ 2015년 4월 15일
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분석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3. 표본 특성

표2-2. 표본 특성

구분		전체		초		중		고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7,536	100	2,096	100	2,611	100	2,829	100	
성별	남	3,801	50.4	1,061	50.6	1,275	48.8	1,465	51.8	
	여	3,735	49.6	1,035	49.4	1,336	51.2	1,364	48.2	
거주 지역	수도권	3,498	46.4	952	45.4	1,281	49.1	1,265	44.7	
	강원도	210	2.8	55	2.62	69	2.4	92	3.3	
	충청권	807	10.7	254	12.1	261	10.0	292	10.3	
	영남권	2,094	27.8	586	28.0	724	27.7	784	27.7	
	호남권	927	12.3	249	11.9	282	10.8	396	14.0	
지역 규모	대도시	3,296	43.7	935	44.6	1,165	44.6	1,196	42.3	
	중소도시	3,200	42.5	854	40.7	1,054	40.4	1,292	45.7	
	읍면지역	1,040	13.8	307	14.7	392	15.0	341	12.1	
학 교 급	초등 학교	4학년	2,096	-	667	31.8	-	-	-	-
		5학년	707	33.7	-	-	-	-	-	-
		6학년	722	34.5	-	-	-	-	-	-
	중학교	1학년	2,611	-	-	-	741	28.4	-	-
		2학년	-	-	931	35.7	-	-	-	-
		3학년	-	-	939	36.0	-	-	-	-
	고등 학교	1학년	2,829	-	-	-	-	-	925	32.7
		2학년	-	-	-	-	968	34.2	919	34.7
		3학년	-	-	-	-	936	33.1	892	33.7

4. OECD 자료

- 행복지수의 영역별 지표 자료는 OECD 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수집했다.
- 대표적으로 OECD 데이터베이스,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 HBSC 서베이(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등을 이용했다.
- 올해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2-3. 행복지수 영역 구성 및 지표 측정 자료 1)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15년	
					외국자료	한국자료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08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비율	19세 이하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5 KCWI)
	결핍	교육여건	교육자재를 4개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15세	PISA 2009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미만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 이하	PISA 2012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 (출산 1,000명당)	0~12개월	WDI 2013	
		저체중아의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 이하	OECD 2011	
	예방 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 예방접종	12~23개월	WDI 2013	
			소아마비 예방접종	0~11개월	UNICEF 2013	
			DPT3 예방접종	12~23개월	WDI 2013	
	사고사	아동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 (10만명당)	19세 이하	WHO 2008	
교육	학업 성취	학업성취	읽기, 수학, 과학 시험점수	15세	PISA 2012	
	교육 참여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세	OECD 2012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학교, 다른 훈련기관, 직업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	15~19세	OED 2013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6	

1) 교육자재 : PISA(2009)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곳', '학습을 위한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연결', '자기만의 계산기', '사전', '학교교과서'로 총 8개의 항목이 조사된 결과를 보여준다.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15년	
					외국자료	한국자료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 구조	홀부모 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본 연구 설문지 (2015 KCWI)
		의붓 가정	의붓 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부모 관계	함께 식사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친구 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행동 (증진 행위)	아침식사	학교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본 연구 설문지 (2015 KCWI)
		과일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11, 13, 15세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비율	13, 15세		
		운동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 수	11, 13, 15세		
	위험 행위	흡연/음주/마약/섹스	흡연/음주 경험 비율		11, 13, 15세	
			마약사용 경험 비율		15세	
	임신과 출산	십대출산율	15-19세 (여)	WDI 2013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혀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HBSC 2012	본 연구 설문지 (2015 KCWI)
	학교 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척도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13, 15세	PISA 2012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주변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다소’,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표2-4. 2009-2014년 측정지표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 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0-17세	OECD 2000 (1999, 2001 부분적 사용)	아동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2008	OECD 2006	아동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OECD 2008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 비율	14세 이하	OECD 2005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OECD 2005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2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3 KCWI)	OECD 2008	본 연구 설문지 (2014 KCWI)
	결핍	교육 여건	교육자재를 4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15세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이하로 있는 아동의 비율	19세 이하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PISA 2003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3		PISA 2003		PISA 2006		PISA 2006		
보건과 안전	영아 건강	영아 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 (출산 1,000명 당)	0-12개월	OECD 2002 2003	사망원인 통계 2007	OECD 2009	교육 개발원	OECD 2010 WHO 2010 WDI 2010	WDI 2011 OECD 2011						
		저체중아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2500g 이하	OECD 2002 2003	OECD 2002 2003	OECD 2009	교육 개발원	OECD 2010 WHO 2010 WDI 2010	WDI 2011 OECD 2011						
	예방 접종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 예방접종	12-23개월	WDI 2003 HNP 2002		UNICEF 2008 WDI 2008		WDI 2009		WDI 2009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소아마비 예방접종	0-11개월	WDI 2003 HNP 2002		UNICEF 2008 WDI 2008		WDI 2009		WDI 2009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DPT3 예방접종	12-23개월	WDI 2003 HNP 2002		UNICEF 2008 WDI 2008		WDI 2009		WDI 2009		WDI 2011 UNICEF 2011		WDI 2011 UNICEF 2011	
사고사	아동 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 (10만명 당)	19세 이하	WHO 2005	사망원인 통계 2007	WHO 2005	사망원인 통계 2007	WHO 2008		WHO 2008		WHO 2008		WHO 2008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외국	한국																
교육	학업 성취	15세 학업성적	읽기, 수학, 과학 시험점수	15세	PISA 2003		PISA 2006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PISA 2009							
	교육 참여	아동의 학업 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 세	OECD 2009	국제통계 연감 2007	OECD 2009	교육 개발원 2010	OECD 2010		OECD 2010		OECD 2012		OECD 2012							
	청소년 실업	실업 상태인 청소년	학교나 훈련기관에 소속되어있지 않으면서 직업이 없는 청소년 비율	15-19 세	조사하지 않음		OECD 2009	교육 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OECD 2010	교육개발원 2010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5세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PISA 2000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PISA 2006							
가족과 친구관계	가족 구조	홀부모 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13, 15세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2009 KCWI)	HBSC 2001	본 연구 설문지 (2010 KCWI)	HBSC 2006	본 연구 설문지 (2011 KCWI)	HBSC 2012	본 연구 설문지 (2012 KCWI)	HBSC 2012	본 연구 설문지 (2013 KCWI)	HBSC 2012	본 연구 설문지 (2014 KCWI)						
		의붓 가정	의붓 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11,13, 15세													HBSC 2001	HBSC 2006	HBSC 2012	HBSC 2012	HBSC 2012	
	부모 관계	함께 식사 하기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PISA 2000															
		함께 대화 하기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15세	PISA 2000		PISA 2000															
친구 관계	친절한 급우 관계	‘급우가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11,13, 15세	HBSC 2001	HBSC 2001	HBSC 2001	HBSC 2001	HBSC 2012	HBSC 2012													

영역	구성 요소	지표	측정	조사 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외국	한국
행동 과 생활 양식	건강 행동 (증 진행 위)	아침 식사	학교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11,13 15세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09)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HBSC 2006	본연구 설문지 (KCWI 2011)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2)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3)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4)	
		과일 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11,13 15세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5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5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인 학생의 비율	13, 15세		본연구 설문지 (KCWI 2009)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운동	지난 1주일 간 1시간 이상 운동한 일수	11,13 15세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5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5									
	위험 행위	흡연 음주 마약 섹스	흡연/음주 경험비율 마약 사용 경험비율	11,13 15세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09)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HBSC 2006	본연구 설문지 (KCWI 2011)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2)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3)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4)
			섹스 경험비율	15세												
		임신과 출산	십대출산율	15-19세 (여)												
	주관 적 행복	주관 적 건강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혀', '별로' 좋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	11,13 , 15세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09)	HBSC 2001	본연구 설문지 (KCWI 2010)	HBSC 2006	본연구 설문지 (KCWI 2011)	본연구 설문지 (KCWI 2012)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3)	HBSC 2012	본연구 설문지 (KCWI 2014)
		학교 생활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11,13 15세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11,13 , 15세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15세	PISA 2003	PISA 2003	본연구 설문지 (KCWI 2011)	PISA 2003	본연구 설문지 (KCWI 2012)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PISA 2003	
			주변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													
		'다소', '매우'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														

II.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올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전산화했다.
- 올해 설문조사 데이터의 경우 지역별, 지역규모별, 교급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 전산화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TATA SE와 SPSS를 활용해 분석했다.

2. 행복지수 산출 방법

- OECD 자료의 경우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개별지표를 표준화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했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 한국과 다른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각 영역의 구성요소와 지표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 과정을 통해 얻어졌다. 먼저, 각 영역을 점수로 나타내기 위해 구성요소와 지표를 점수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산술평균을 얻는 과정에서 단위가 서로 다른 다양한 수치의 단순 합산은 단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영역에서 학업성취 점수와 교육참여 아동의 비율을 직접 합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점수를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분포가 되도록 표준화해 사용했다. 만약 점수가 70이라면 모든 국가의 평균치에서 약 3개의 표준편차만큼이나 낮은 점수이다. 즉, 개별지표들을 표준화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을 구해 지표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점수를 더해 다시 산술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구성요소를 점수화 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의 점수를 더해 산술평균을 얻는 방식으로 각 영역의 점수를 구했다.
- 원자료 가운데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준점수(Z-score)로 전환할 때, 부호를 바꿔주었다. 예를 들어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비율을 합쳐 어린이의 ‘영아 건강’을 측정하는 경우, 영아 사망률과 저체중아 비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국가는 표준화 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도록 표준화 점수의 부호를 바꿔주었다. 그리고 측정질문, 지표, 구성요소, 그리고 영역에 이르는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측정 질문이 지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른 측정 질문보다 클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배제하고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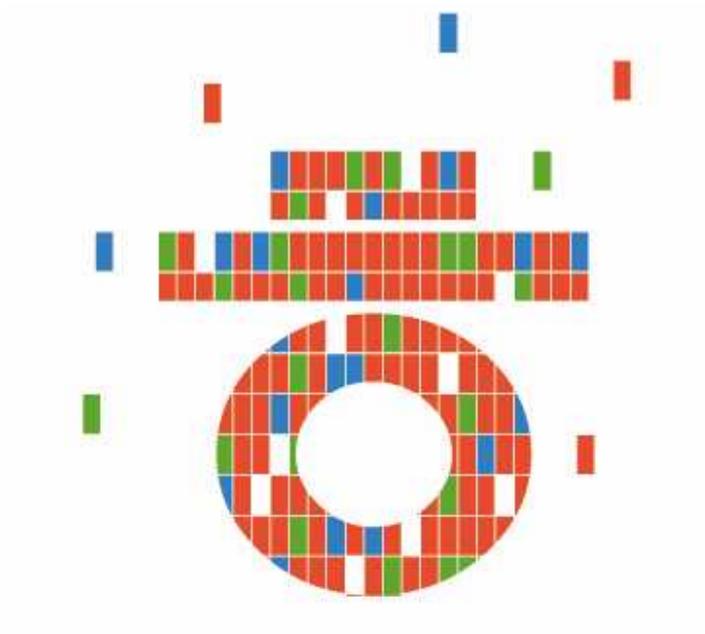
표2-5. 2015년 한국 어린아·청소년 행복연구(KCW)의 각 지표별 표준점수 2)3)

영역	구성요소	지표	조사대상	OECD 평균	한국 표준점수		
					원점수	구성요소별 표준점수	영역별 표준점수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0-17세	11.6	10.2	102.7	114.4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아동	19세 이하	4.3	3.3	104.8	
	결핍	교육여건	15세	1.9	1.8	112.7	
문화적 결핍		19세 이하	12.3	4.6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영아 사망률	0-12개월	3.5	3	107.9	110.7
		저체중아 비율	2500g 이하	6.6	5.2		
	예방접종	홍역	12 ~23개월	93.9	99	109.9	
		소아마비		95.7	99	109.3	
		DPT3		95.9	99		
사고사	아동사고사 (10만명당)	19세 이하	23.8	22.4	103.2		
교육	학업성취 (PISA 표준화 점수평균:500)	읽기	15세	504.0	536	120.4	114.5
		수학		502.1	554		
		과학		508.7	538		
	교육참여	15-19세 아동 학업유지	15-19세	86.5	86.8	100.7	
	청소년 실업	실업상태인 청소년	15-19세	6.6	8.5	92.1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15세	28.7	15.4	115.0		
가족과 친구 관계	가족구조	홀부모 가정	11, 13, 15세	14.8	6.2	123.9	106.1
		이웃 가정	15세	9.3	0.7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15세	78.4	59.7	80.4	
		함께 대화하기		60.9	47.1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11,13,15세	68.6	77.2	107.8		
행동과 생활 양식	건강 증진행위	아침식사	11,13,15세	65.7	81.9	135.8	135.7
		과일섭취	11,13,15세	38.8	62.7		
		과체중 (BMI 25 이상)	13, 15세	14.5	7.5		
		운동 (평균 일 수)	11,13,15세	3.96	6.1		
	건강 위험행위	흡연	11,13,15세	24.6	1.3	129.3	
		음주		9.7	9.3		
		마약		17.8	0.9		
		섹스	15세	24.6	1.1		
임신과 출산	15-19세 (여)	9.6	2.3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주관적 불건강	11,13,15세	13.8	17.5	91.1	90.4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11,13,15세	28.0	45.0	120.5	
	개인행복	삶의 만족	11,13,15세	86.1	74.3	86.1	
		소속감 못느낌	15세	10.6	14.3		
		어울림 못느낌		11.6	4.8		
외로움		8.4		11.6			

2) 생활과 행동양식영역에서 '폭력의 경험'은 한국에서 유니세프 연구와 같은 지표화와 측정이 쉽지 않았으므로 제외되었다. 행동과 생활양식 영역에서 콘돔사용에 대한 질문은 한국 청소년의 성행위 경험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표산출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3) UNICEF의 원지표는 '지난 1주일간에 한하여' 음주여부'를 묻는 질문인데 반해, 본 연구 설문지(KCW)는 '지금까지 두번 이상 음주경험'을 물었기 때문에 한국의 비율이 과대측정 되었다

제3장 OECD 행복지수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려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싹을 위해야 그 나무는 뻗쳐 나갈 것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1. 물질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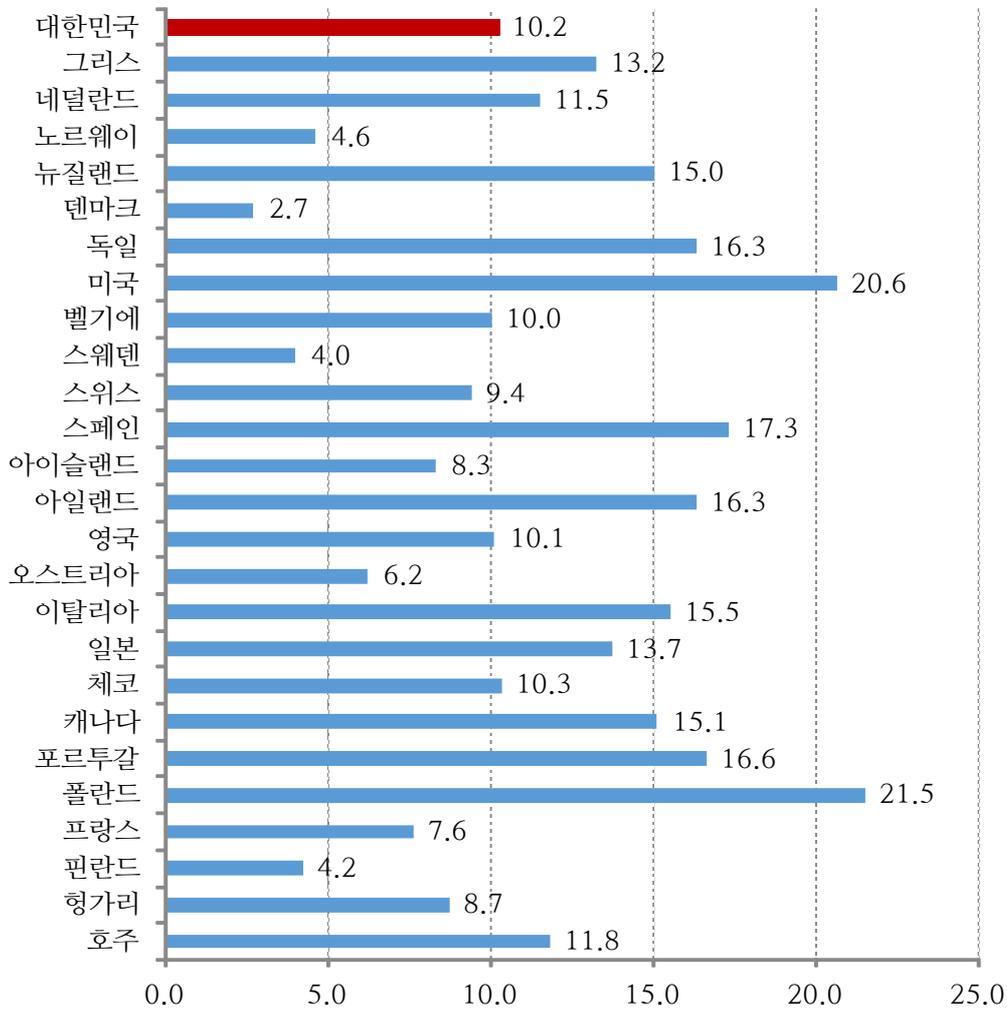
1. 상대적 빈곤⁴⁾

중위수입의 50% 이하 : 개별국가에서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

- 한국의 상대적 빈곤 비율은 10.2%로 OECD 국가 평균(11.5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1. 국가별 상대적 빈곤 : 중위수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상대적 빈곤	11.57	5.08	2.7	21.5

4) 그래프에서 수치가 0인 경우는 해당 수치가 조사되지 않은 국가로 기술 통계치에서는 0을 결측값으로 처리한 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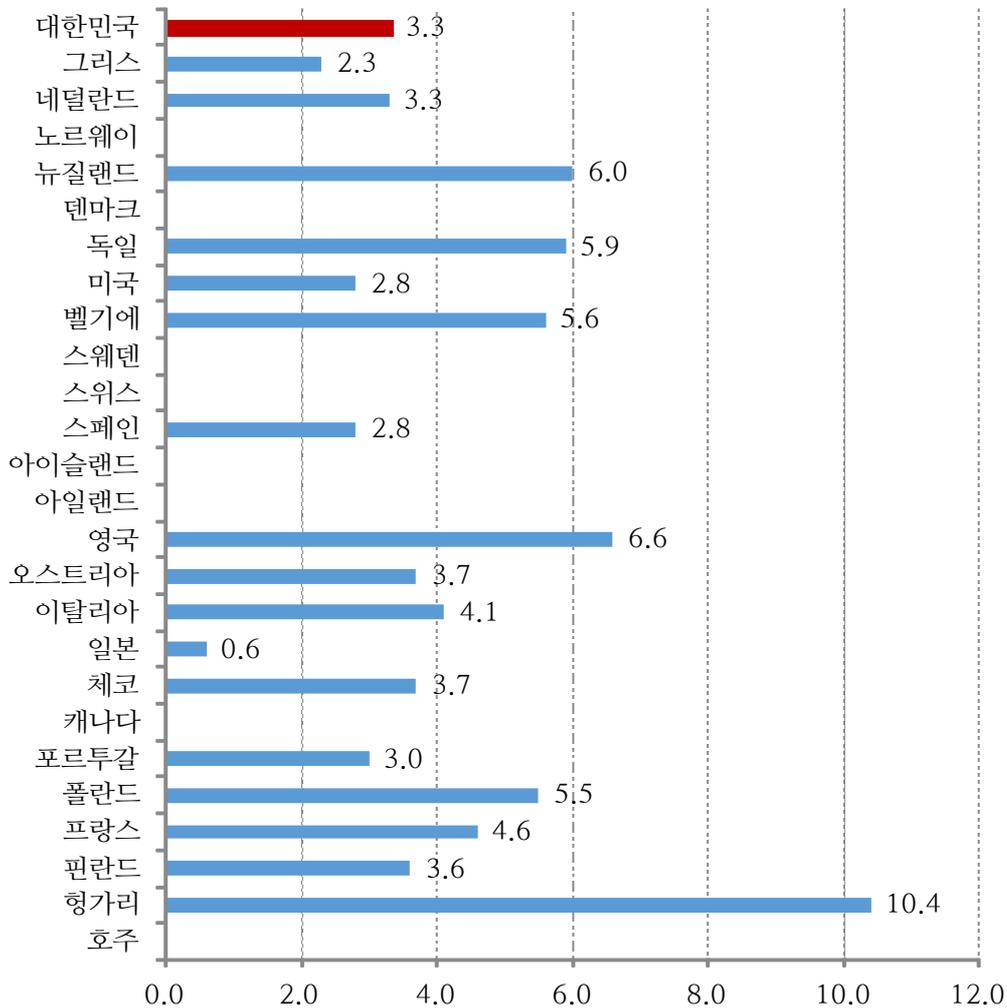
2.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 가정의 성인이 취업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비율

- 한국의 미취업 가정 비율은 3.33%로 OECD 국가 평균인 4.3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 미취업 가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미취업 가정	4.32	2.146	0.6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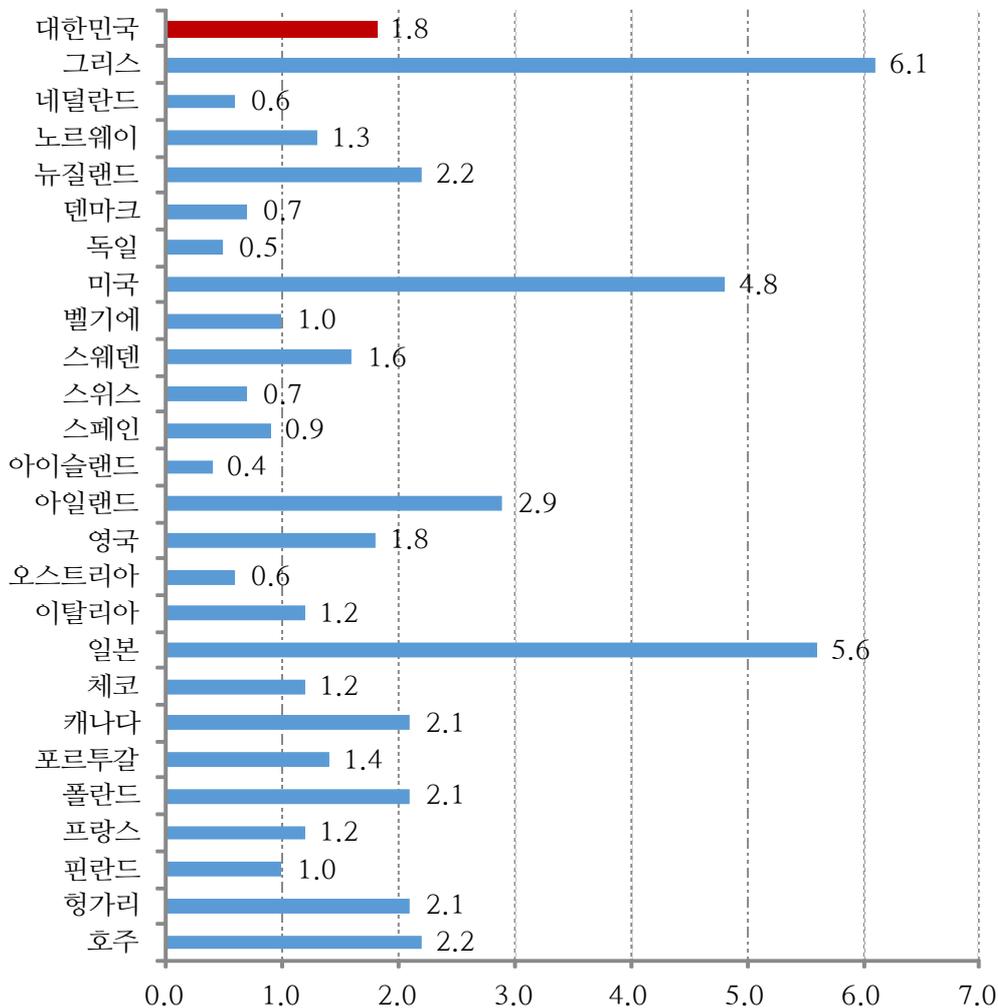
3. 빈곤 교육여건

교육여건 : 교육자재-책상, 조용한 곳,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인터넷, 계산기, 사전, 학교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책-를 4개 미만 소유한 비율

- 한국의 교육여건 관련 수치는 1.8%로 OECD 국가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3-3. 교육여건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교육여건	1.85	1.500	0.4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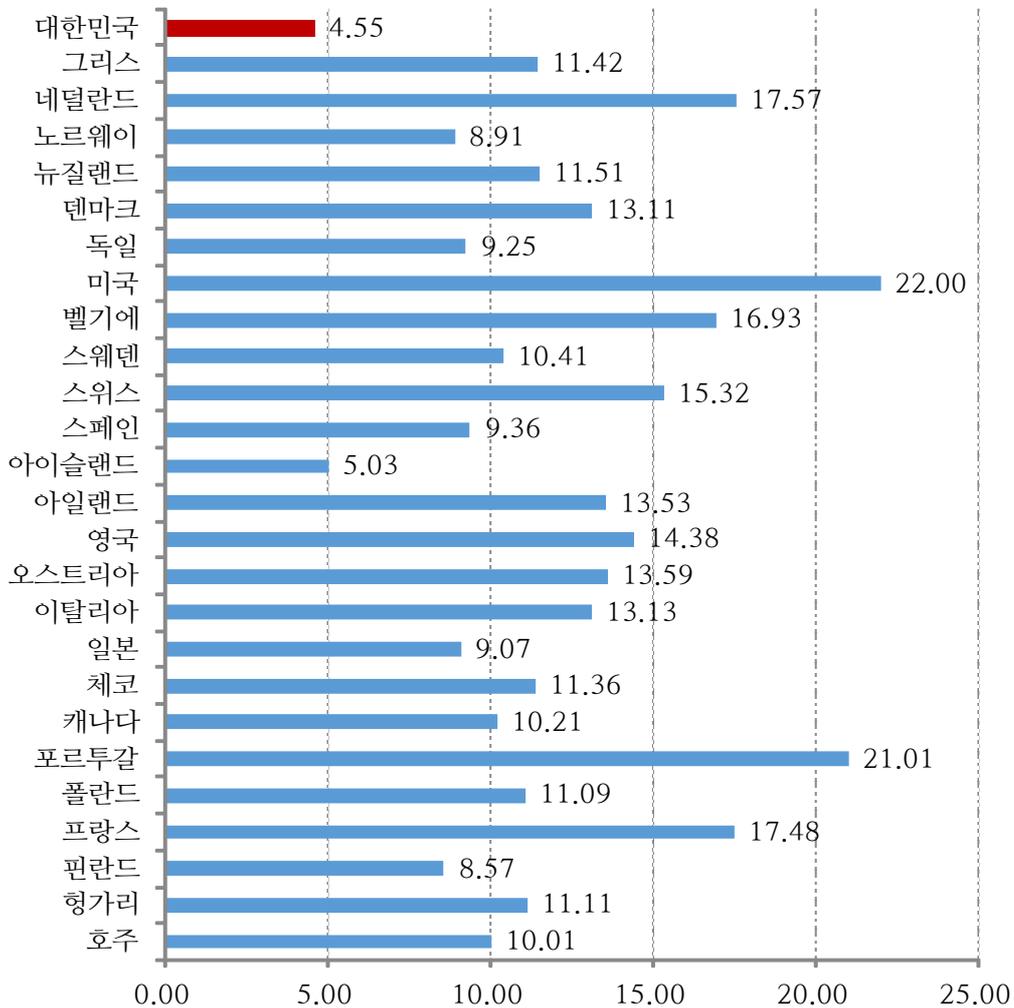
3. 빈곤 문화적 결핍

문화적 결핍 : 집에 책이 10권 이상 있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문화적 결핍수치는 4.55로 OECD 국가 평균(12.3%)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4. 문화적 결핍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문화적 결핍	12.30	4.238	4.55	22

II. 보건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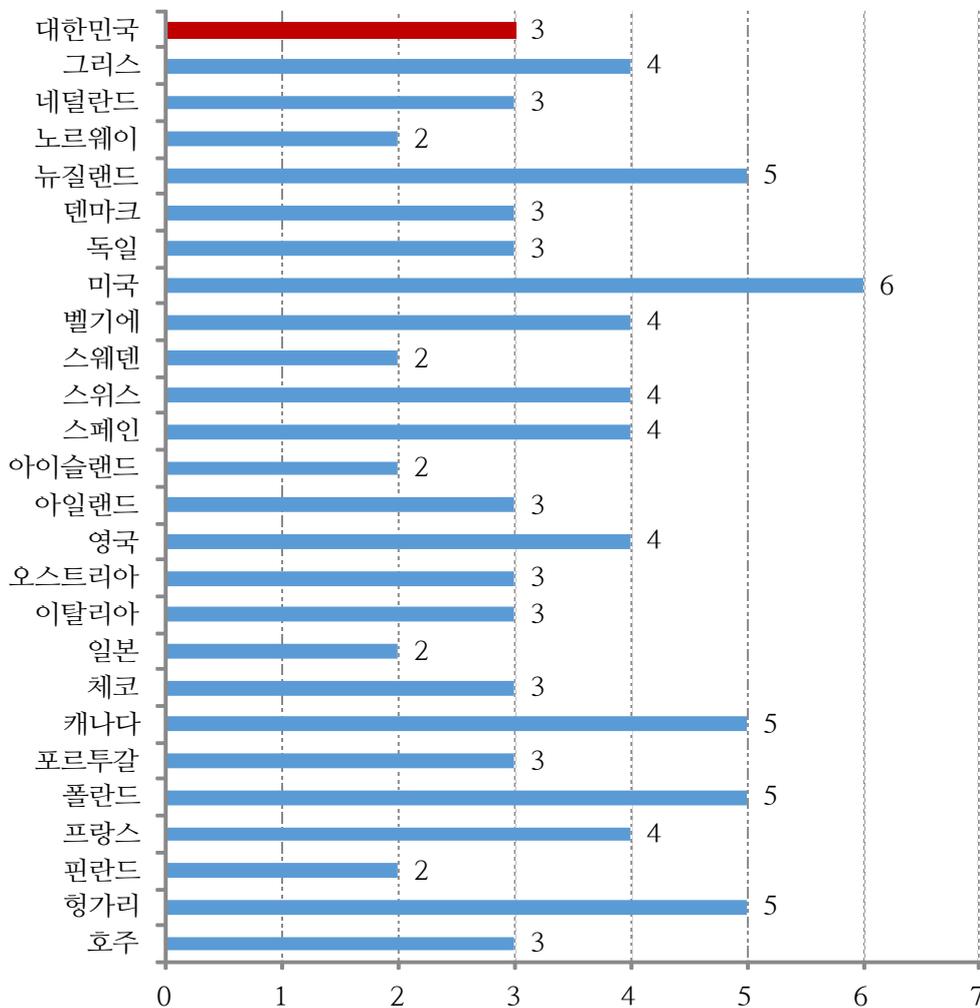
1. 영아건강_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 : 사망한 0~1세의 비율(출산 1,000명당)

-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3.0%로 OECD 국가 평균(3.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5. 영아사망률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영아사망률	3.46	1.104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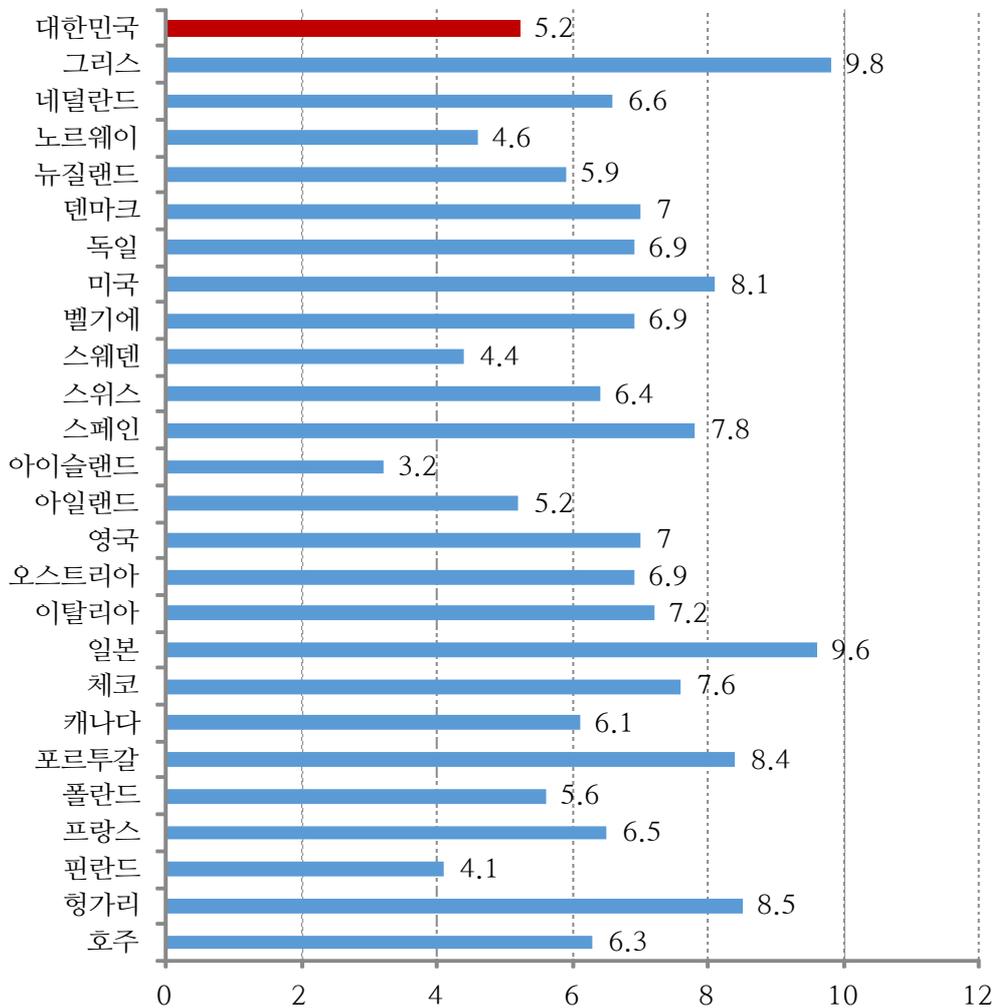
1. 영아건강_저체중아 비율

저체중아 비율 : 2.5kg 이하 저체중아의 비율

- 한국의 저체중아 비율은 5.2%로 OECD 국가 평균6.6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6. 저체중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저체중아	6.61	1.602	3.2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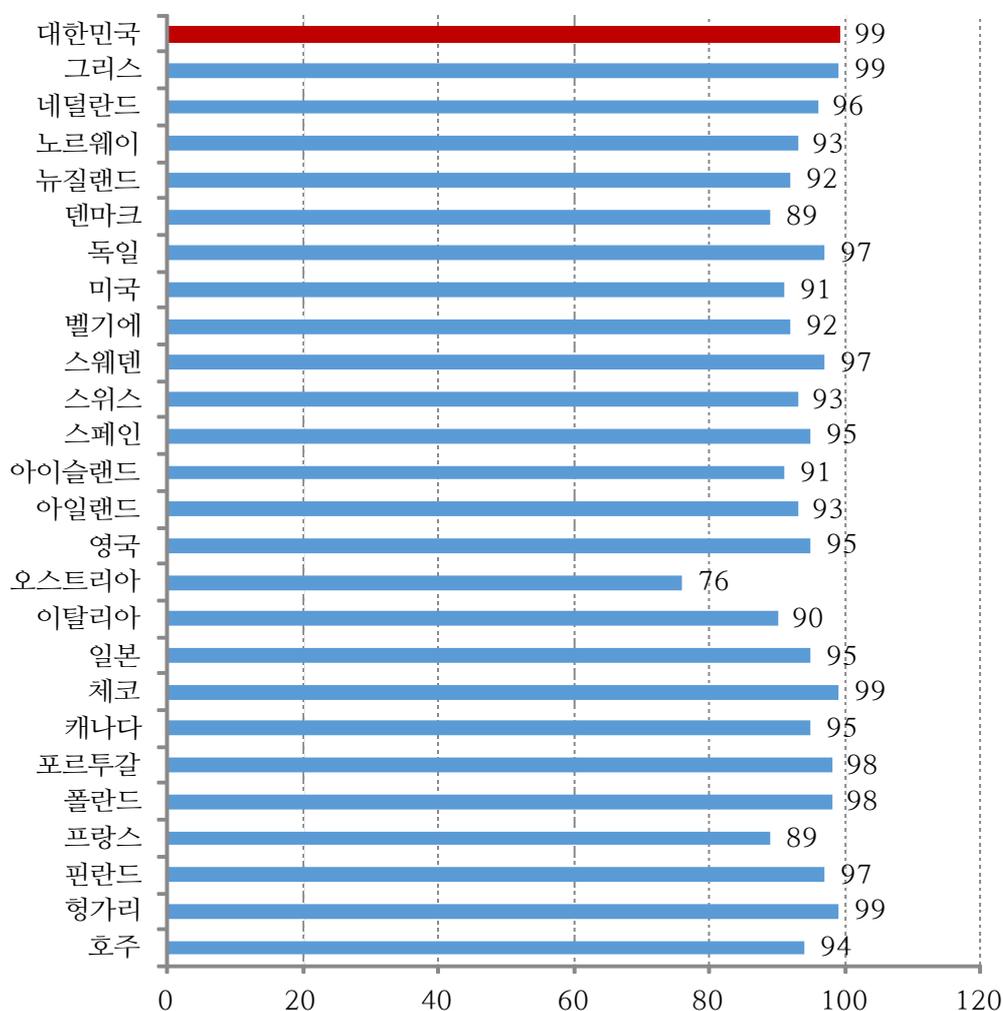
2. 예방접종_홍역

홍역 예방접종 비율 : 12-23개월 영아의 홍역 예방접종 비율

- 한국의 홍역 예방접종 비율은 99%로 OECD 국가 평균(93.92 %)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림3-7. 홍역 예방접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홍역 예방접종 여부	93.92	4.840	76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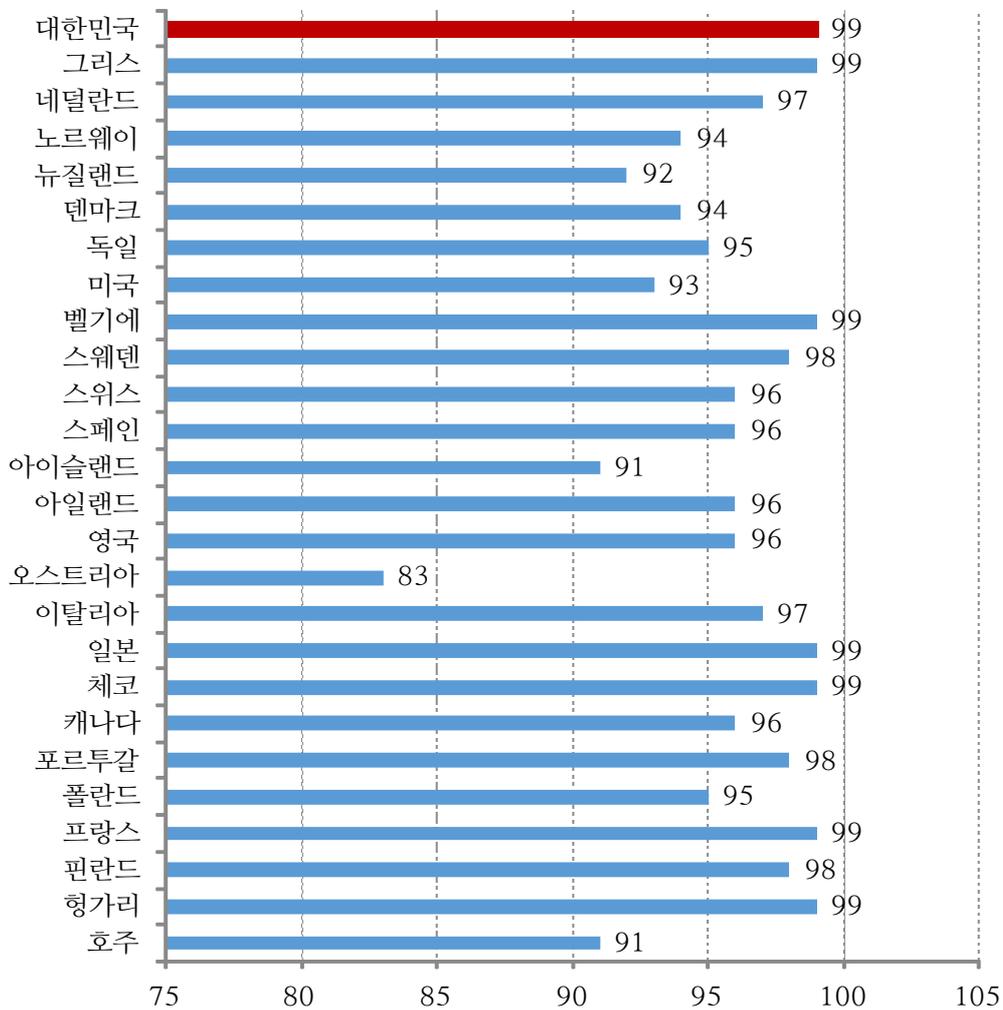
2. 예방접종_소아마비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 : 12-23개월 영아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

- 한국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비율은 99%로 OECD 국가 평균(95.73%)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림3-8. 소아마비 예방접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소아마비 예방접종 여부	95.73	3.628	83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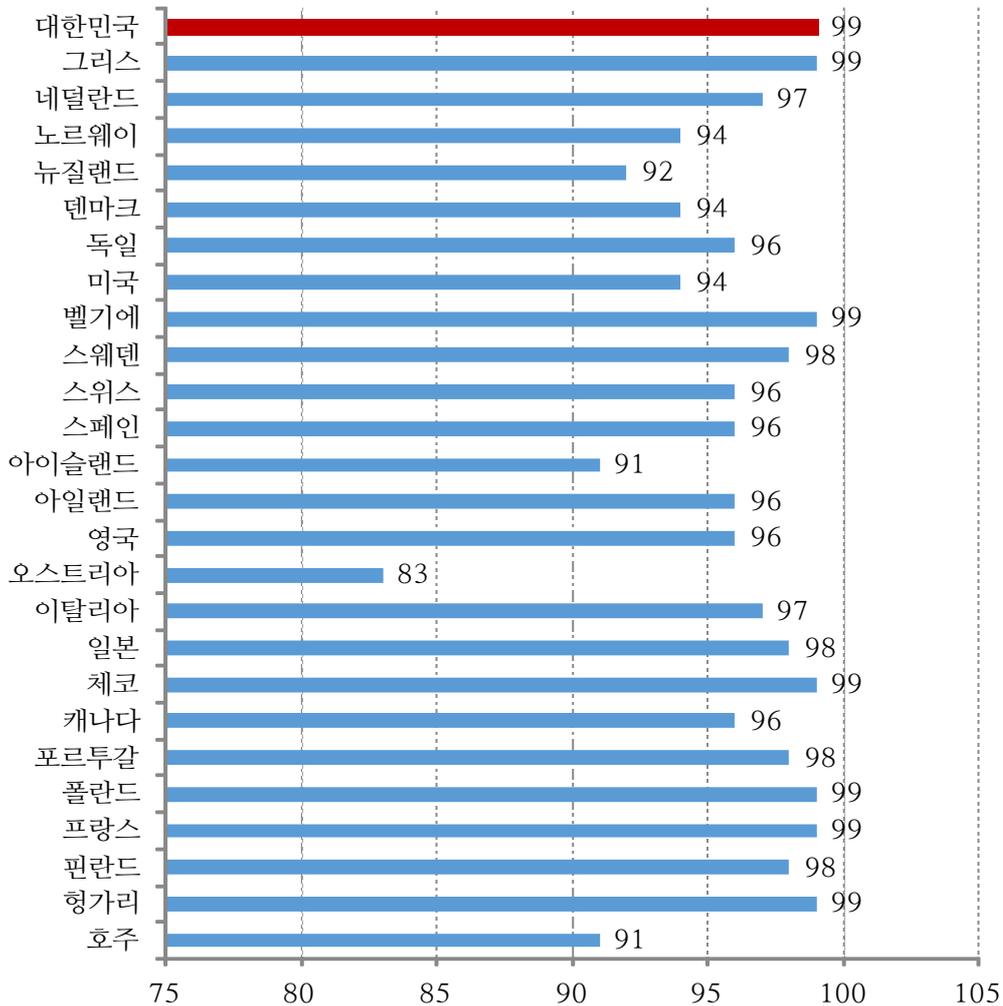
2. 예방접종_DP3

DPT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비율 : 12-23개월 영아의 DPT3 예방접종 비율

- DP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비율 역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 (95.92%)보다 높은 99%로 나타났다.

그림3-9. DPT 예방접종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DPT3예방접종 여부	95.92	3.621	83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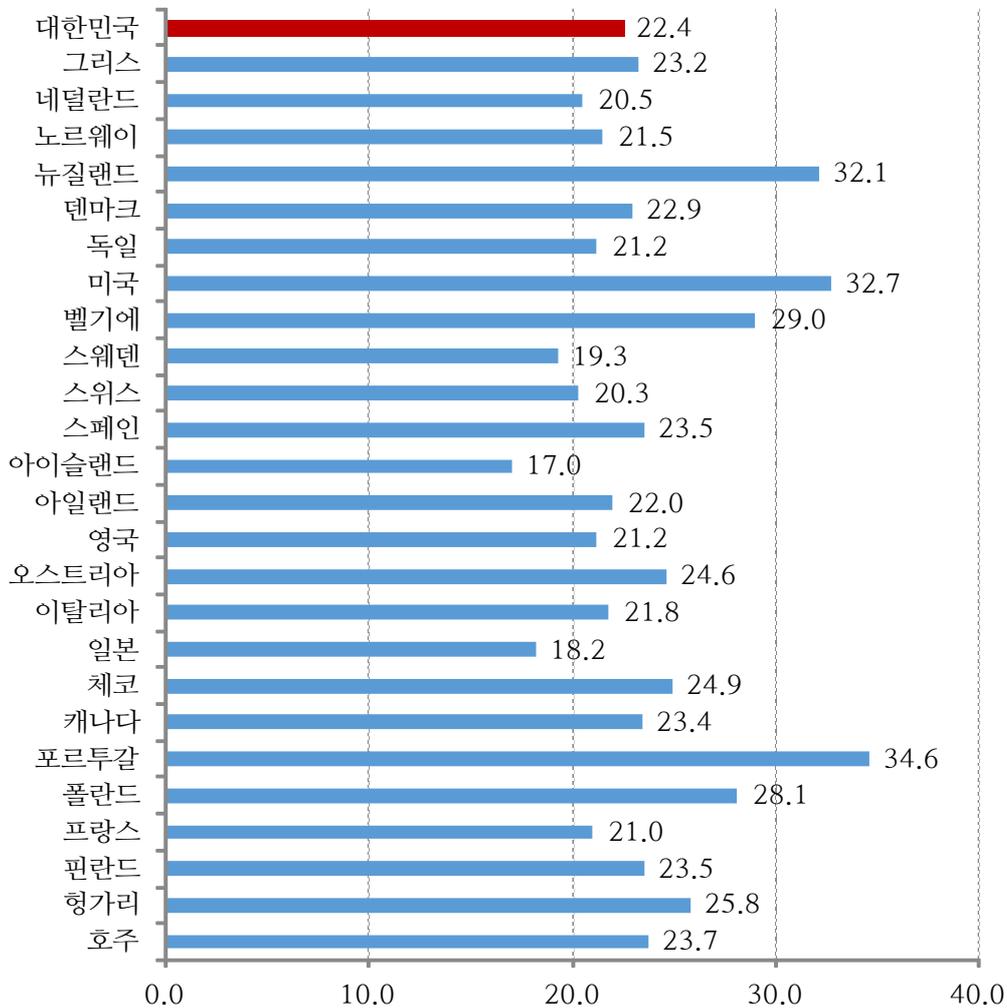
3. 사고사

아동사고사 :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아동(19세 이하)의 십만 명당 비율

- 한국의 연평균 아동사고사 비율은 10만 명당 22.4%로 OECD 국가 평균(23.78%)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3-10. 아동사고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아동사고사	23.78	4.35648	17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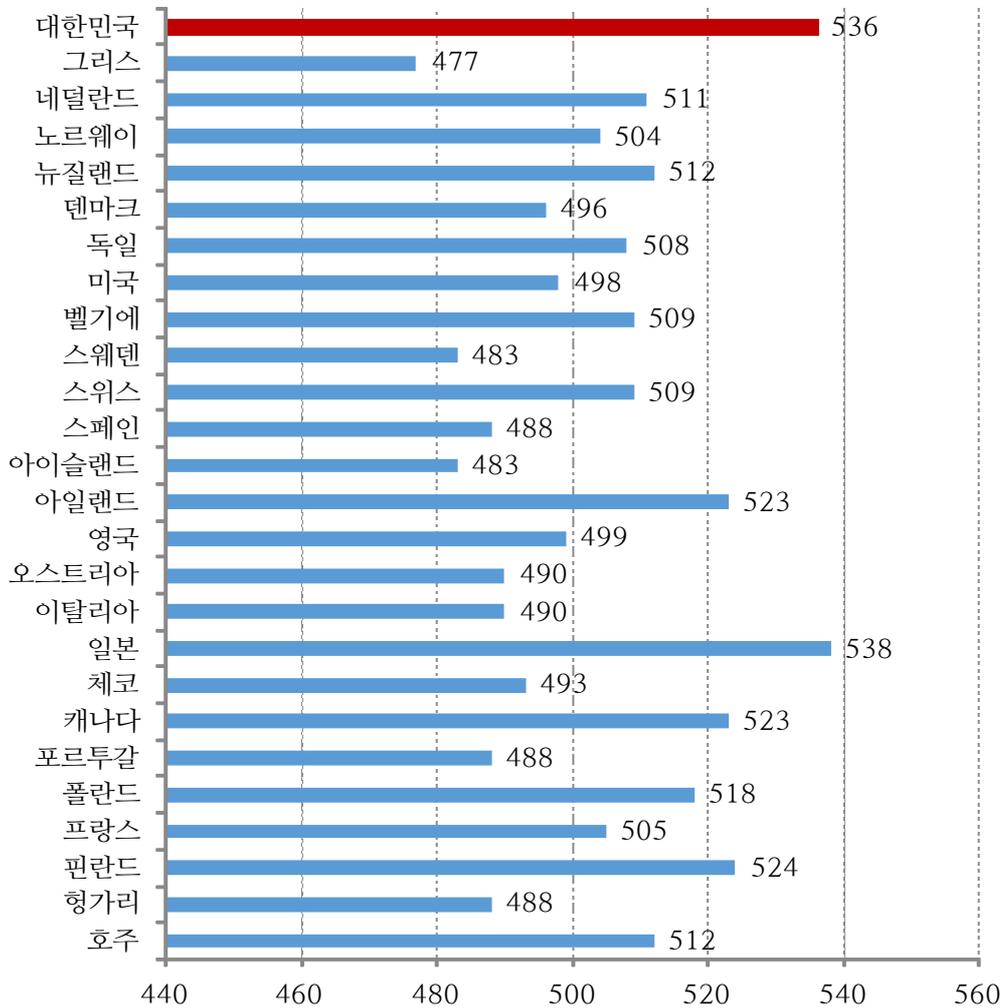
Ⅲ. 교육

1. 학업성취 읽기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읽기 점수

- 한국의 읽기시험 점수는 536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일본(538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3-11. 읽기시험 점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읽기점수	504.04	16.443	477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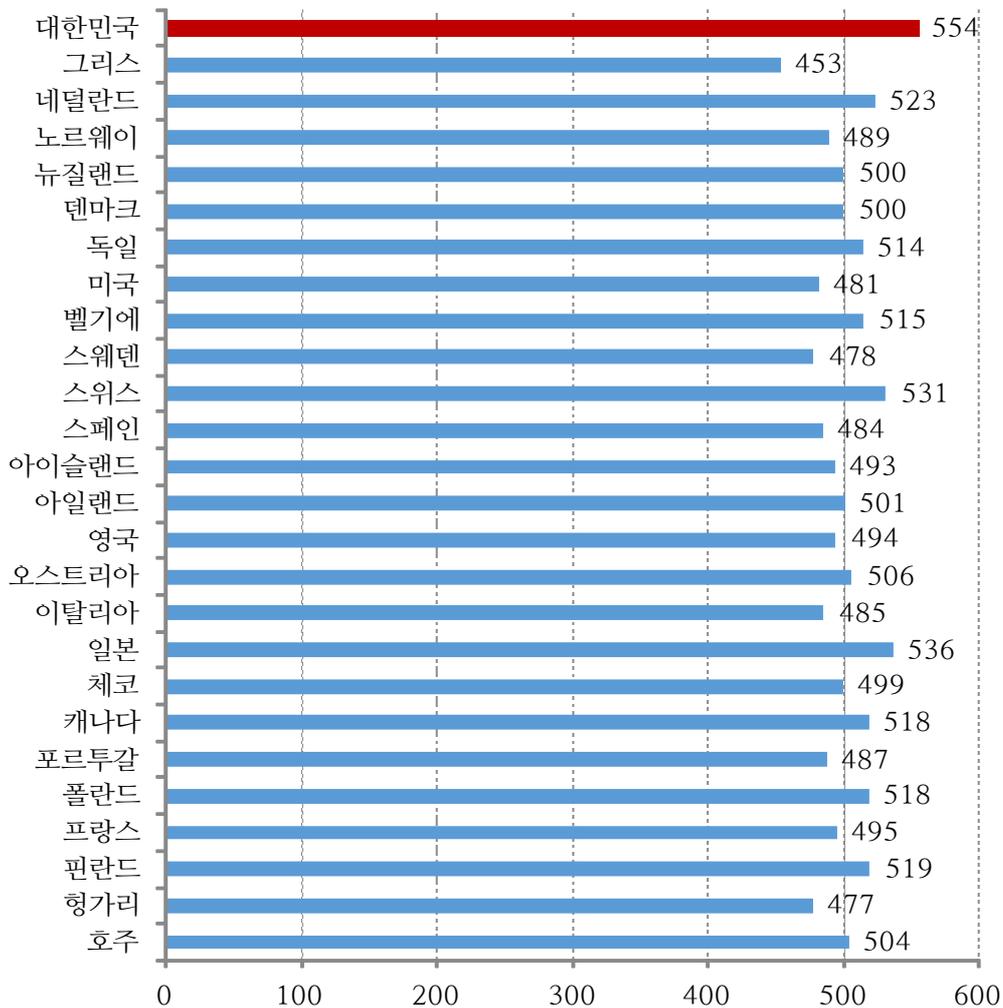
1. 학업성취_수학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수학 점수

- 한국의 수학시험 점수는 OECD국가 평균(502.08)을 크게 상회하는 554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림3-12. 수학시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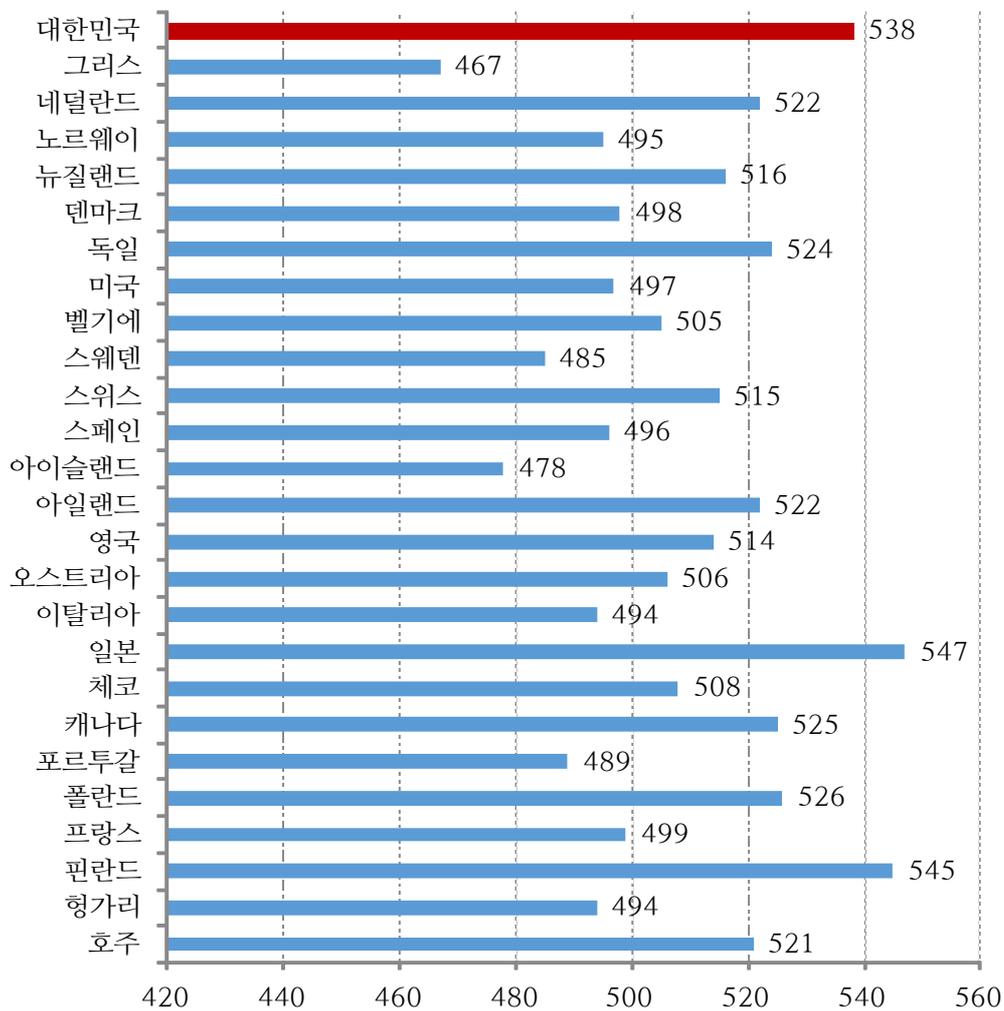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수학점수	502.08	21.482	453	554

1. 학업성취 과학

15세 학업성적 :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과학 점수

- 한국의 과학시험 점수는 538점으로 OECD 국가 평균(508.89)보다 크게 높았으며, 핀란드,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림3-13. 과학시험 점수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학점수	508.69	19.847	467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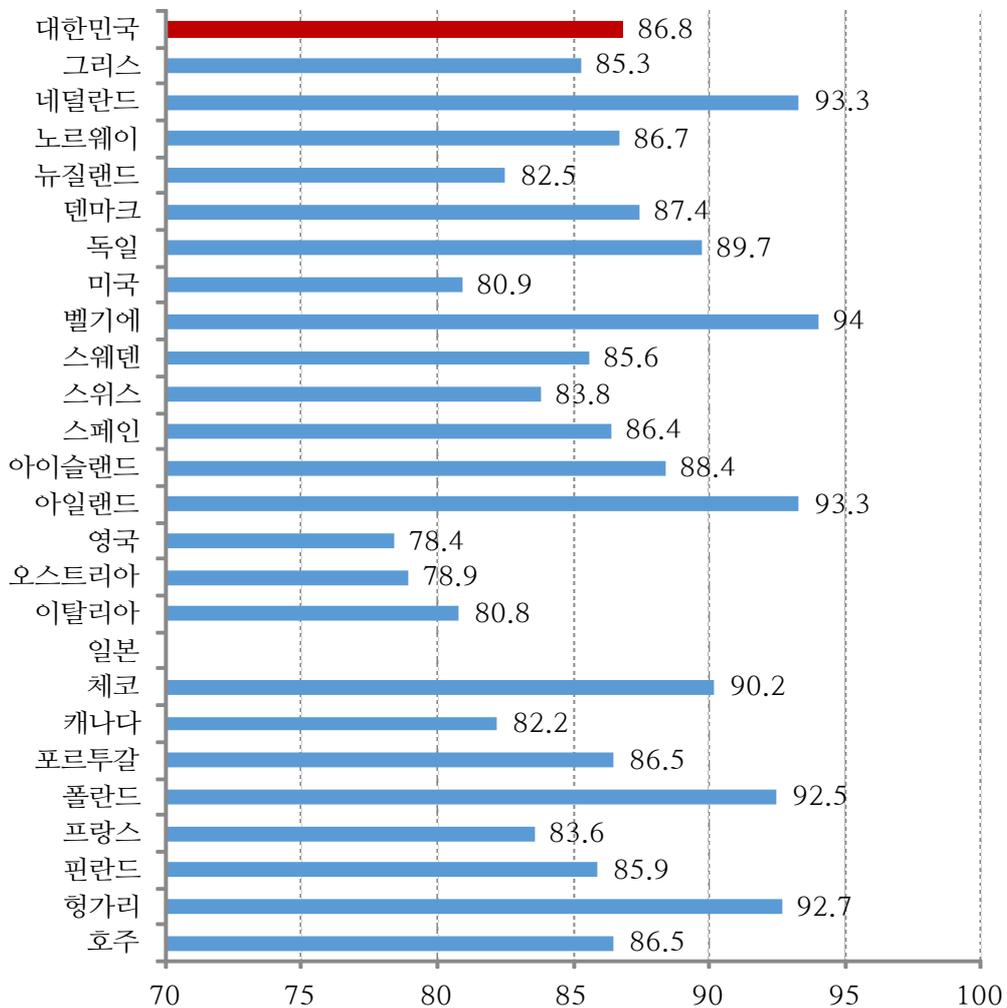
2. 교육참여_학업유지

15-19세 아동의 학업 유지 : 학교를 다니는 15-19세의 아동의 비율

- 한국의 학업유지 비율은 86.8%로 OECD 국가 평균 86%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3-14. 학업유지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업 유지	86.49	4.526	78.4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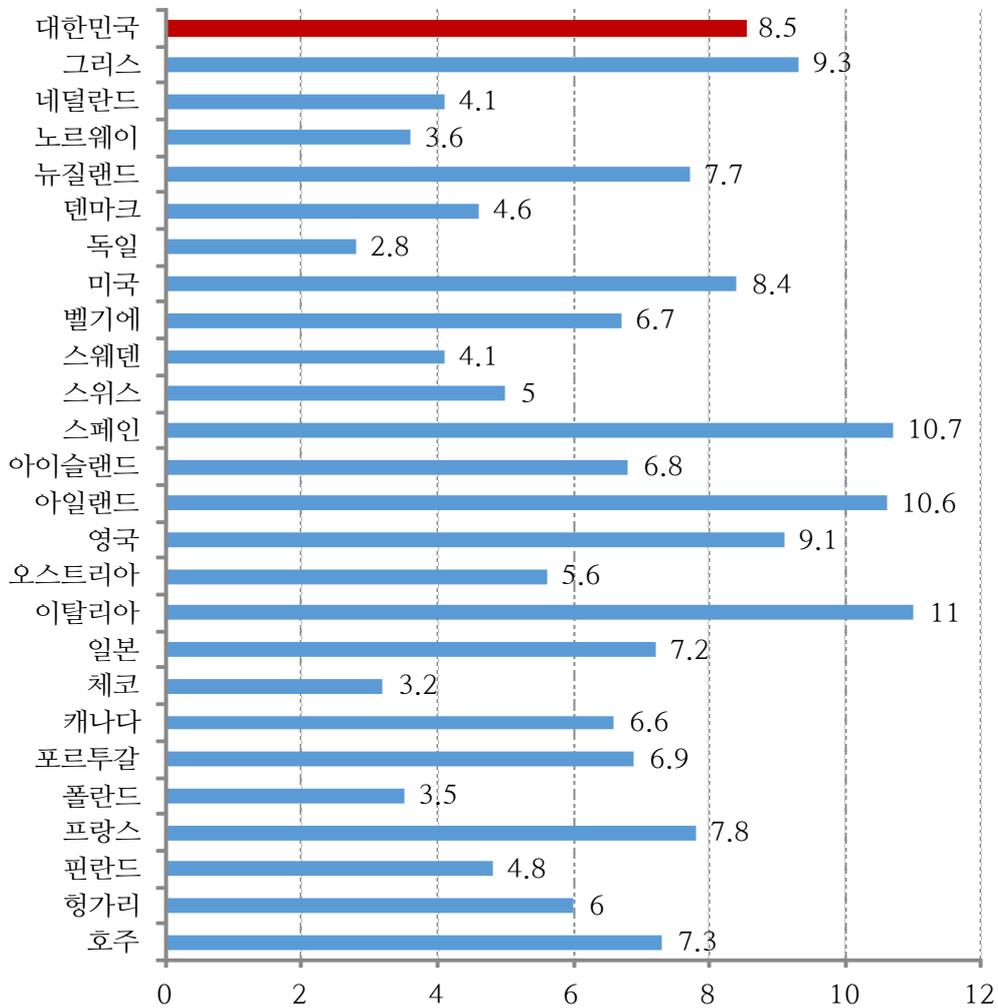
2. 교육참여_실업상태

실업상태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층의 비율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층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6.61%이며 한국은 8.5%로 OECD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3-15. 실업상태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실업상태	6.61	2.40	2.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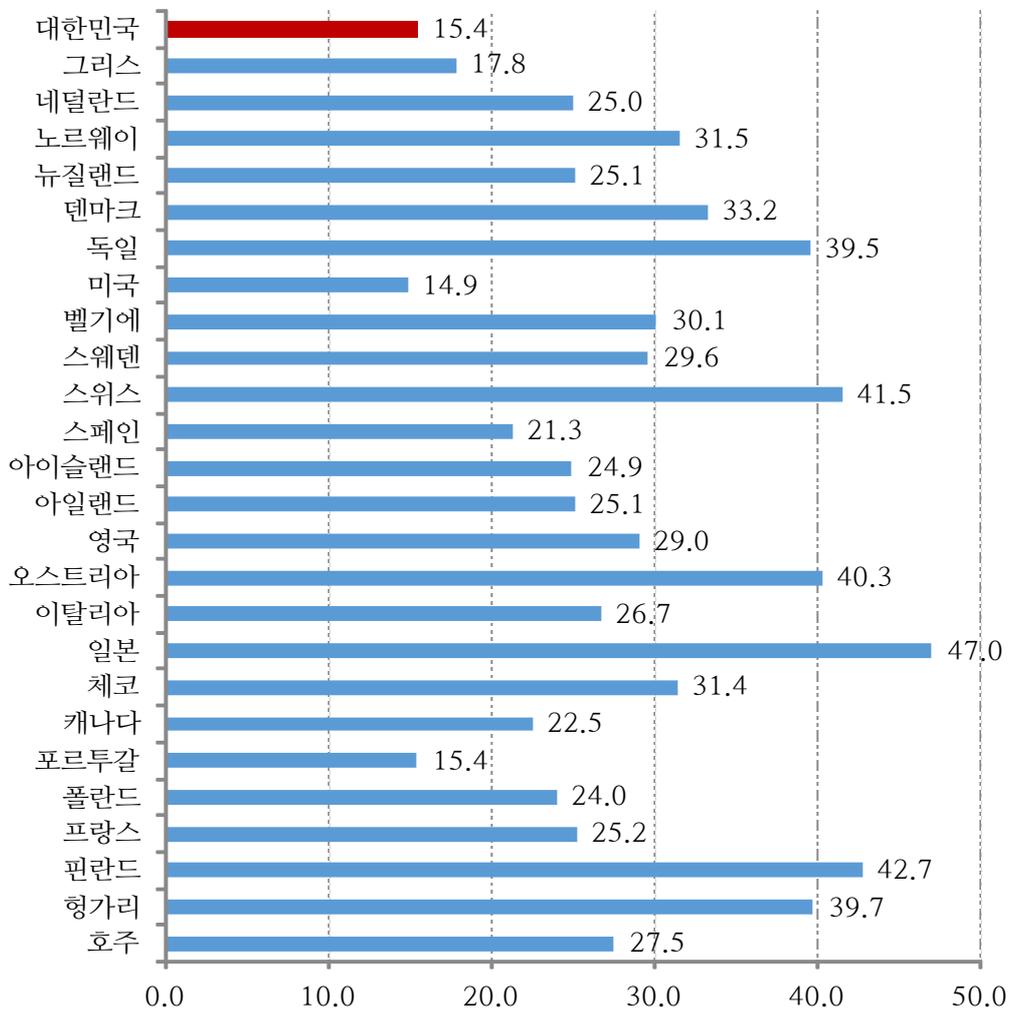
3.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 기대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

- 성인이 되어 희망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기대하는 비율은 한국이 15.4%로 OECD 국가 평균인 28.7%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16. 미숙련 일자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업열망	28.70	8.844	14.9	47

IV. 가족과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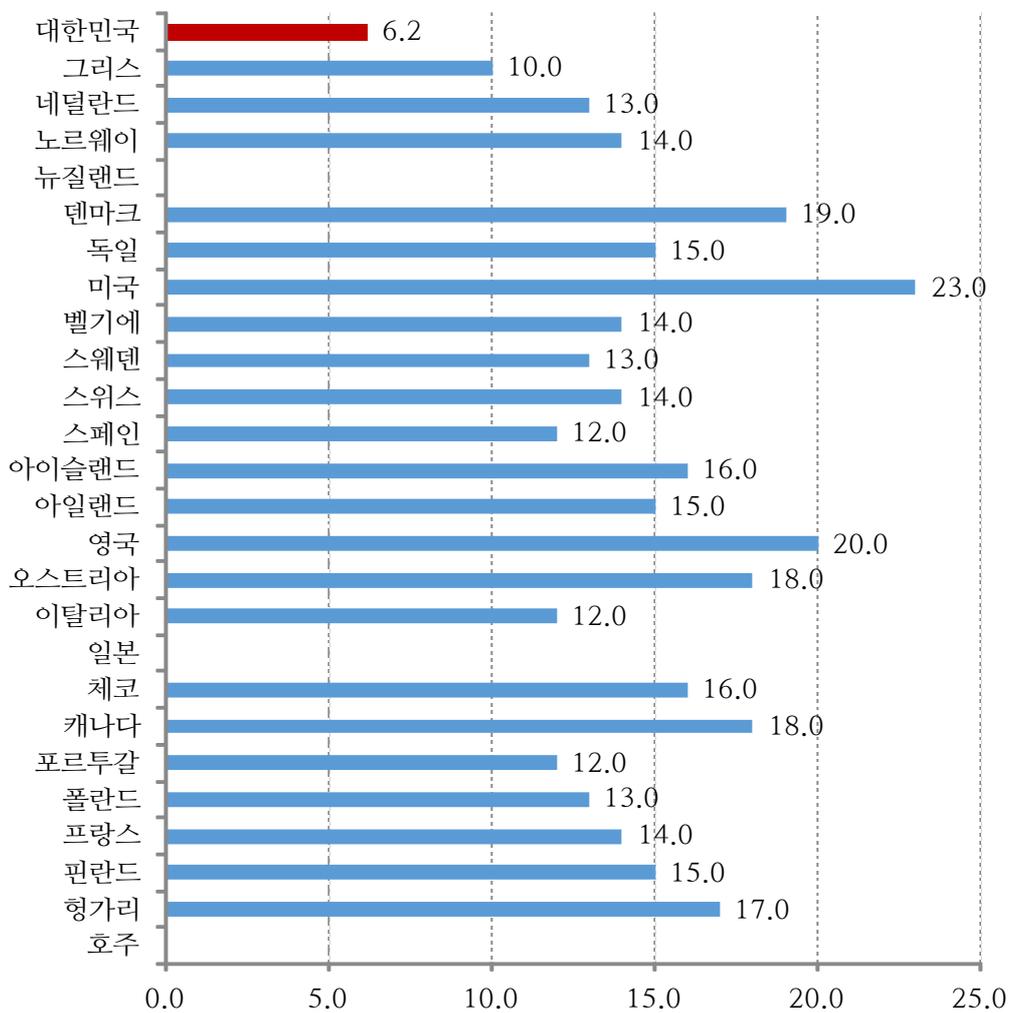
1. 가족구조_홀부모가정

홀부모가정 : 홀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 한국의 홀부모가정 비율은 6.2%로 OECD 국가 평균(14.75%)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17. 홀부모가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홀부모가정	14.75	3.522	6.2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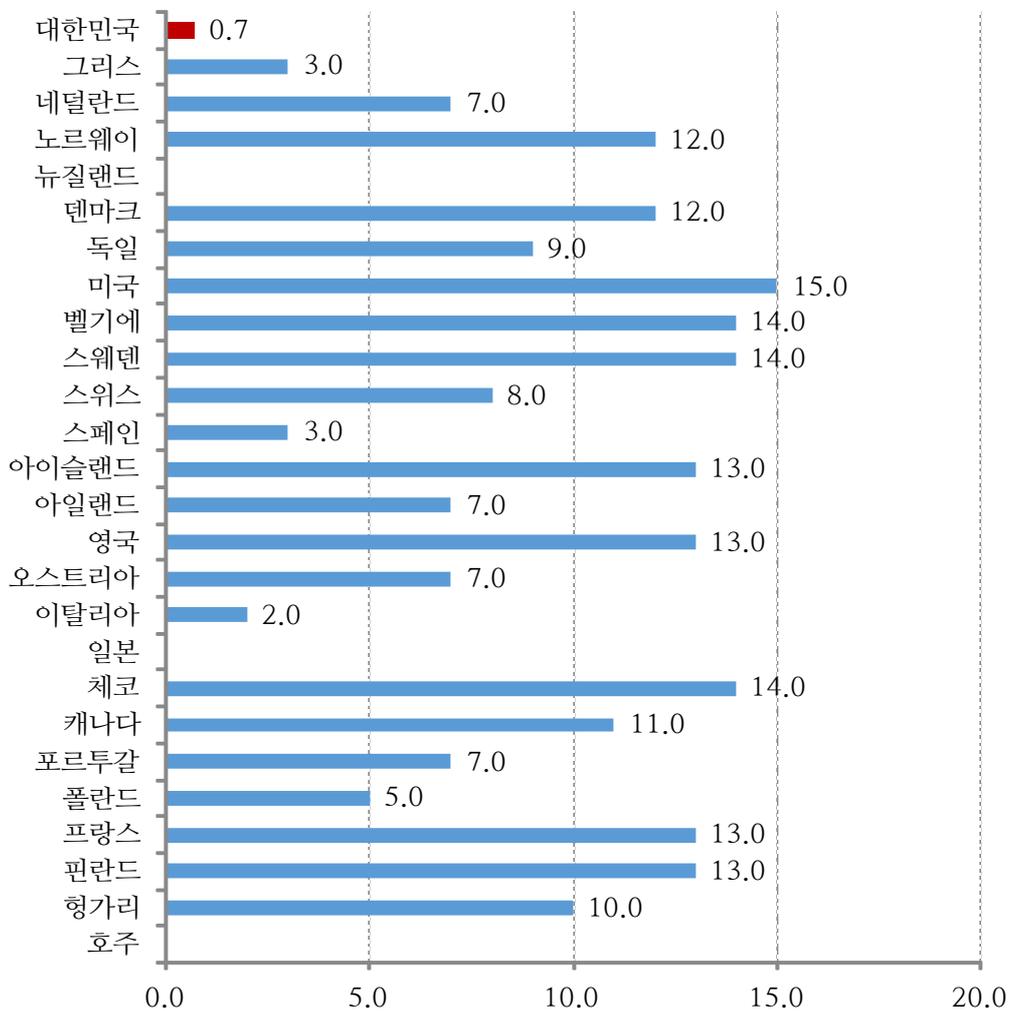
1. 가족구조_의붓가정

의붓가정 :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 의붓아버지 혹은 의붓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0.7%에 그친 반면, OECD 국가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9.25%로 나타났다.

그림3-18. 의붓가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의붓가정	9.25	4.367	0.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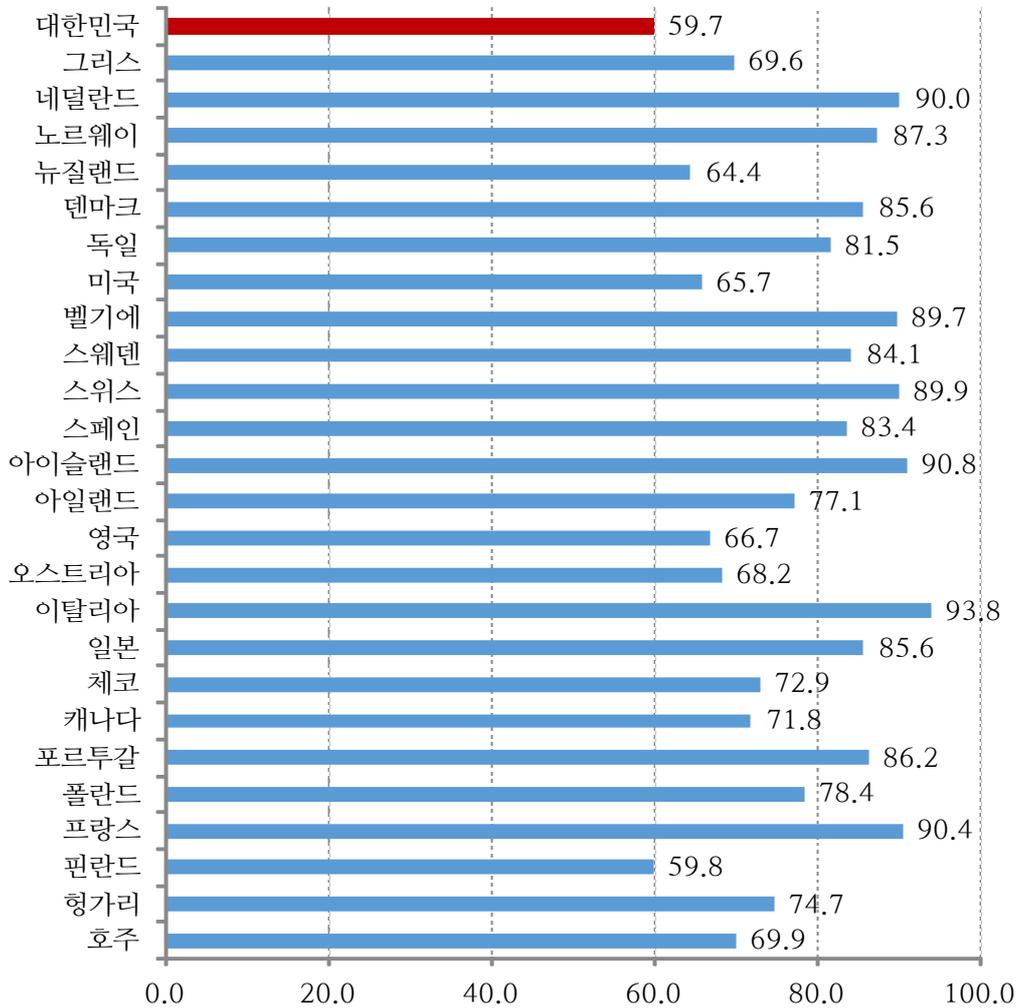
2. 부모관계_함께 식사하기

함께 식사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은 한국의 경우 59.7%로, OECD 국가 평균 78.35%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3-19. 함께 식사하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함께 식사하기	78.35	10.531	59.7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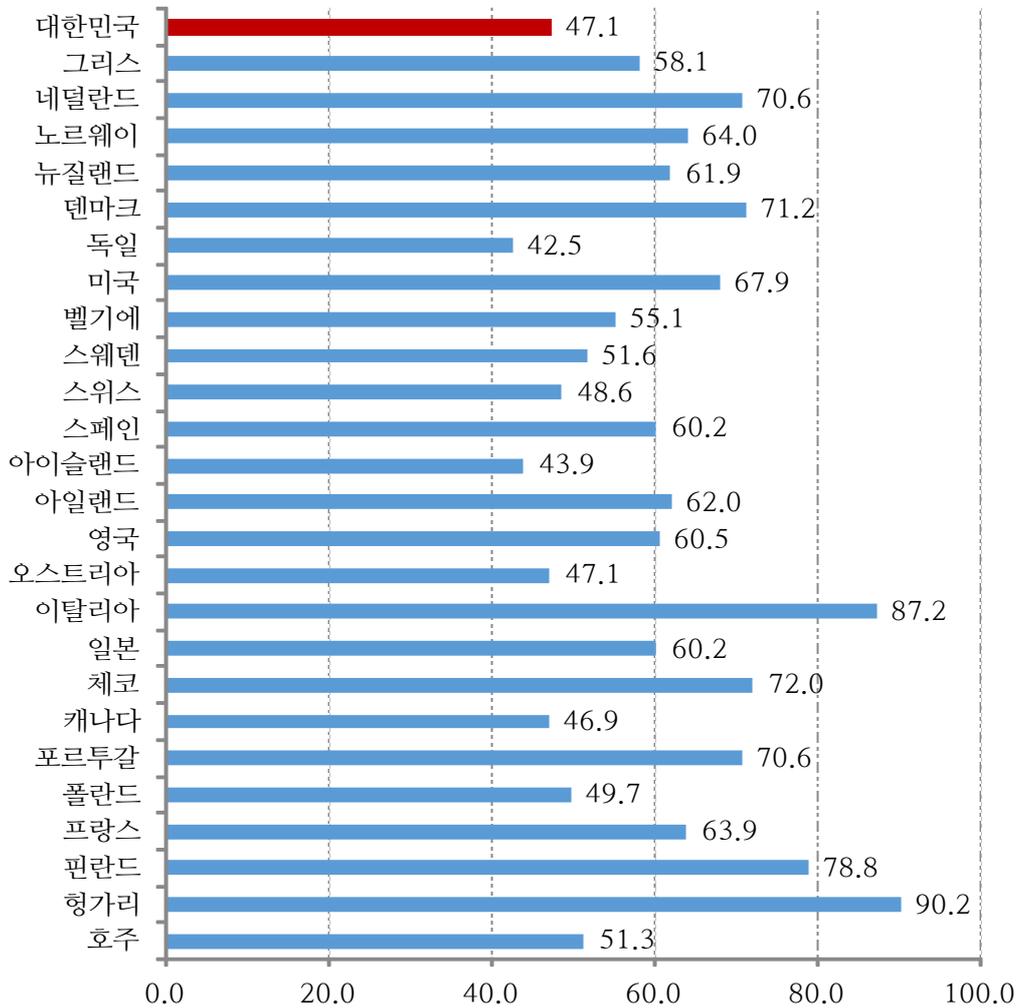
2. 부모관계_함께 대화하기

함께 대화하기 :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아동의 비율

-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대화하는 빈도에서는 OECD 국가 평균이 60.89%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47.1%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20. 함께 대화하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함께 대화하기	60.89	12.74	42.5	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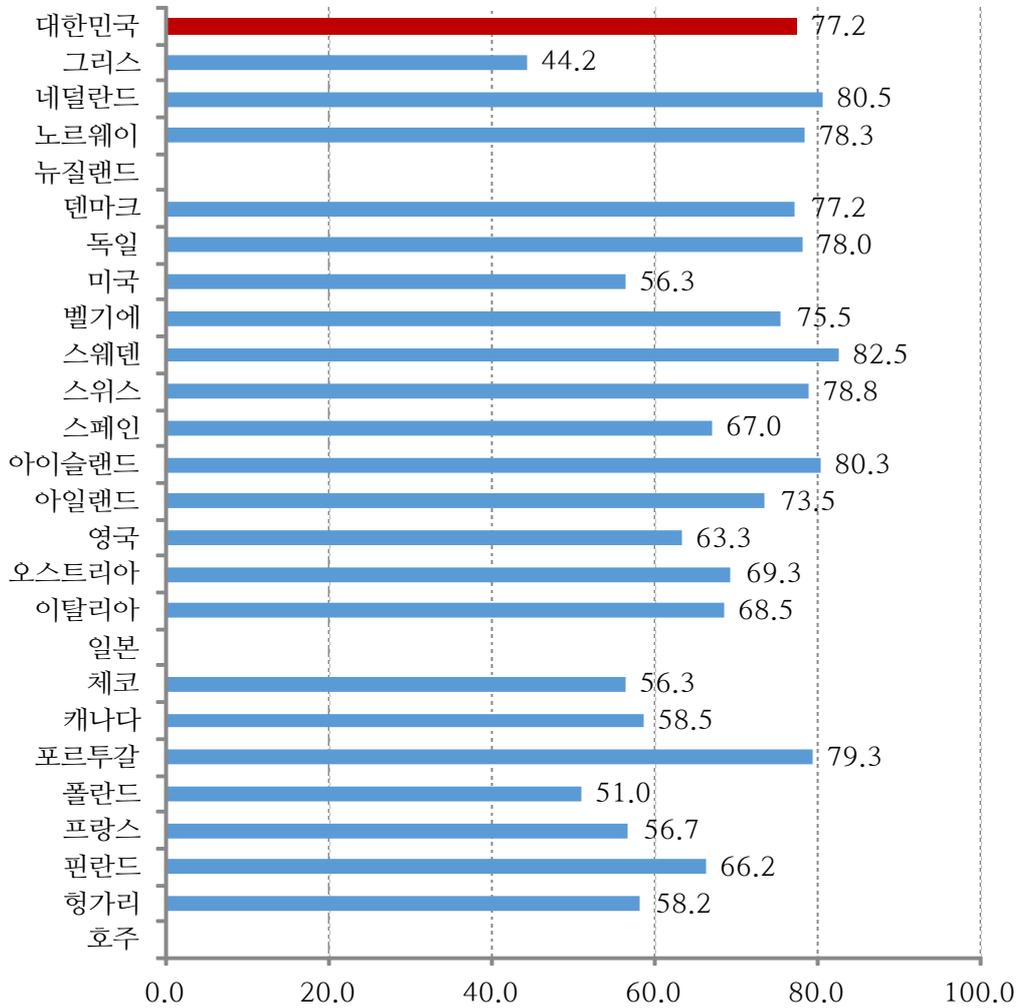
3.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

-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은 한국이 77.2%로 OECD 국가 평균 68.0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3-21. 친절한 급우관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친절한 급우관계	68.55	11.055	44.2	82.5

V. 행동과 생활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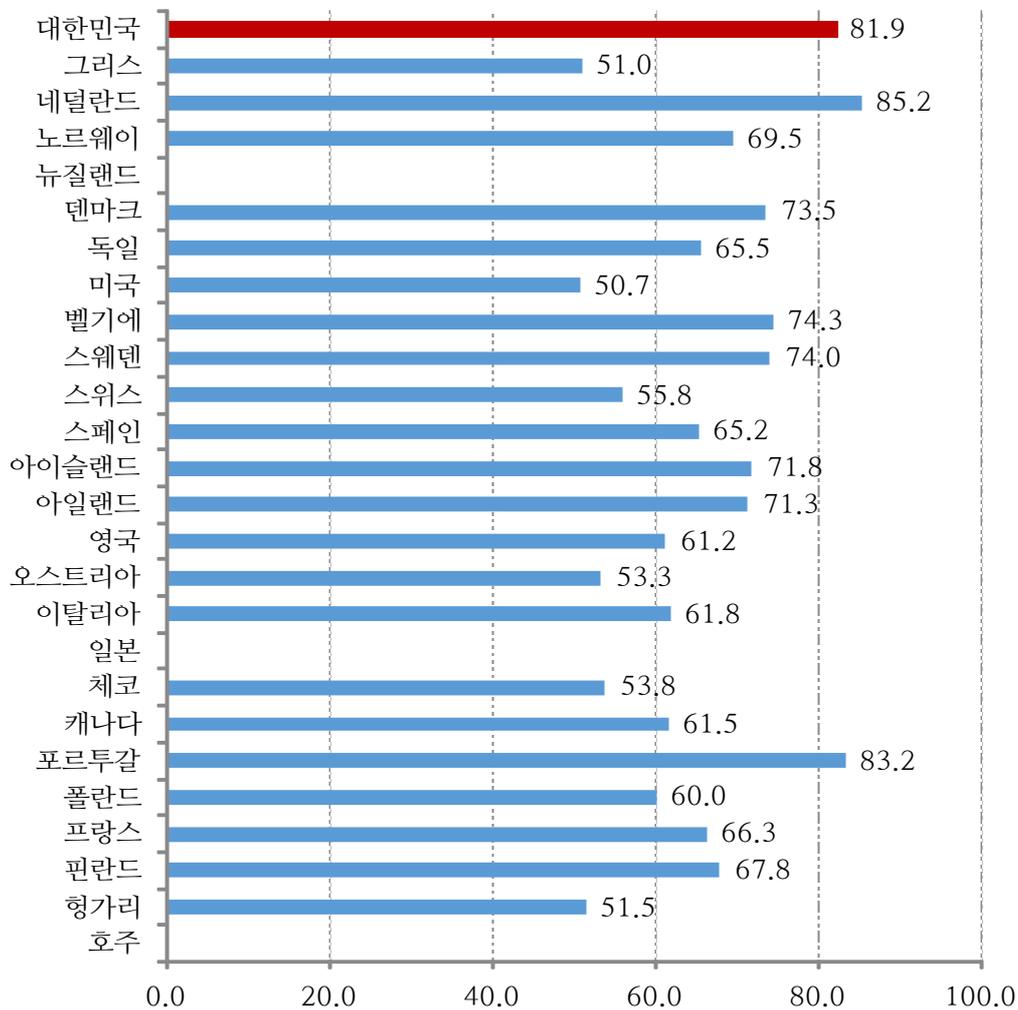
1. 건강행동_아침식사

아침식사 :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 11,13, 15세 어린이 비율

- 2014년 설문에서 측정된 등교 전 아침식사 비율은 한국이 81.9%로, OECD 국가 평균(65.66%)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22. 아침식사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아침식사	65.66	10.36	50.7	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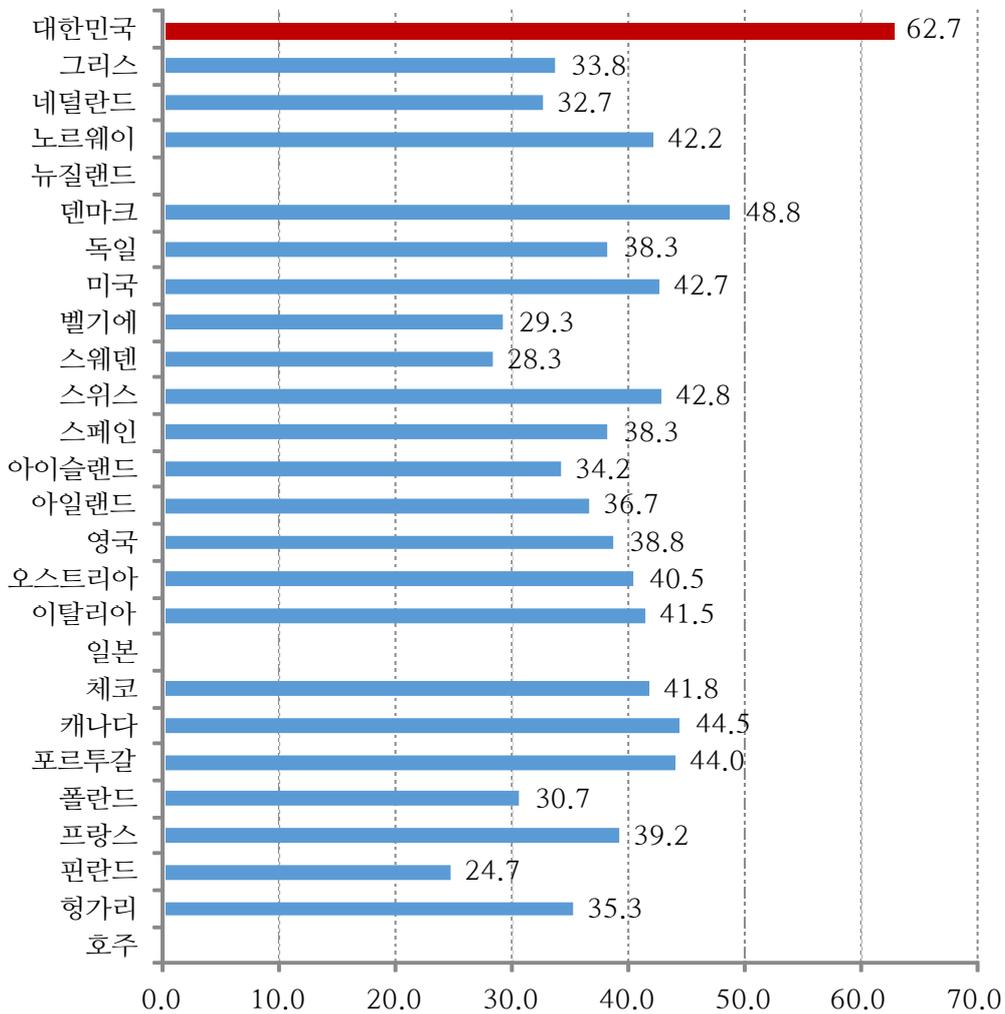
1. 건강행동_과일섭취

과일섭취 :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11, 13, 15세 학생의 비율

- 2014년 설문으로 측정한 과일섭취 비율은 한국이 62.7%로 OECD 국가 평균(38.77%)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3. 과일섭취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일섭취	38.77	7.857	24.7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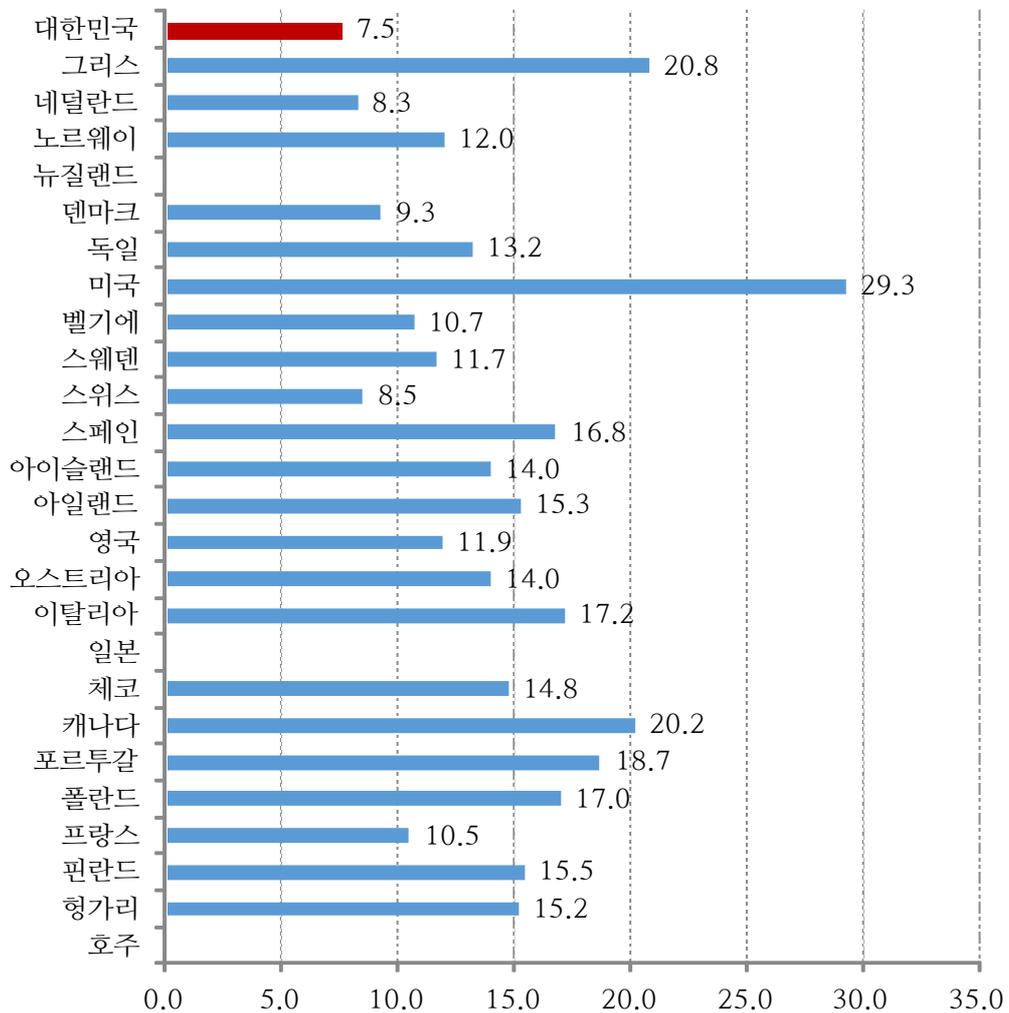
1. 건강행동_과체중

과체중 : 체질량지수(BMI)가 25이상인 11, 13, 15세 학생의 비율

-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 즉 과체중인 아이들의 비율이 한국은 7.5%로 OECD국가 평균(14.35%)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3-24. 과체중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체중	14.45	4.926	7.5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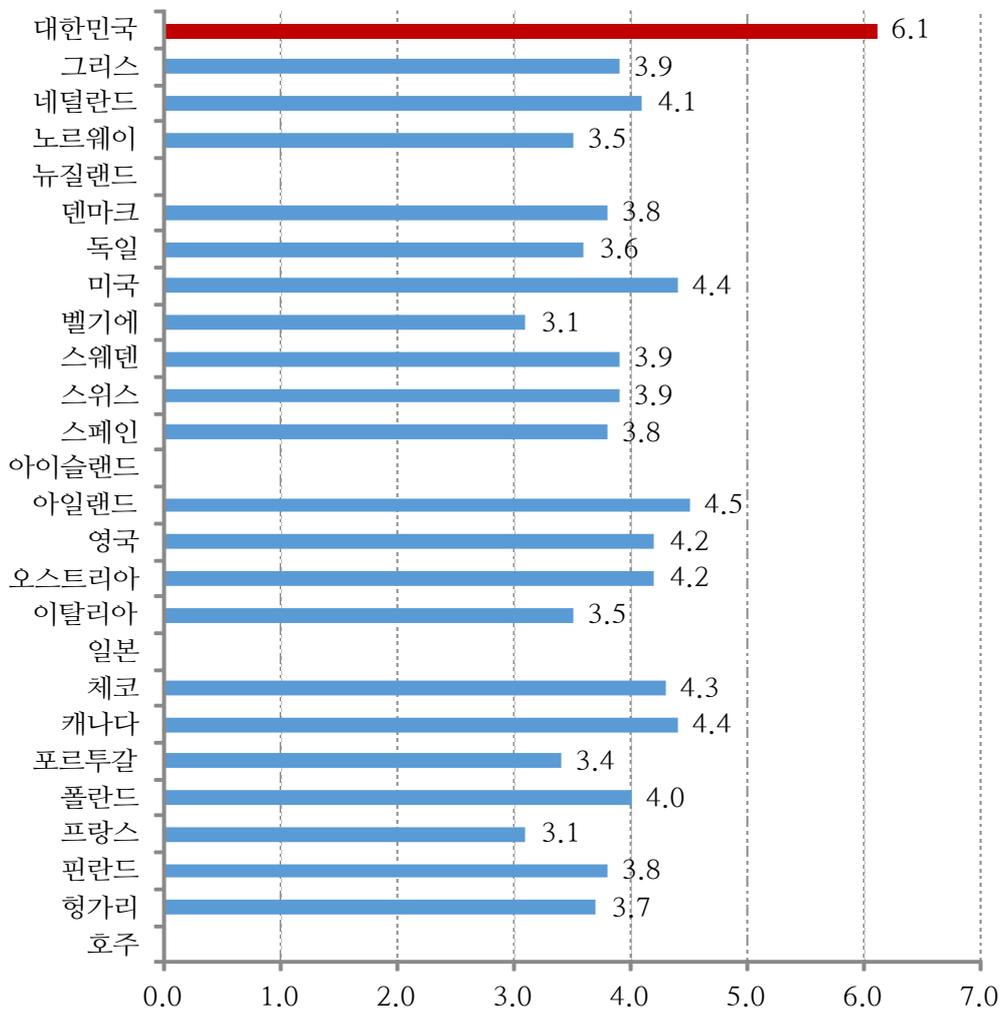
1. 건강행동_운동

운동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수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수의 경우 한국은 6.1일로 OECD국가 평균인 3.97일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3-25. 운동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운동	3.96	0.618	3.1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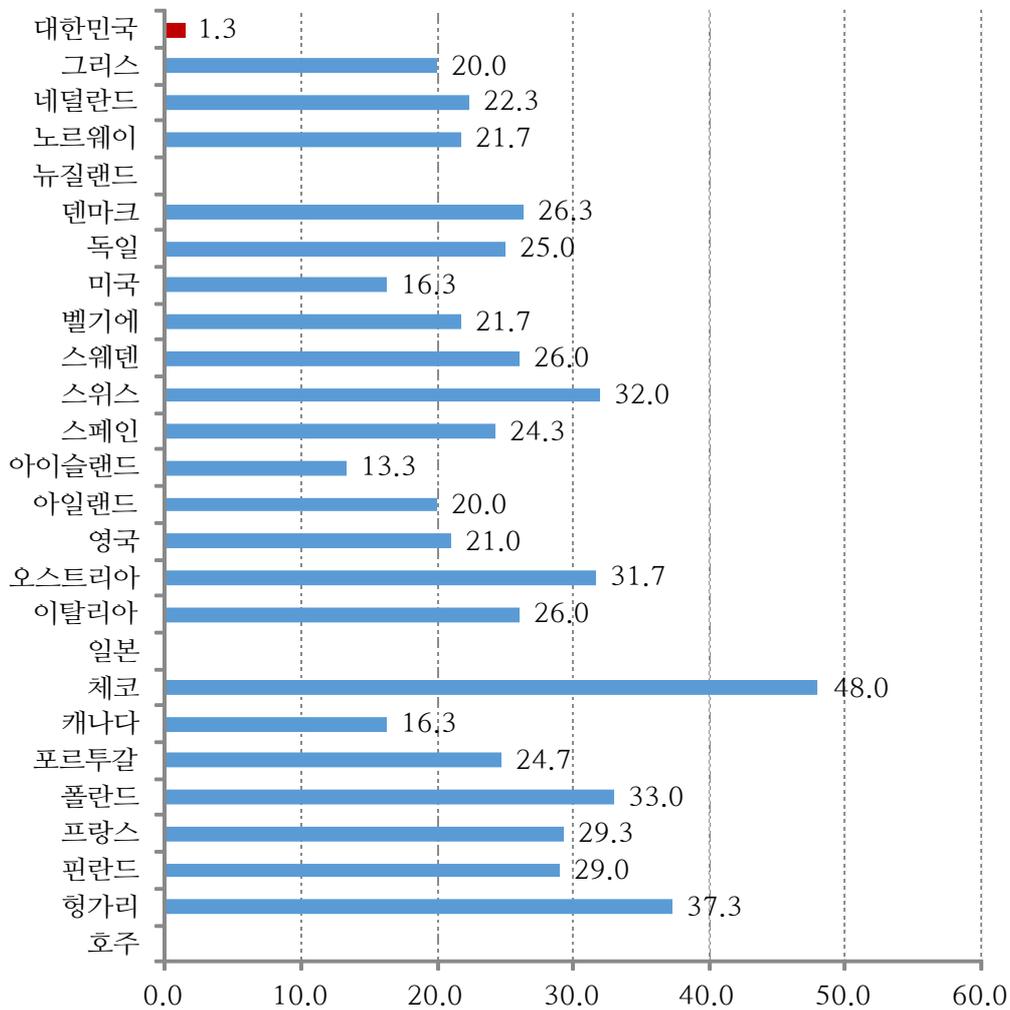
2. 위험행동_흡연

흡연 : 11, 13, 15세의 흡연 비율

- 한국 청소년의 흡연 비율은 1.3%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3-26. 흡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흡연	24.63	9.093	1.3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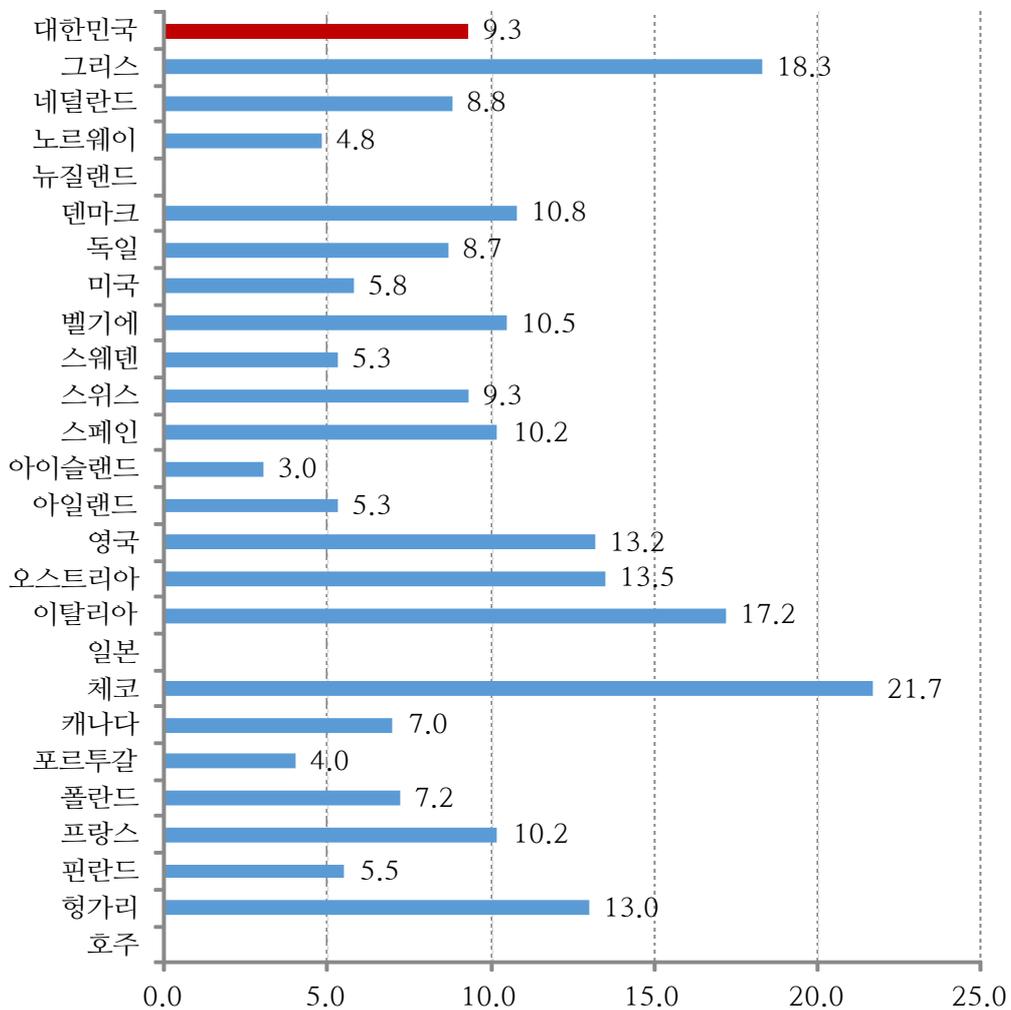
2. 위험행동_음주

음주 : 11, 13, 15세의 음주 비율

- 한국 청소년 음주경험 비율은 9.3%로 OECD 국가 평균(9.67%)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그림3-27. 음주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음주	9.67	4.78	3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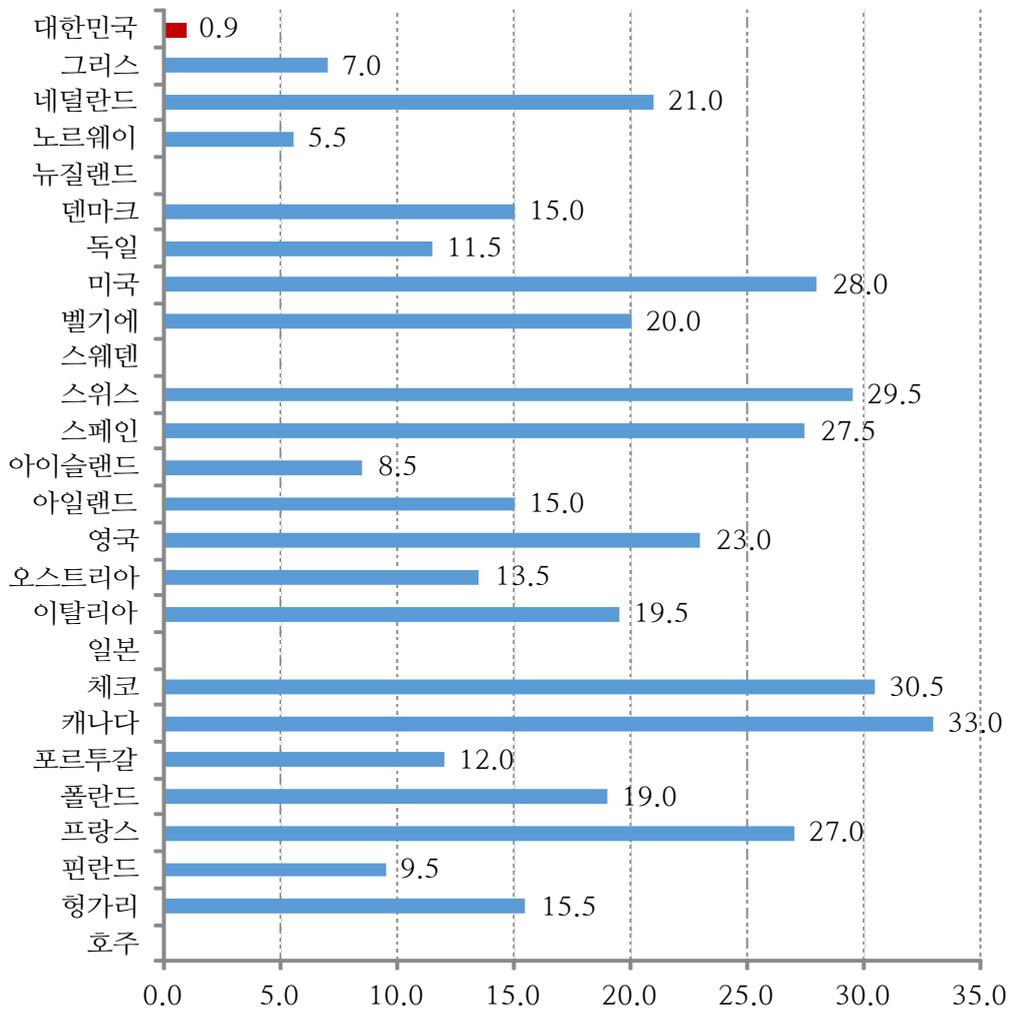
2. 위험행동_마약

마약 : 11, 13, 15세의 마약 사용 비율

- 한국 청소년의 마약복용 비율은 0.9%로 OECD 국가 평균(17.81%)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3-28. 마약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마약	17.81	8.945	0.9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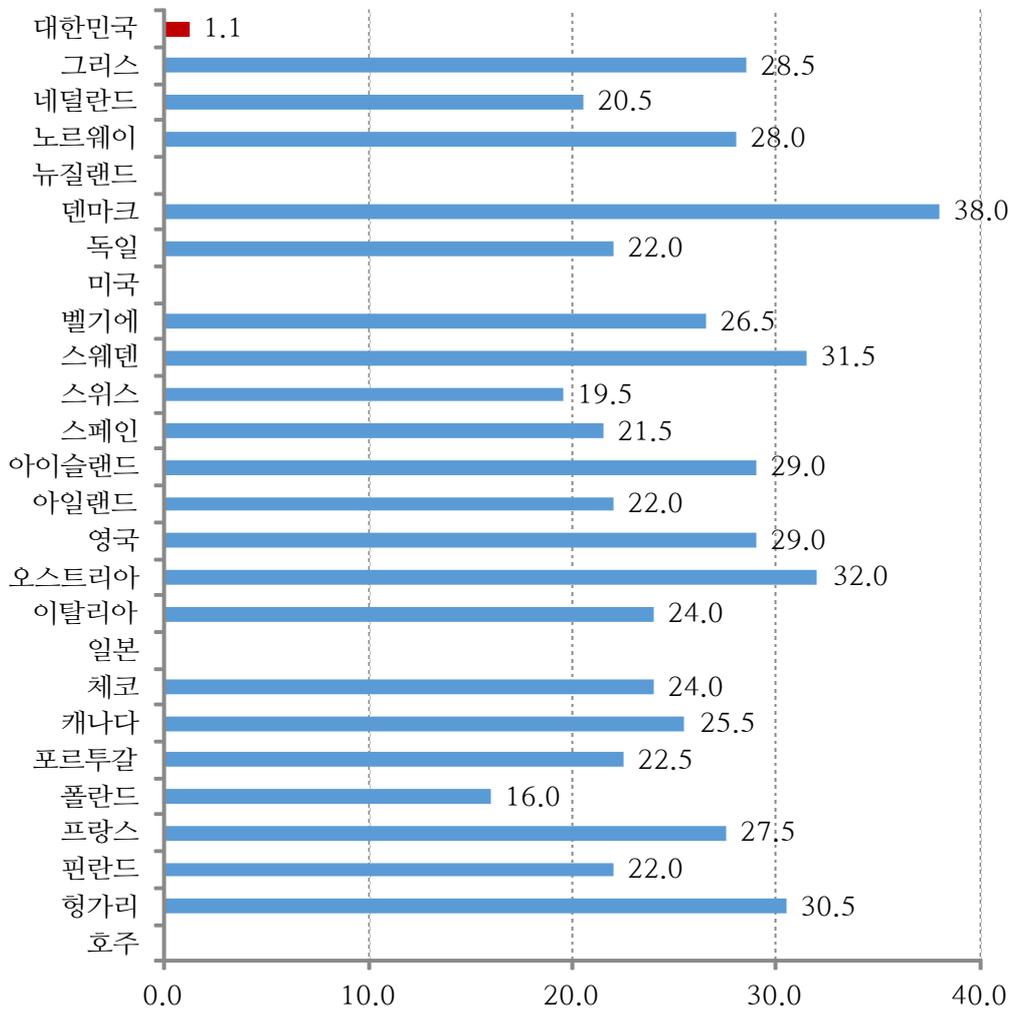
2. 위험행동_성관계

성관계 : 11, 13, 15세의 성관계 경험 비율

- 2015 설문을 통해 측정한 한국 10대의 성관계 경험 비율은 1.1%로, OECD 국가 평균 (24.77%)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29. 성관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성관계	24.60	7.235	1.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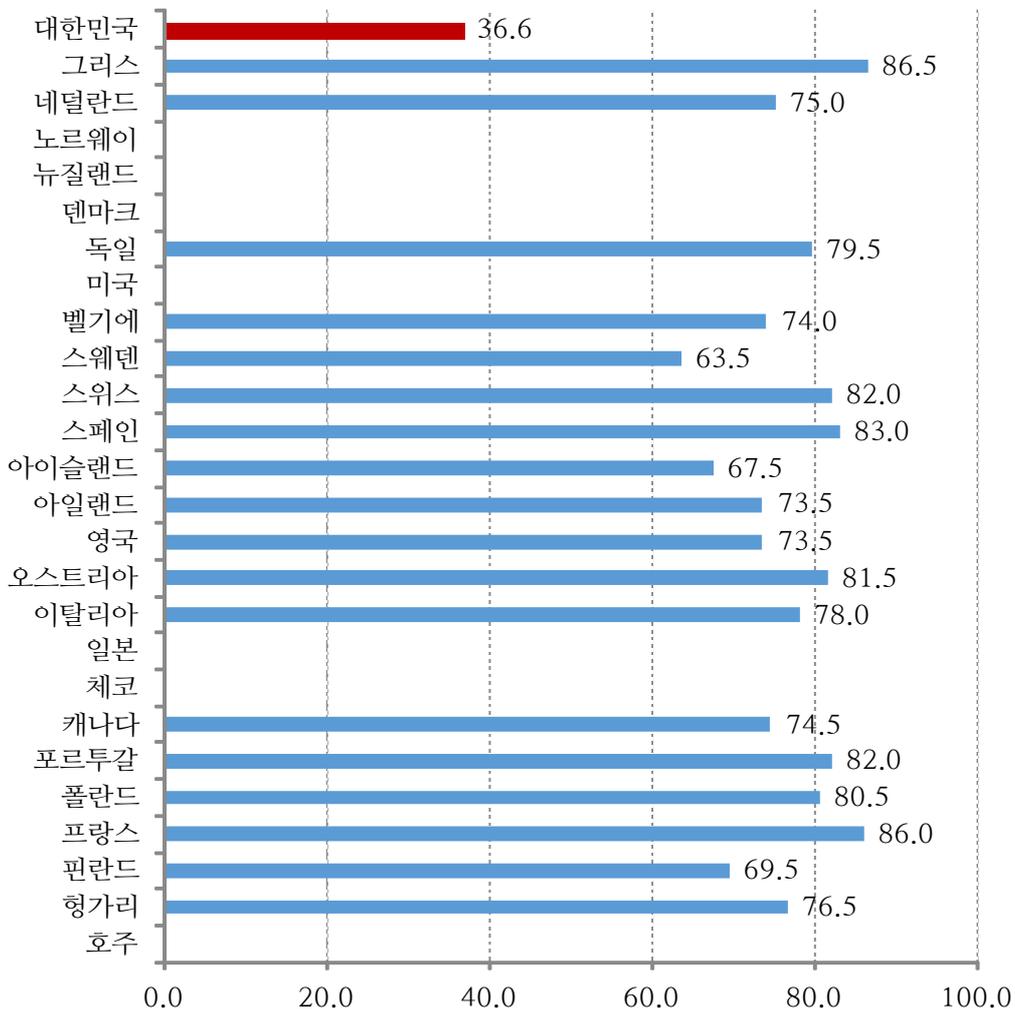
2. 위험행동_콘돔사용

콘돔사용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15세의 학생 비율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36.6%로 OECD 국가 평균(74.9%)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0. 콘돔사용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콘돔 사용	74.90	11.101	36.6	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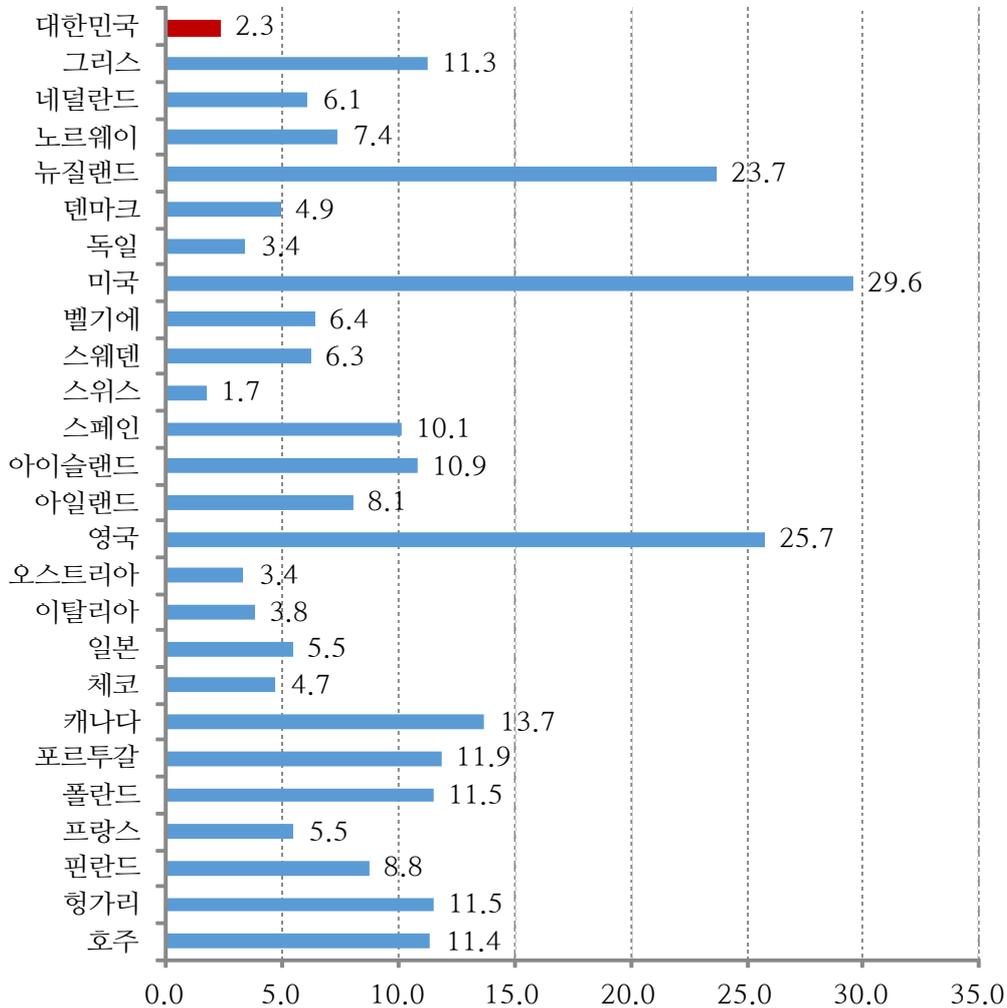
2. 위험행동_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 : 15-19세 여학생의 출산율

- 한국 10대의 출산비율은 2.3%로 OECD 국가 평균(11.0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3-31. 임신과 출산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임신과 출산	9.6	7.050	1.7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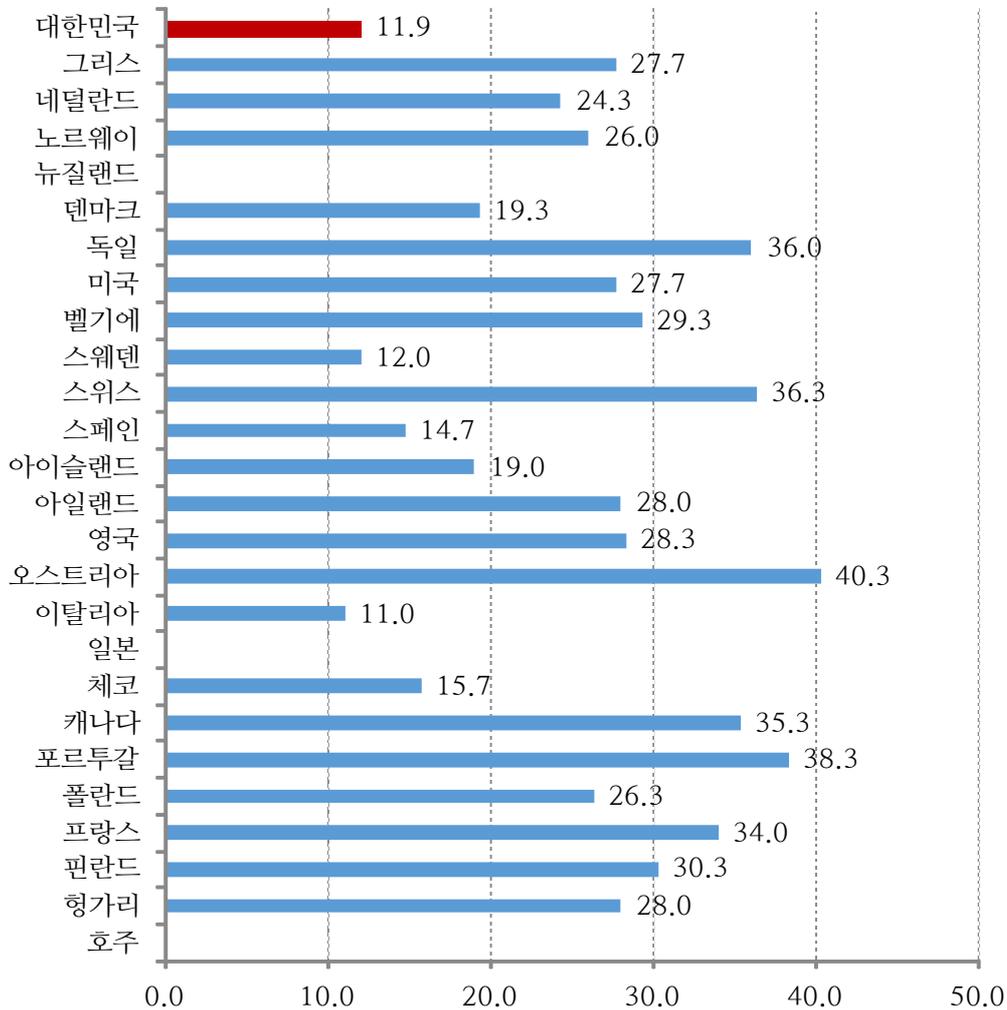
2. 위험행동_싸움

싸움 : : 지난 12개월 동안 폭력행위에 관련된 아동의 비율

- 지난 12개월간 싸움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11.9%로 OECD 국가 평균 (26.0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2. 싸움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싸움	26.07	8.820	11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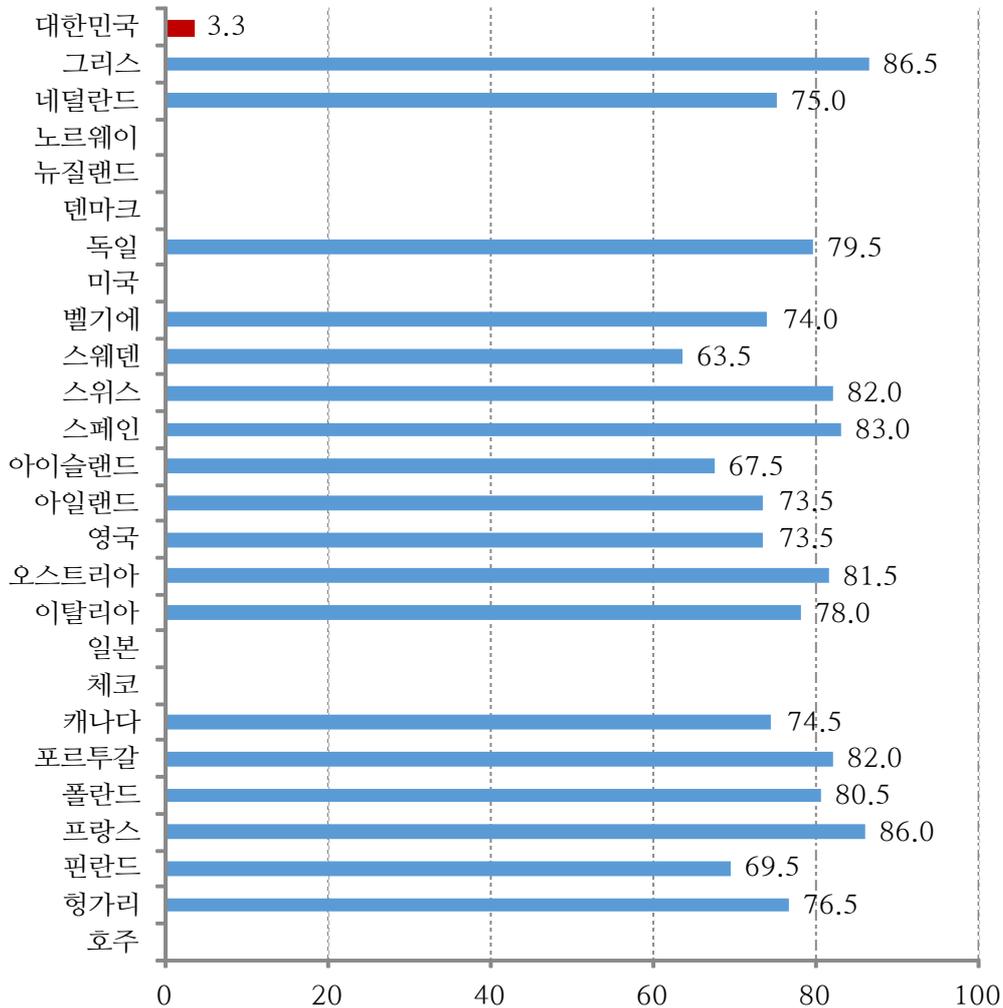
2. 위험행동_왕따경험

왕따 : 지난 12개월 동안 다른 학생에게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 지난 12개월간 왕따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3.3%로, OECD 국가 평균(73.15%)보다 크게 낮았다.

그림3-33. 왕따 경험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왕따	73.15	17.981	3.3	86.5

Ⅵ. 주관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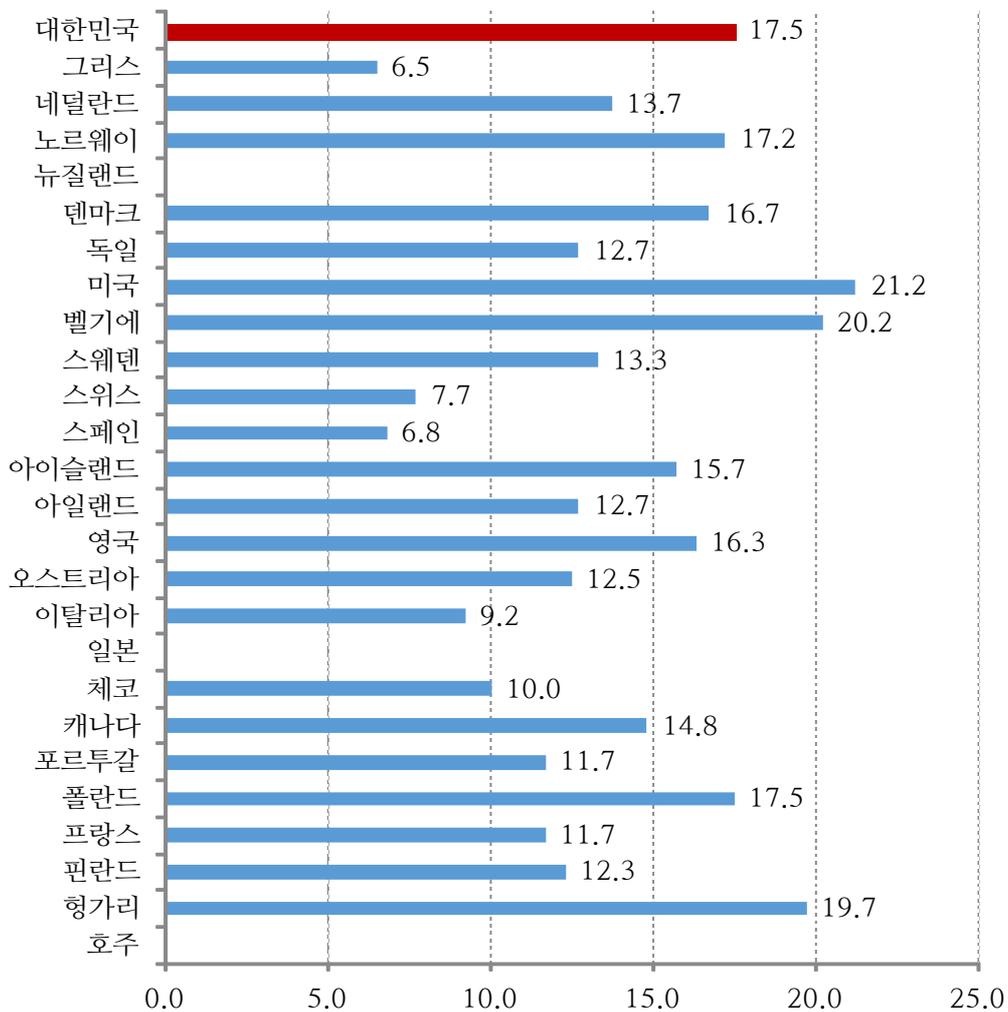
1. 건강

주관적 건강 :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

-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 비율은 한국이 17.5%로 OECD 국가 평균(1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34. 주관적 건강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주관적 건강	13.81	4.152	6.5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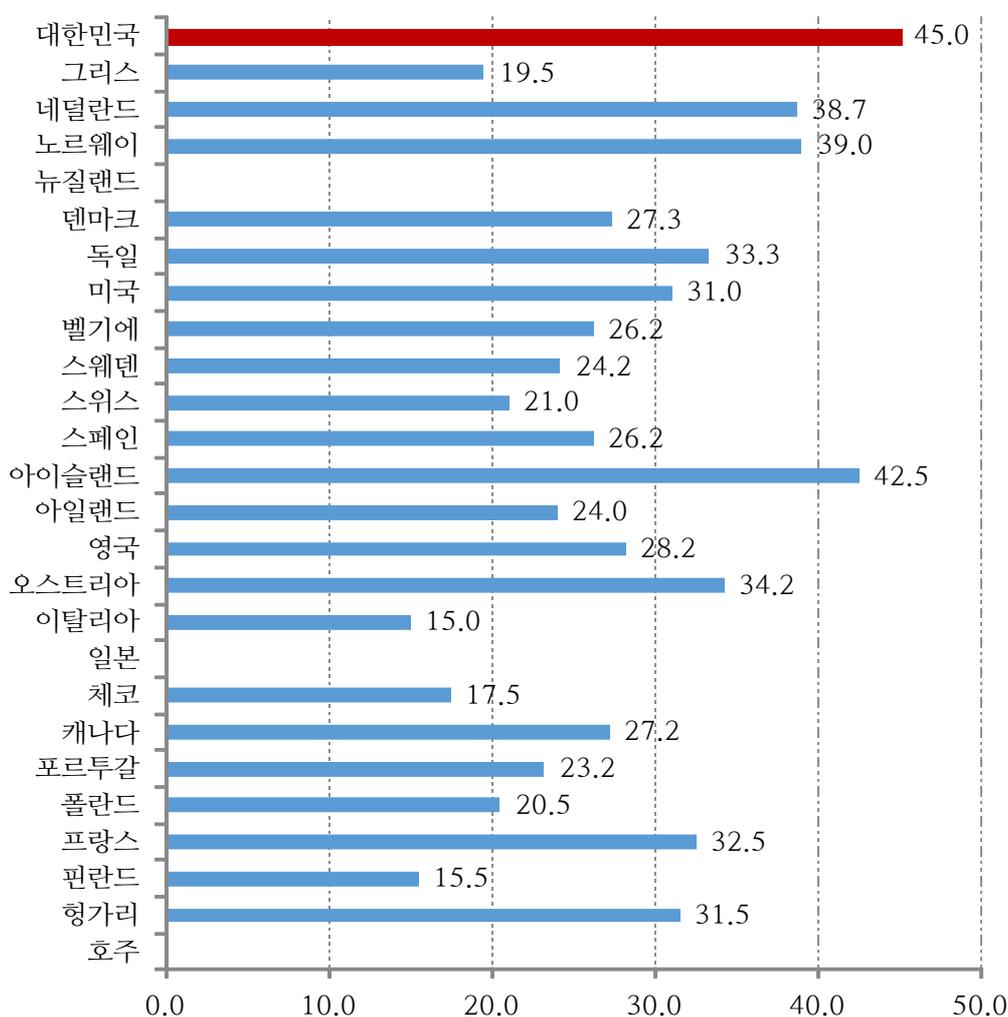
2.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고 응답한 비율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이 45.0%로 OECD 국가 평균(27.96%)보다 높았다.

그림3-35. 학교생활 만족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교 만족	27.96	8.304	1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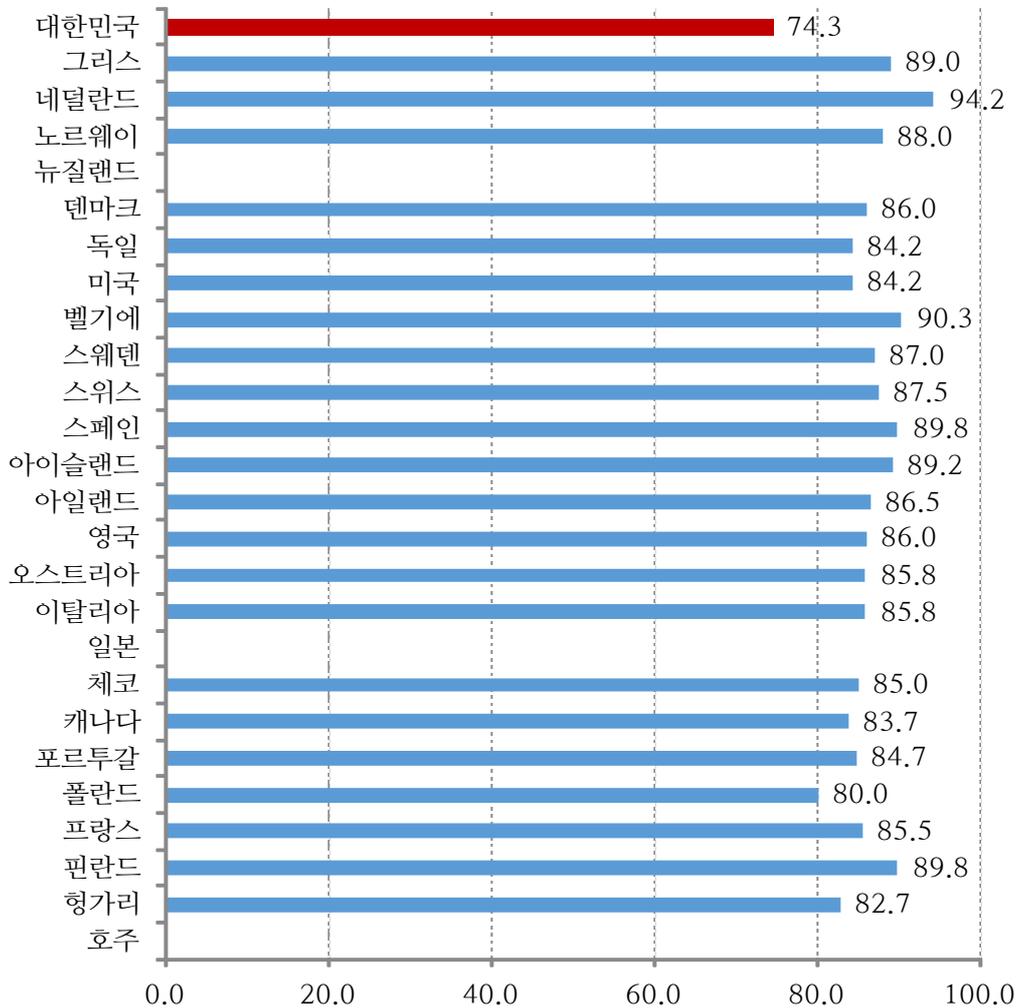
3. 개인 행복 삶의 만족

삶의 만족 척도 :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만족한다' 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한국은 74.3%로, OECD 국가 평균(86.05%)보다 크게 낮았다.

그림3-36. 삶의 만족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삶의 만족	86.05	3.930	74.3	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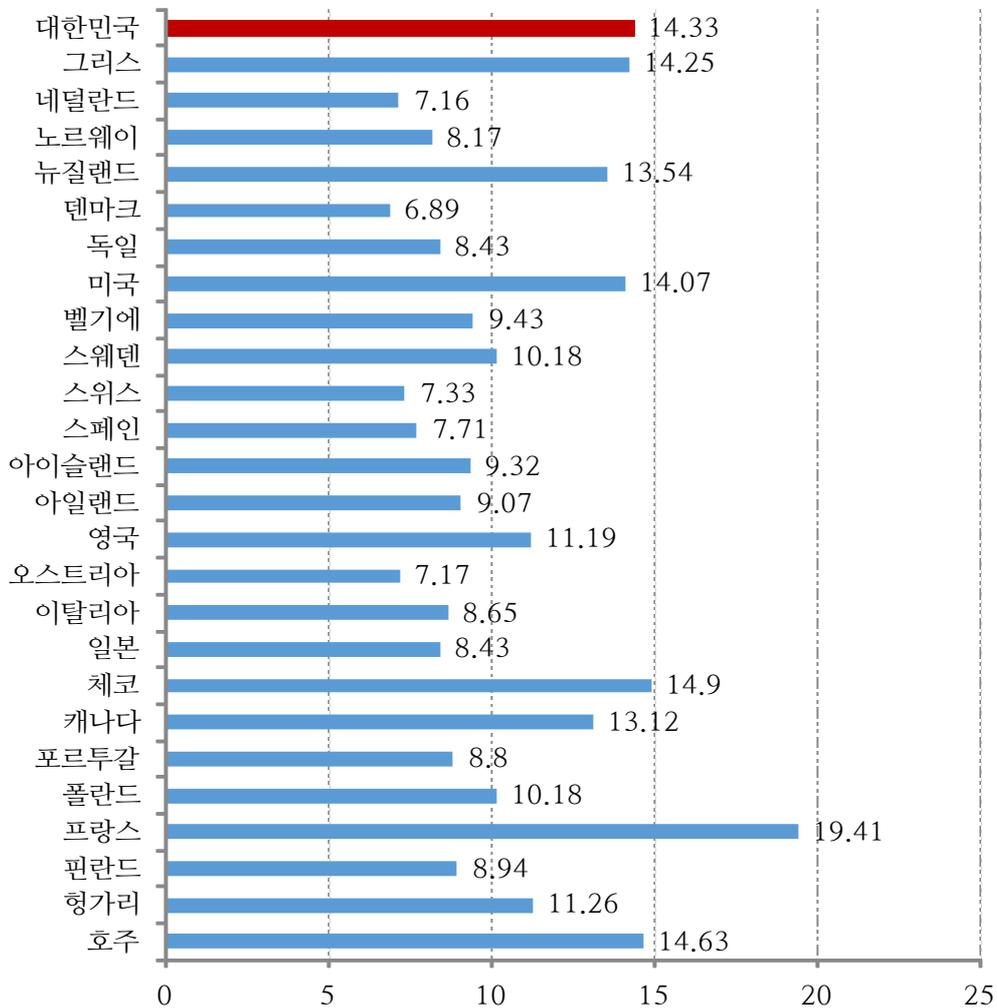
3. 개인 행복_소속감

소속감 : 소속감을 ‘별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

-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이 14.33%로, OECD 국가 평균(10.6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3-37. 소속감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소속감	10.64	3.191	6.89	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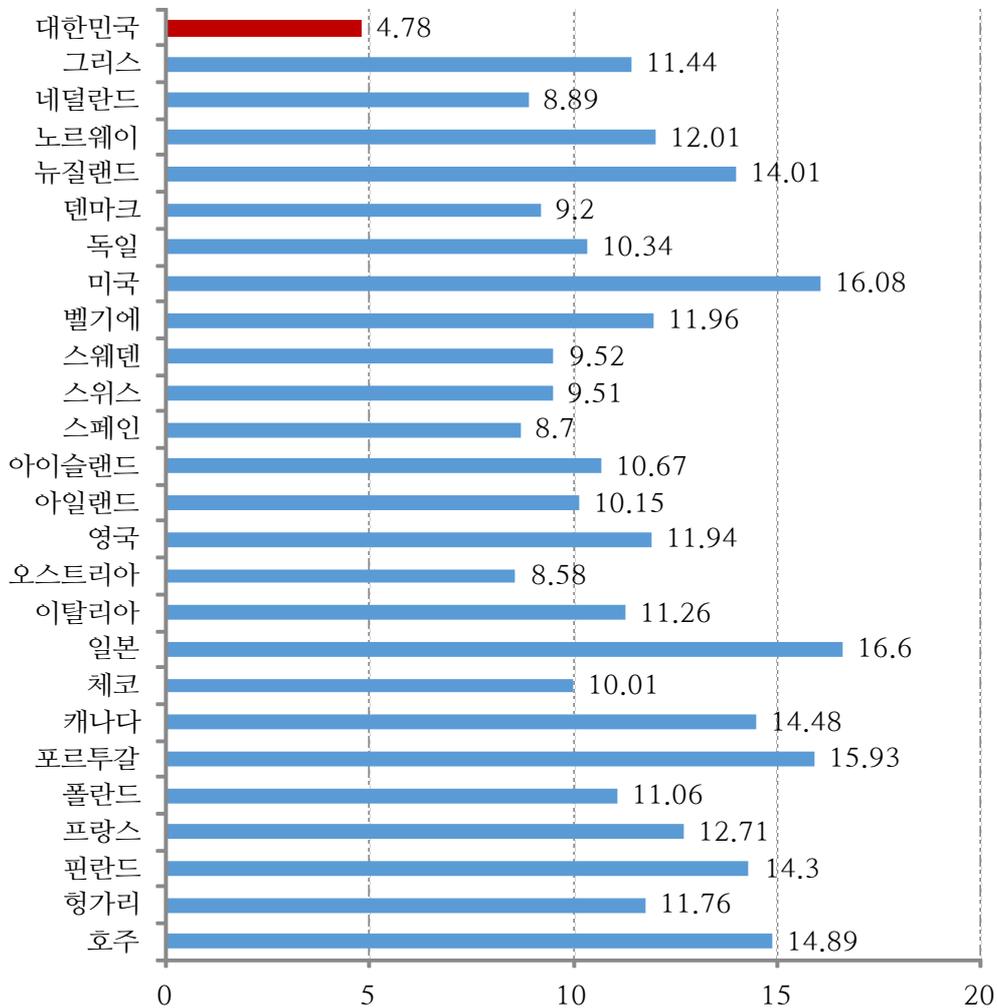
3. 개인 행복_어울림

어울림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별로',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의 경우 한국은 4.78%로 OECD 국가 평균(11.56%)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3-38. 어울림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어울림	11.56	2.764	4.78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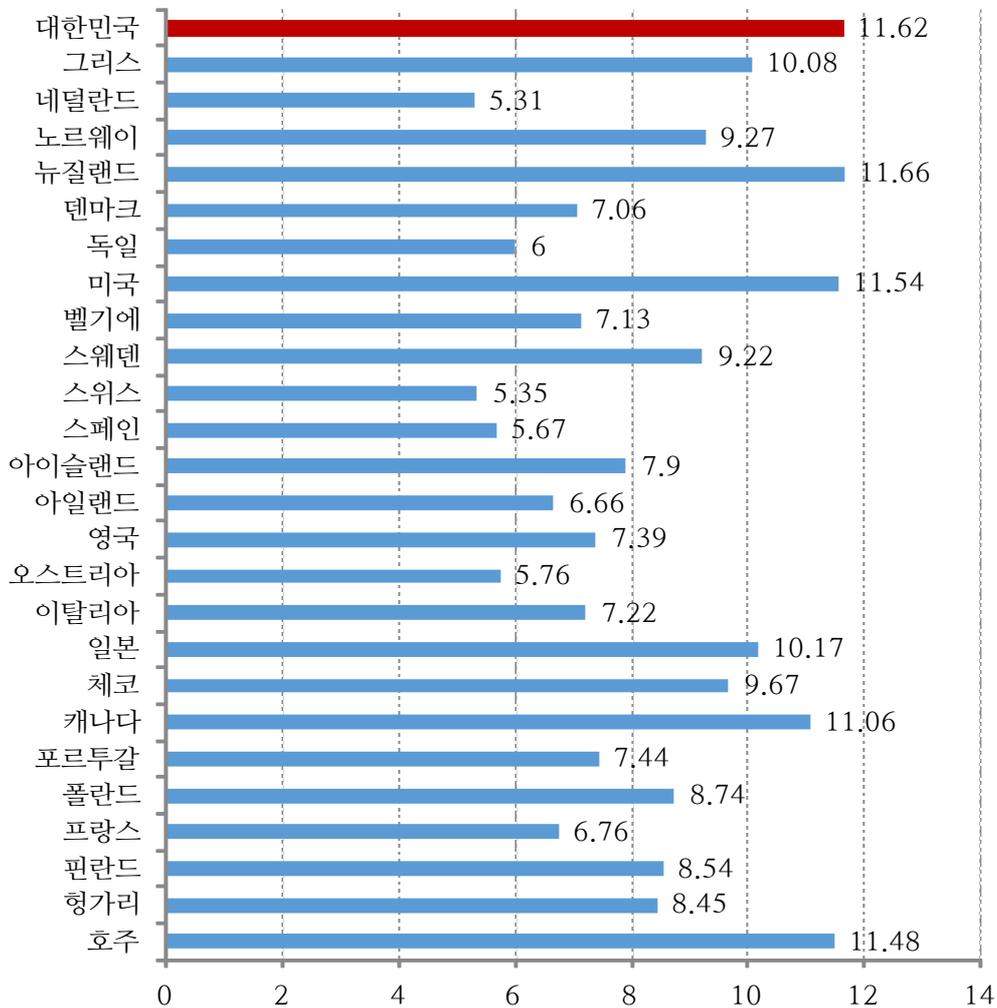
3. 개인 행복_외로움

외로움 : : ‘다소’, 혹은 ‘매우’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의 경우 한국은 11.62%로, OECD 평균(8.35%)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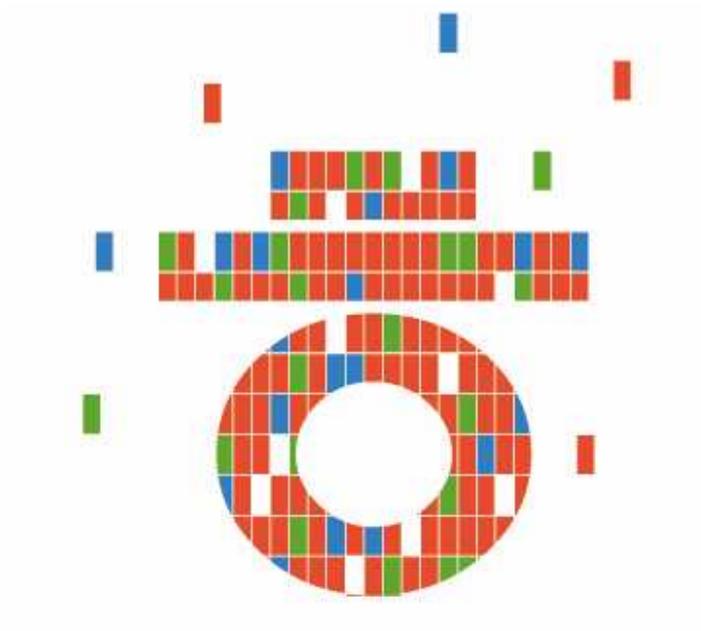
그림3-39. 외로움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외로움	8.35	2.081	5.31	11.66

제4장 수면시간



“어린이를 결코 억박지르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가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억박지를 때마다 뺏어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들어갑니다. 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난 인물이 못되고 남에게 끌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I. 수면시간과 행복감

1. 교급별 수면시간

- 초·중고 학생의 수면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초등학교가 하루 평균 8.5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은 7.5시간, 고등학생은 6.1시간이었다. 한편, 주말 수면시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루 평균 각각 9.4시간, 9.3시간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등학생은 8.6시간이었다.

그림4-1. 초·중고 학생의 평일 수면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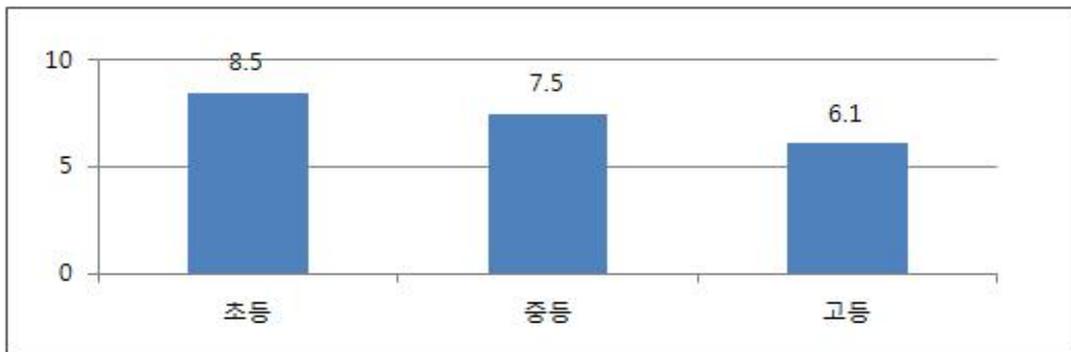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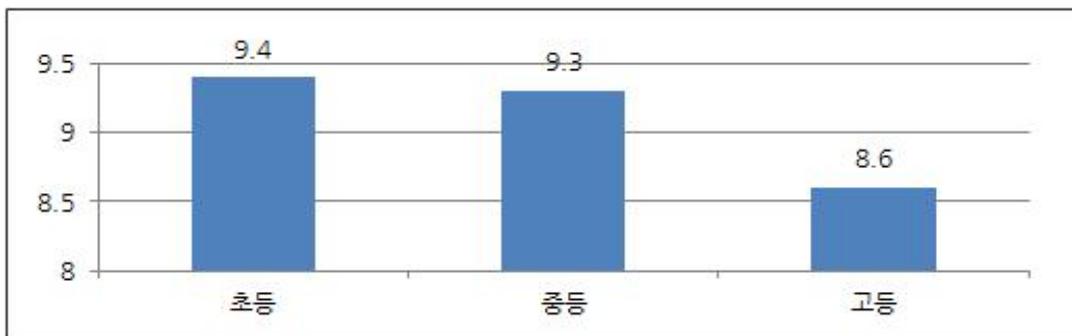


그림4-2. 초·중고 학생의 주말 수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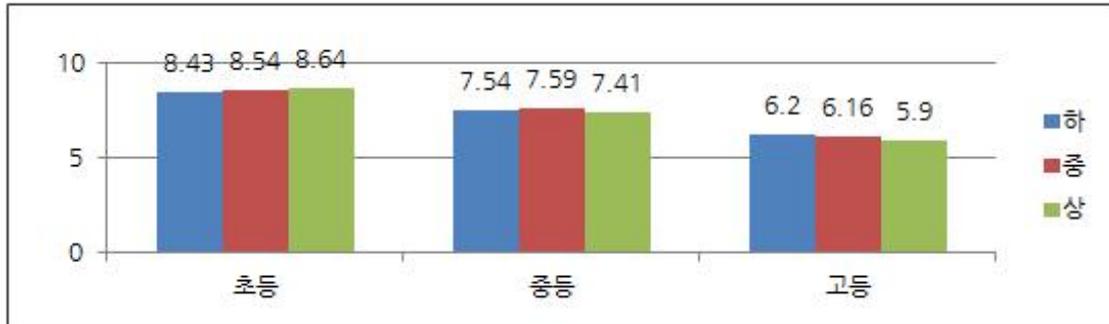
(단위: 시간)



- 또한, 수면시간이 학교성적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학교성적을 상, 중, 하 세 범주로 구분했을 때 초등학교의 경우만 성적과 수면시간이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의 수면시간은 8.43시간으로 가장 적은 한편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은 8.64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학교성적이 중간인 집단의 수면시간이 7.5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은 7.41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고등학생은 학교성적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감소했다. 학교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의 수면시간이 6.2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은 5.9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학교성적 범주에 따른 수면시간이 교급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수면시간이 학교성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4-3. 학교성적에 따른 평일 수면시간

(하루 평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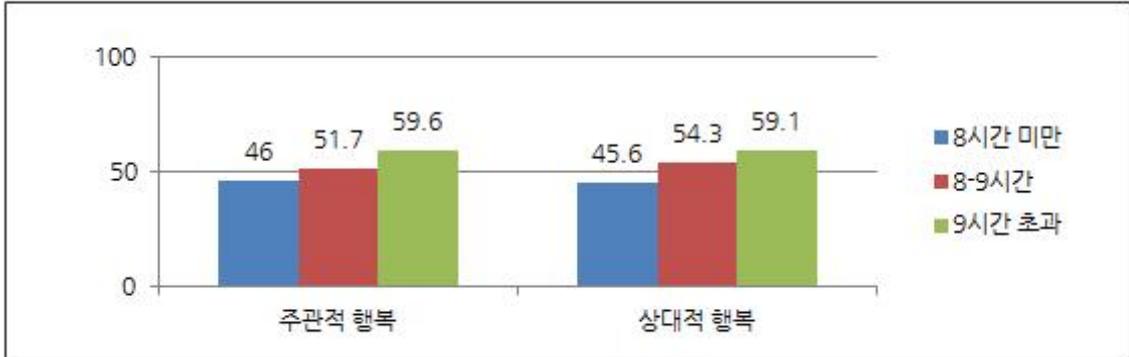


2. 수면시간과 주관 및 상대적 행복

- 이 절에서는 수면시간에 따라 행복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수면시간을 교급별로 평균 미만 시간대, 평균 시간대, 평균 초과 시간대로 구분해 주관 및 상대적 행복감을 분석했다.
- 먼저, 주관적 행복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주관적 행복감은 교급에 관계없이 수면시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평소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수면시간이 9시간을 초과할 때 59.6%로 가장 높았으며, 8-9시간 미만일 때 51.7%, 수면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 46%로 가장 낮았다. 중학생도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일 때 23%에서 8시간을 초과할 때는 37.6%로 증가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일 때 12.8%, 6-7시간 미만 14.1%, 7시간 이상일 때 18%로,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수면시간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 한편, 상대적 행복감은 "주변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에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상대적 행복감 역시 교급에 관계없이 수면시간대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이 비율은 수면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 45.6%에서 9시간을 초과할 때 59.1%로 증가했다. 중학생의 경우 주변 친구에 비해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7시간 미만일 때 24.4%에서 8시간을 초과할 때 39.8%로 증가했다. 고등학생도 이 비율이 6시간 미만일 때 16.9%로 가장 낮았고, 7시간 이상일 때 24.1%로 가장 높았다.

그림4-4. 초등학생: 수면시간과 주관 및 상대적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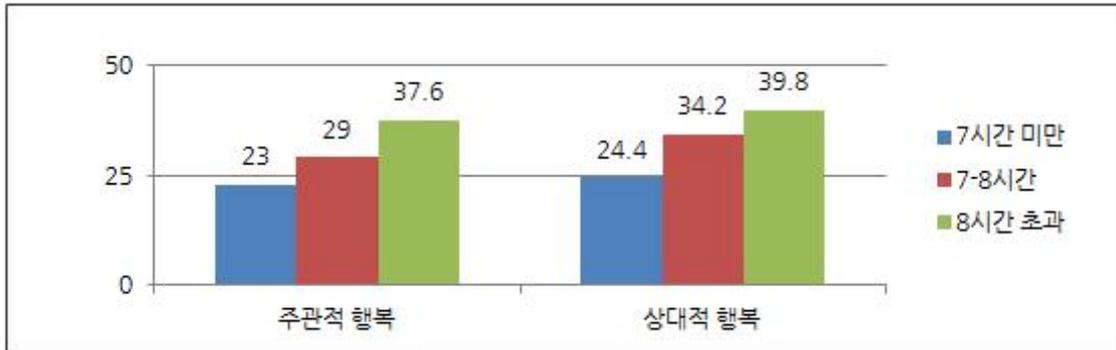
(단위: %)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4-5. 중학생: 수면시간과 주관 및 상대적 행복감

(단위: %)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4-6. 고등학생: 수면시간과 주관 및 상대적 행복감

(단위: %)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

3. 수면시간과 삶 만족

- 다음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수면시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교급에 관계없이 수면시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수면시간에 따라 최대 약 20% 차이를 보였다.

그림4-7. 초등학생: 수면시간과 삶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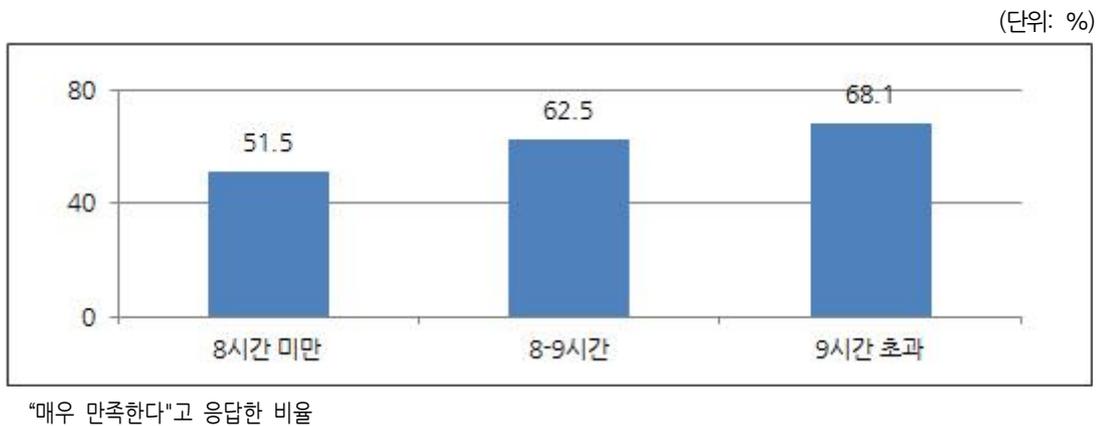


그림4-8. 중학생: 수면시간과 삶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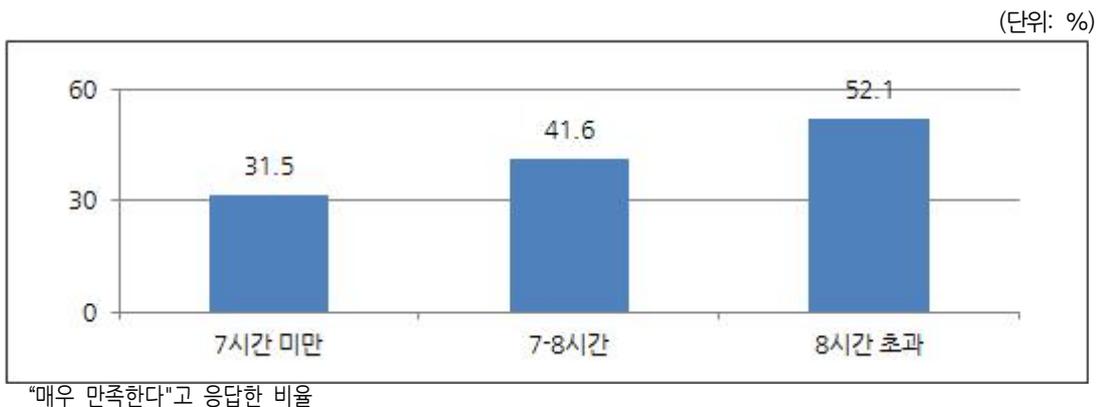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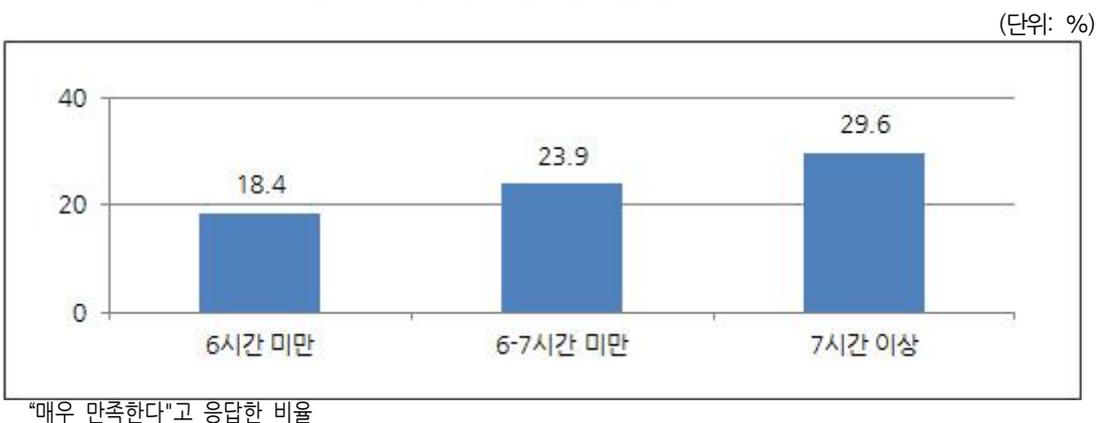


그림4-9. 고등학생: 수면시간과 삶 만족도



4. 수면시간과 건강인식

-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 수면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이 비율 역시 수면시간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수면시간에 따른 건강인식 차이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4-10. 초등학생: 수면시간과 건강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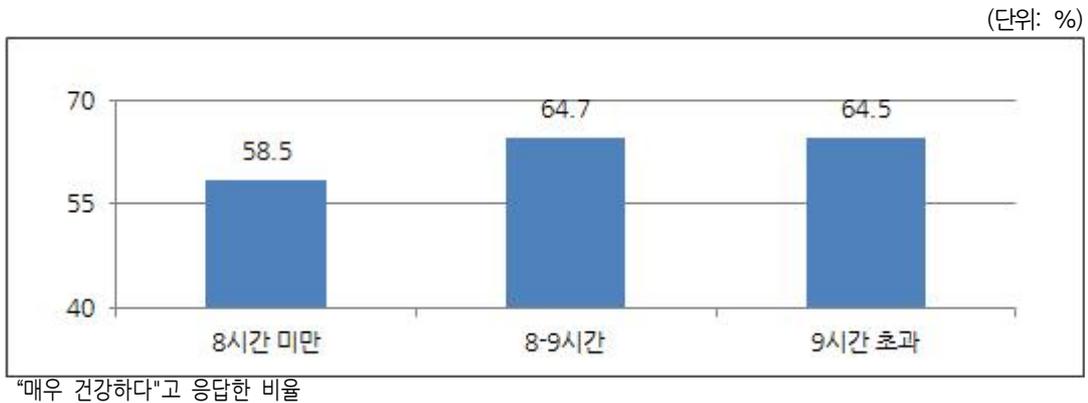


그림4-11. 중학생: 수면시간과 건강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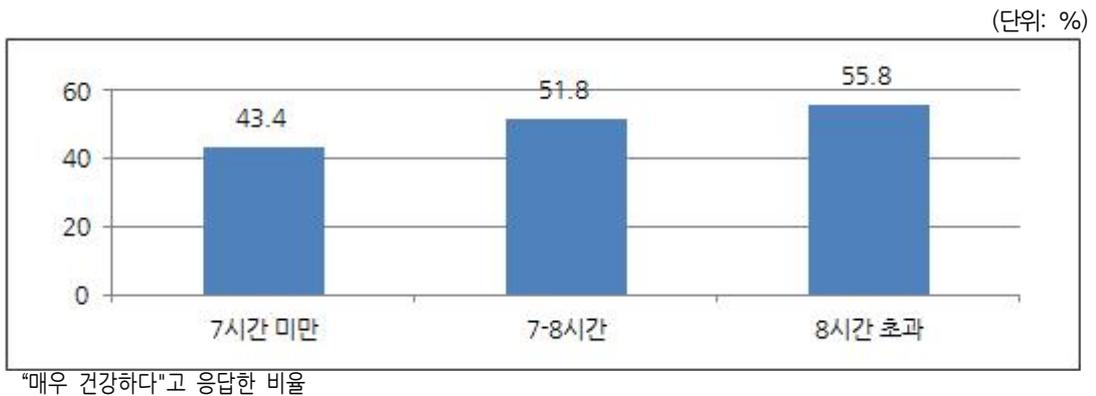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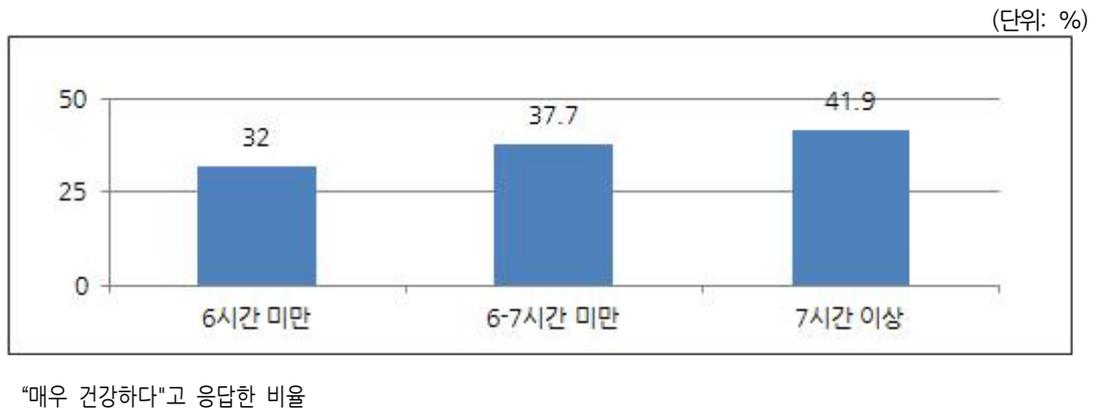


그림4-12. 고등학생: 수면시간과 건강인식



II.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1.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적응

- 이 절에서는 초 중 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 수면시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학교생활 적응을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이 비율은 교급에 관계없이 수면시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면시간대에 따라 최대 약 9-15%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답한 비율은 수면시간이 9시간을 초과할 때 54.8%로 가장 높았으며, 8-9시간 49.8%, 8시간 미만일 때는 40.3%로 가장 낮았다.

그림4-13. 초등학생: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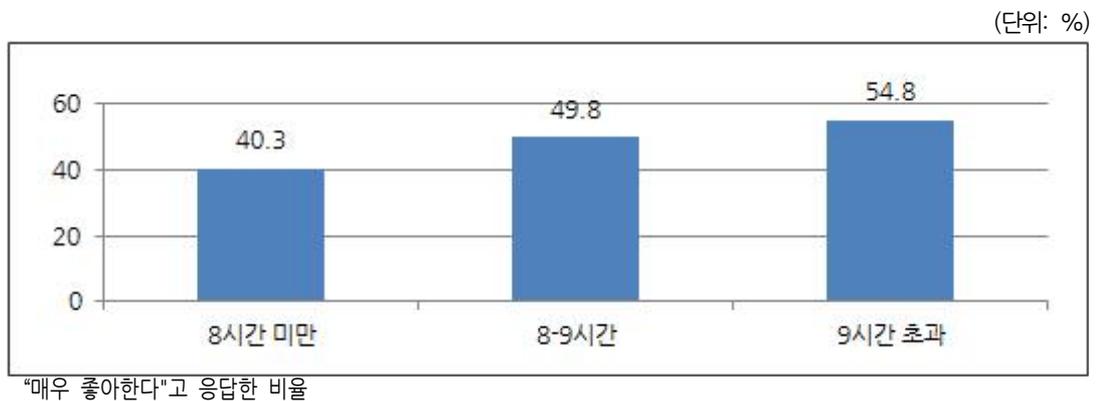


그림4-14. 중학생: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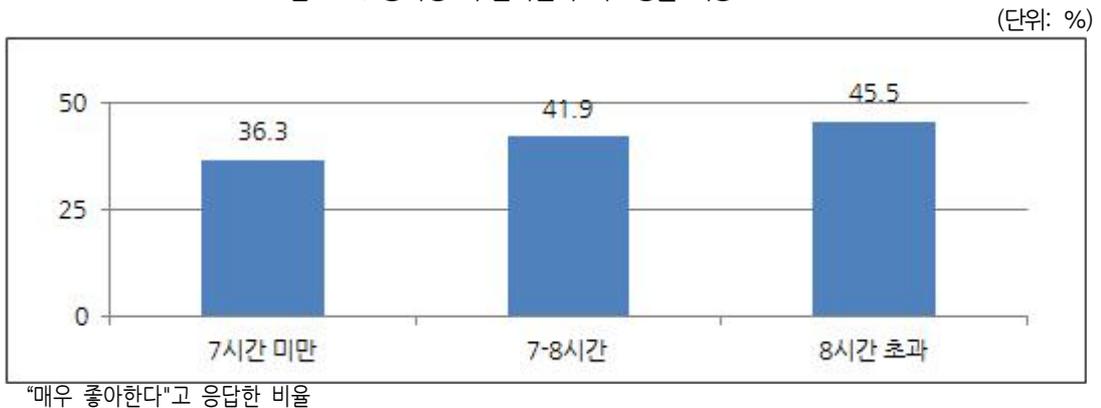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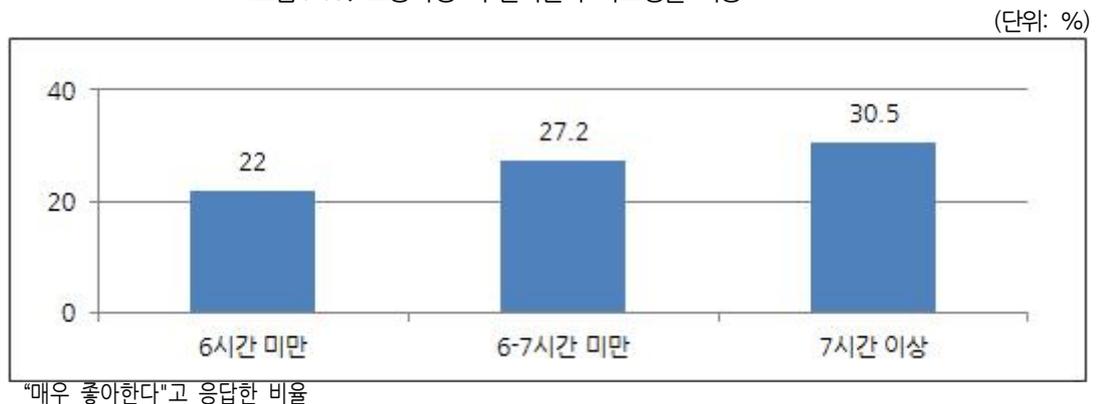


그림4-15. 고등학생: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적응



2.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스트레스

- 학교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도 수면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초 중 고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스트레스는 수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숙제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수면시간대에 따라 최대 약 8-10%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숙제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수면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 14.8%에서 9시간 초과할 때 5.8%로 감소했다

그림4-16. 초등학생: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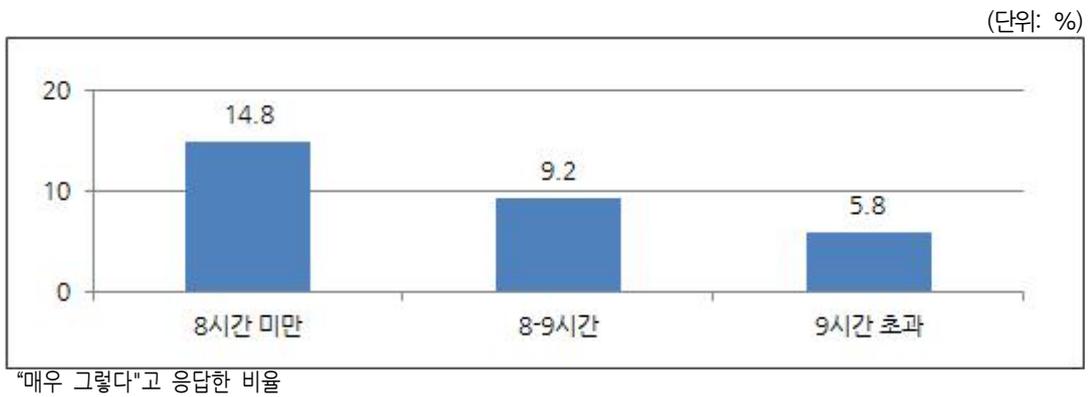


그림4-17. 중학생: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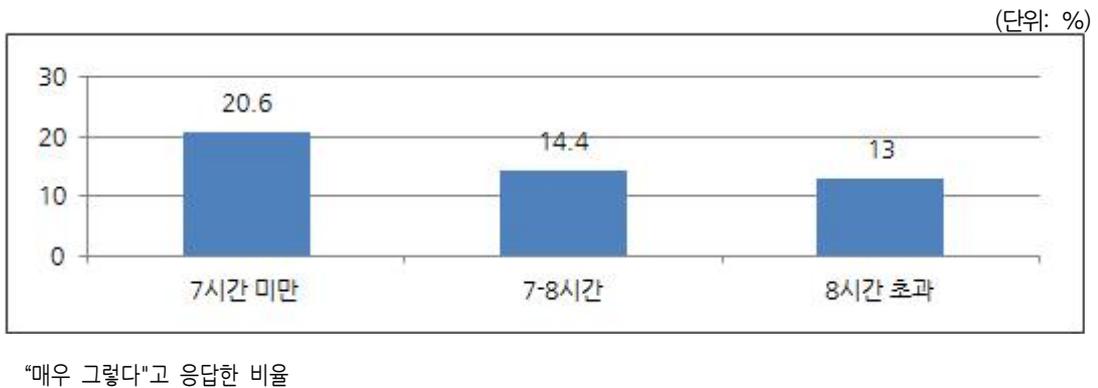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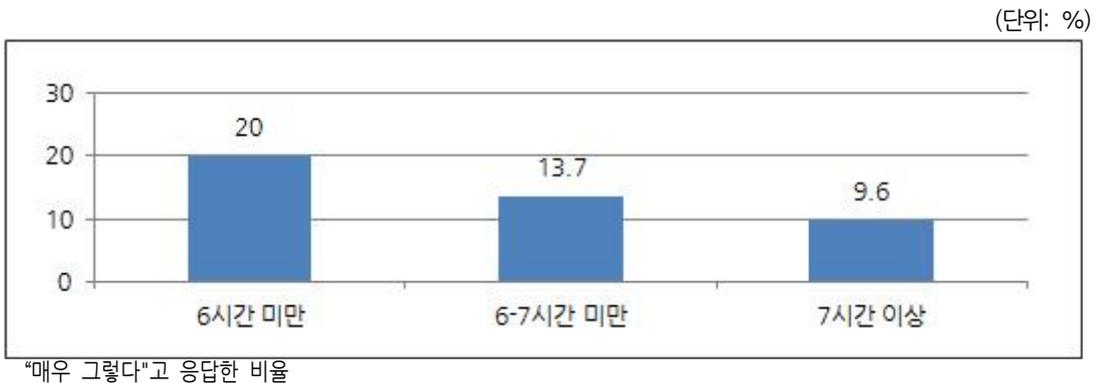


그림4-18. 고등학생: 수면시간과 학교생활 스트레스



Ⅲ. 수면시간과 가출·자살충동

1. 수면시간과 가출충동

- 가출충동을 경험한 비율도 수면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교급에 관계없이, 수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출충동이 감소했다. 수면시간에 따른 가출충동 차이는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교와 중학생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4-19. 초등학교: 가출충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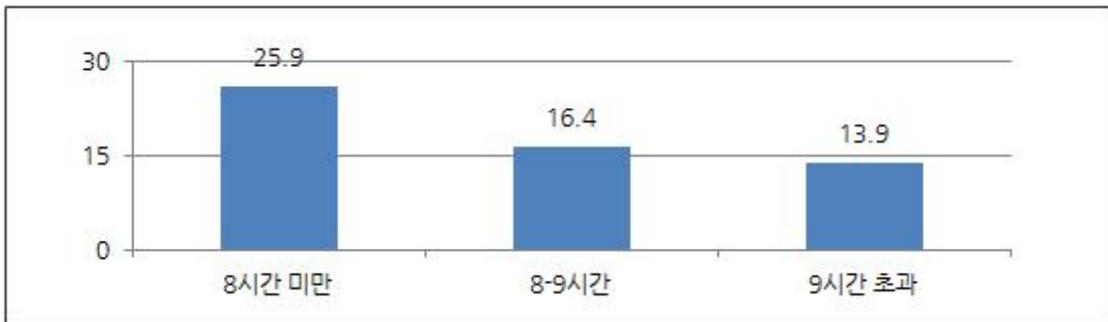


그림4-20. 중학생: 가출충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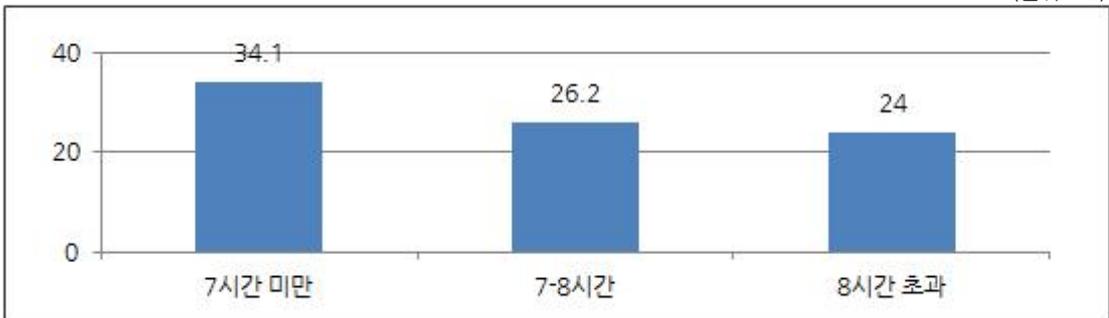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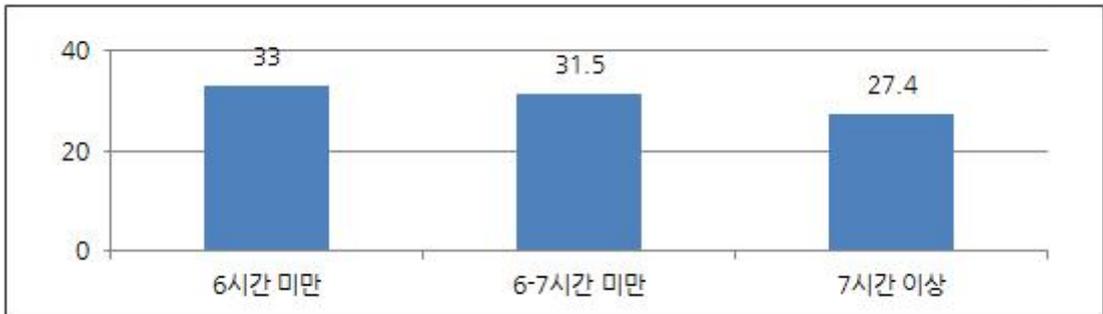


그림4-21. 고등학생: 가출충동

(단위: %)



2. 수면시간과 자살충동

-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도 수면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교급에 관계없이, 수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충동이 대체로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수면시간이 9시간을 초과할 때 자살충동이 가장 낮았으며, 중학생은 수면시간이 7-8시간일 때, 고등학생은 7시간 이상일 때 자살충동이 낮았다.

그림4-22. 초등학교: 자살충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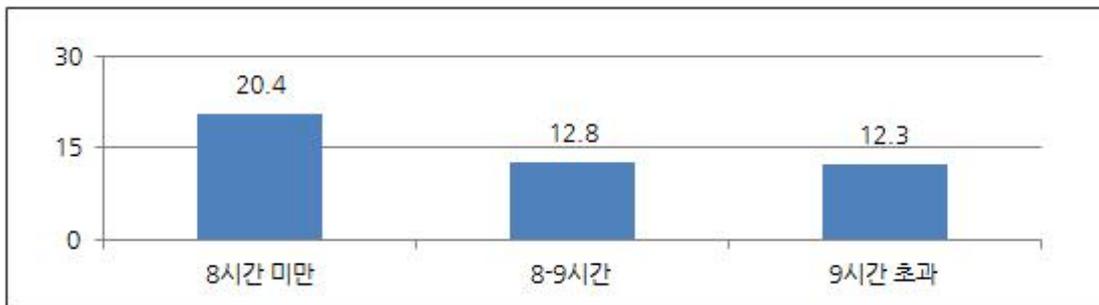


그림4-23. 중학생: 자살충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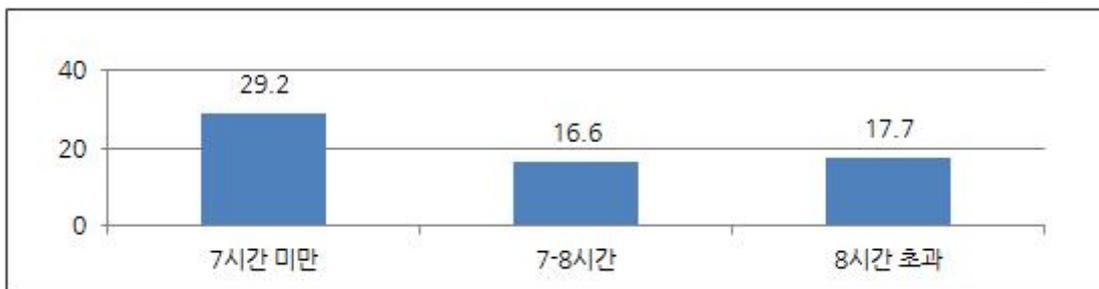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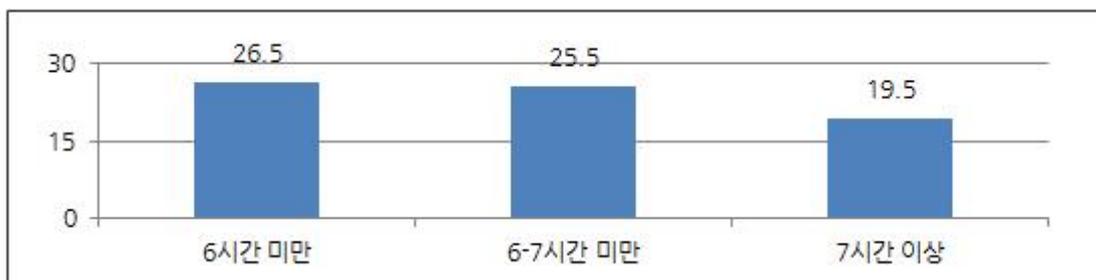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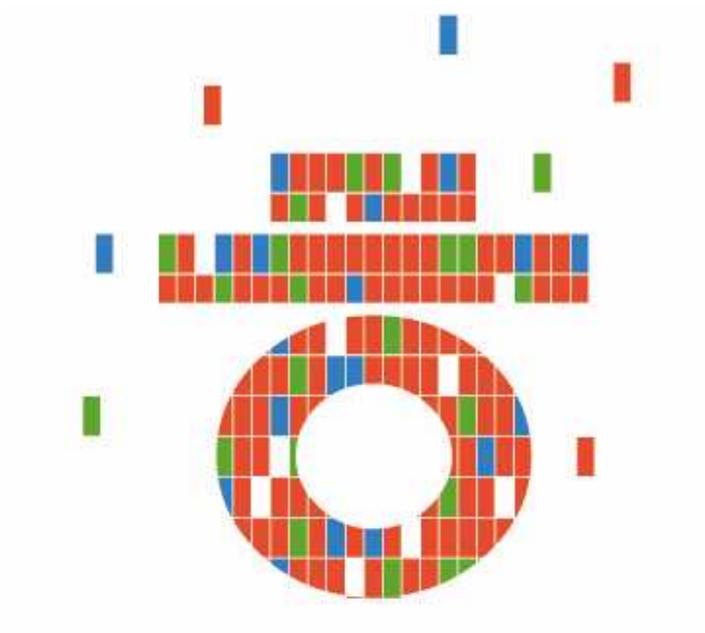


그림4-24. 고등학생: 자살충동

(단위: %)



제5장 기출충동과 자살충동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 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I. 가출충동

1. 가출충동 경험 비율

- 이 절에서는 초 중 고 학생의 가출충동 경험비율을 살펴보았다.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크게 높아졌다. 초등학생의 경우 약 5명 중 1명이 가출충동을 경험했으며, 중학생은 약 4명 중 1명, 고등학생은 약 3명 중 1명이 가출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 교급별 가출충동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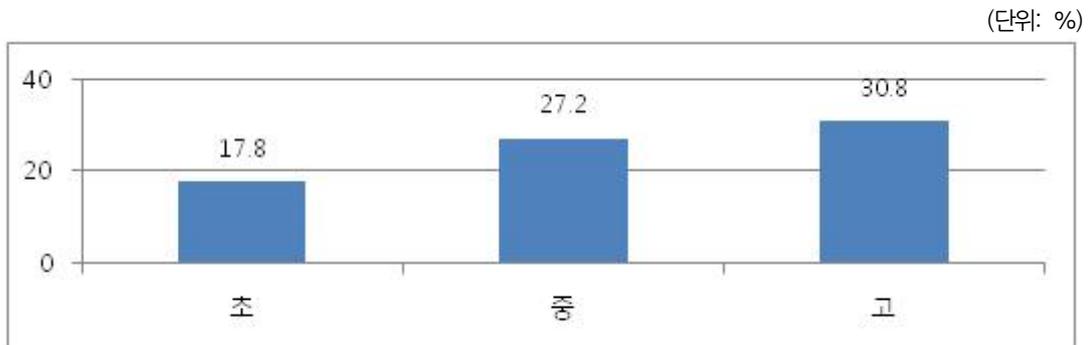


그림5-2. 초등학생 : 연도별 가출충동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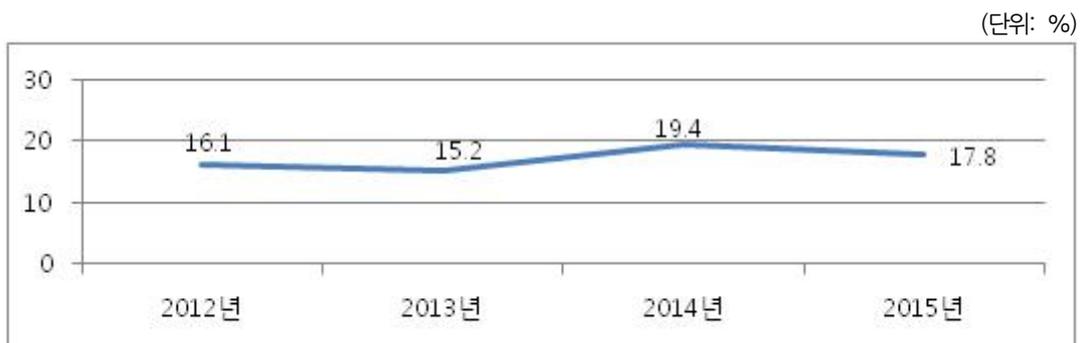


그림5-3. 중학생 : 연도별 가출충동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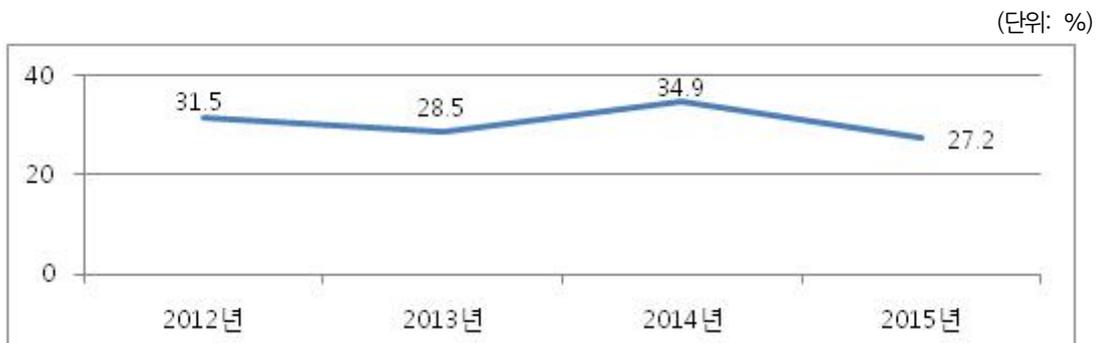


그림5-4. 고등학생 : 연도별 가출충동 경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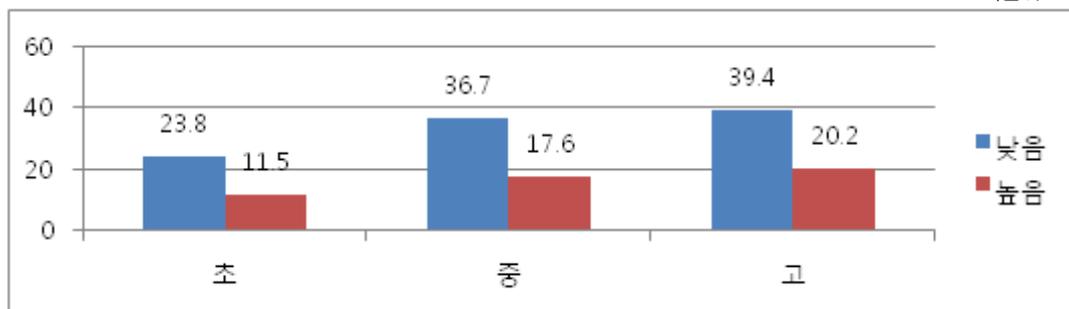


2. 부모관계, 계층인식, 학교성적과 가출충동 경험

-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부모와의 관계 수준, 학교성적, 계층인식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초 중 고 학생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부모와의 관계 수준에 따라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낮은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23.8%인 한편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높은 집단은 11.5%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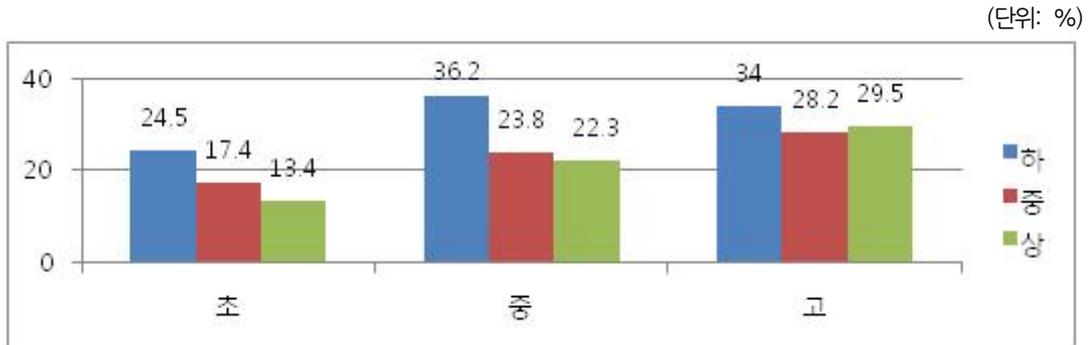
그림5-5. 부모와의 관계 수준과 가출충동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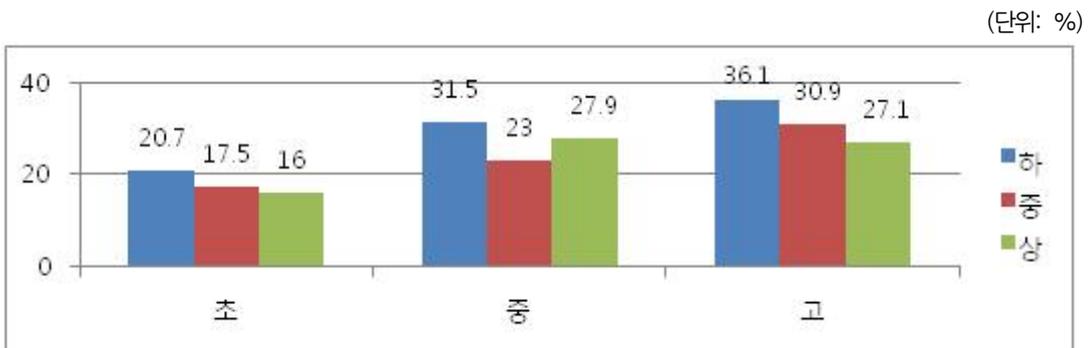
-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계층인식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응답을 상, 중, 하 세 범주로 구분했을 때 전반적으로 계층인식 수준이 올라갈수록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감소했다. 계층인식에 따른 가출충동 경험 비율의 차이는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5-6. 계층인식과 가출충동 경험



- 또한, 가출충동 경험 비율은 학교성적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학교성적을 상, 중, 하 세 범주로 구분했을 때 전반적으로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출충동 경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의 가출충동 경험 비율이 교급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한편,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이 중학생 집단만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그림5-7. 학교성적과 가출충동 경험



3. 가출충동 경험 이유

- 초 중 고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가출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가출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67.4%, 중학생 80.3%, 고등학생 79.6%에 달했다. 한편, 가출충동 경험 이유로 "성적하락"을 지적한 경우는 초등학생 6.6%, 중학생 4.4%, 고등학생 5.4% 수준이었다.

그림5-8. 초등학생 :가출충동 경험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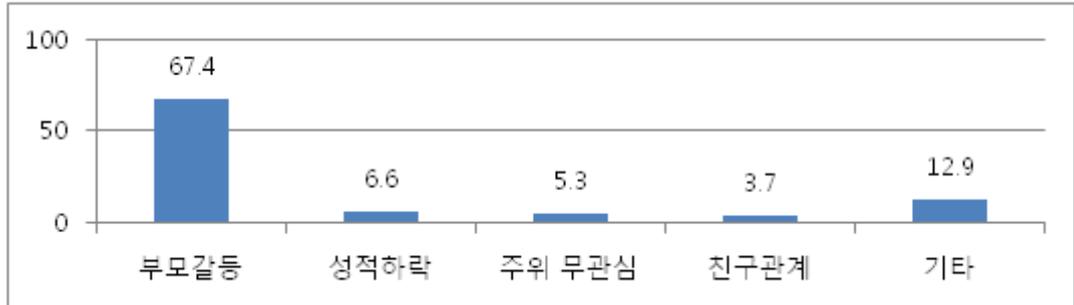


그림5-9. 중학생 :가출충동 경험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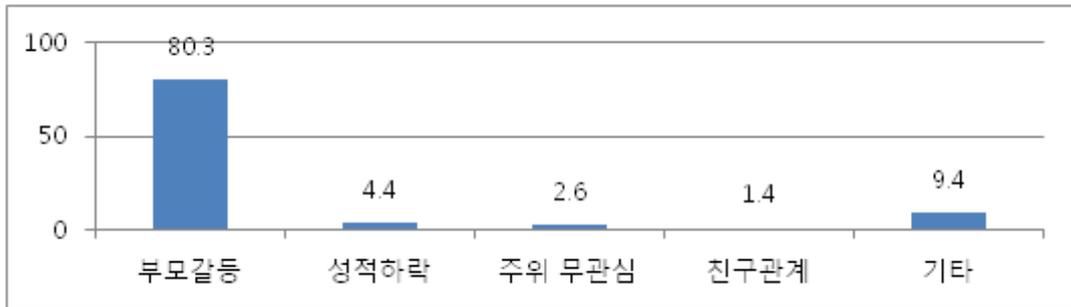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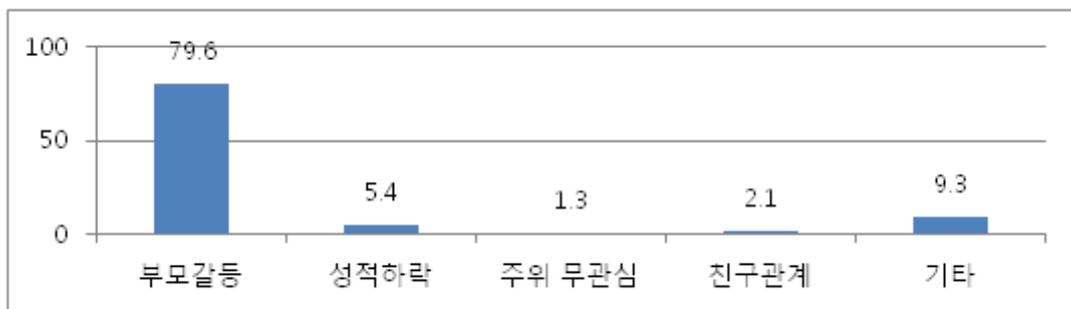


그림5-10. 고등학생 :가출충동 경험 이유

(단위: %)



II. 자살충동

1. 자살충동 경험 비율

- 자살충동 경험 비율도 교급이 올라갈수록 크게 높아졌다. 초등학생의 경우 약 7명 중 1명이 자살충동 경험이 있으며, 중학생은 5명 중 1명, 고등학생은 4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1. 교급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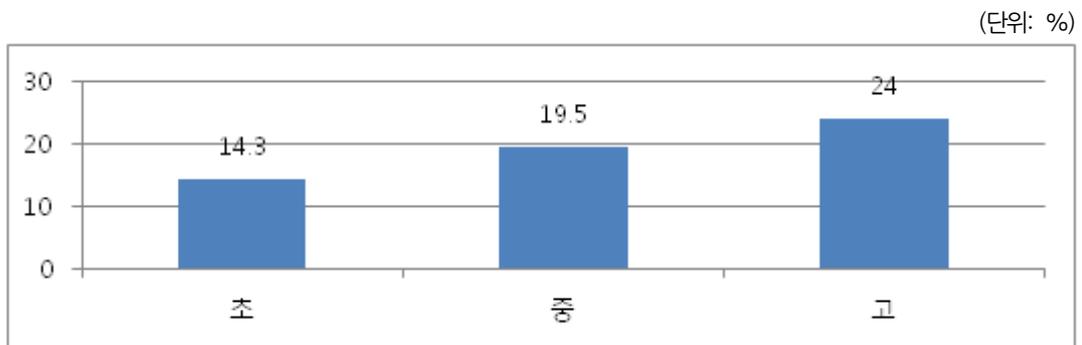


그림5-12. 초등학생 :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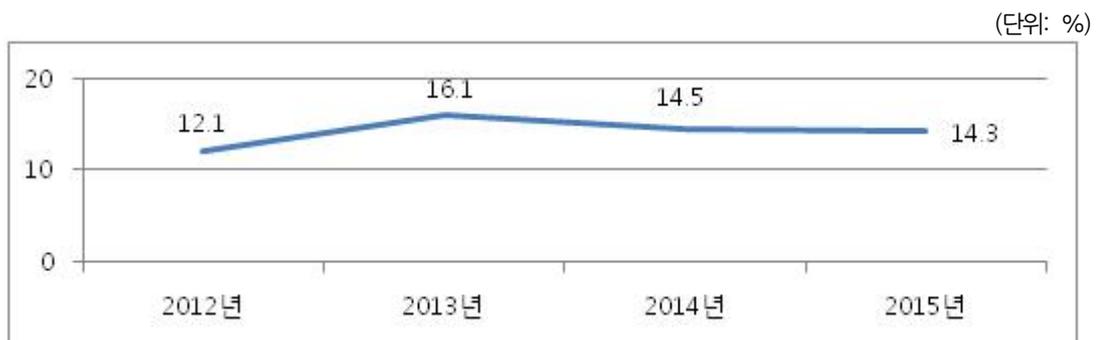


그림5-12. 중학생 :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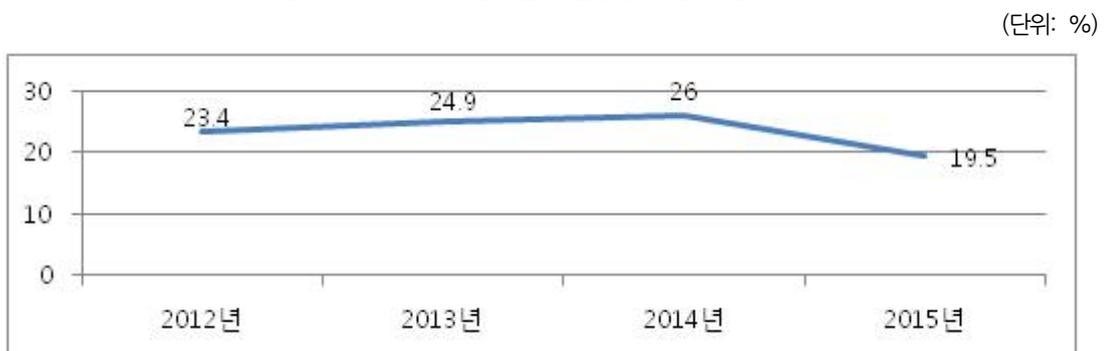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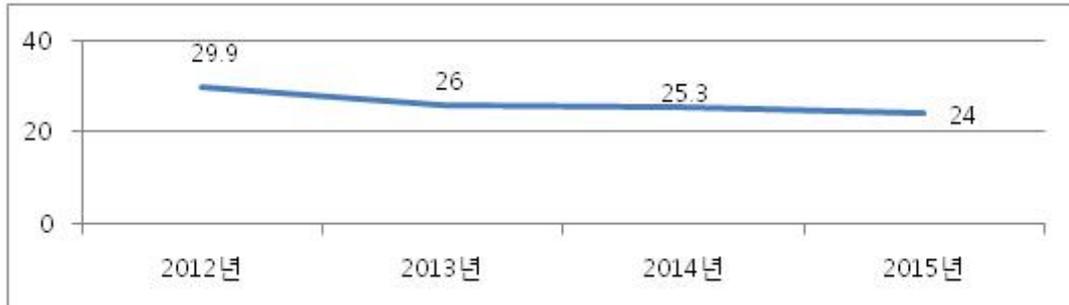


그림5-13. 고등학생 : 연도별 자살충동 경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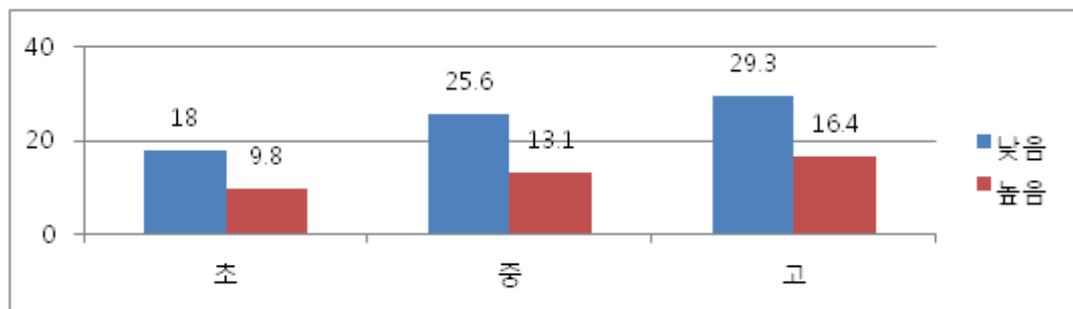


2. 부모관계, 학교성적, 계층인식과 자살충동 경험

-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부모와의 관계 수준, 학교성적, 계층인식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초 중 고 학생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은 부모와의 관계 수준에 따라 2배 가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낮은 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은 18%인 한편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높은 집단은 9.8% 수준이었다. 중학생도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각각 25.6%와 13.1%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고등학생도 이 비율이 각각 29.3%, 16.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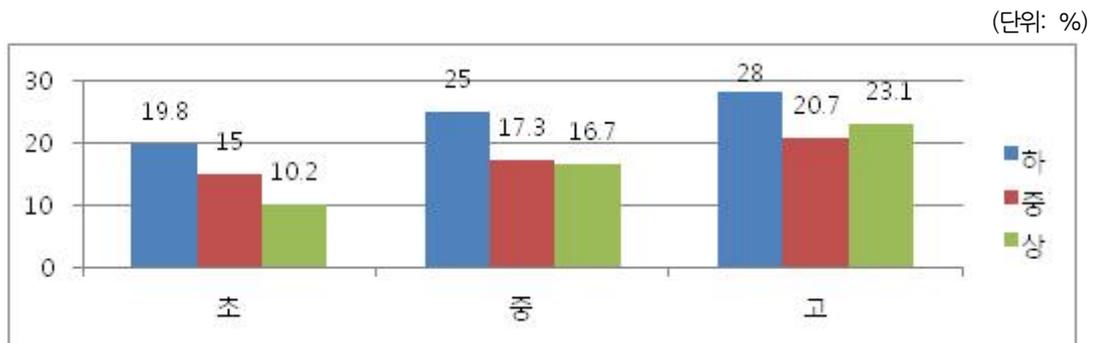
그림5-14.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자살충동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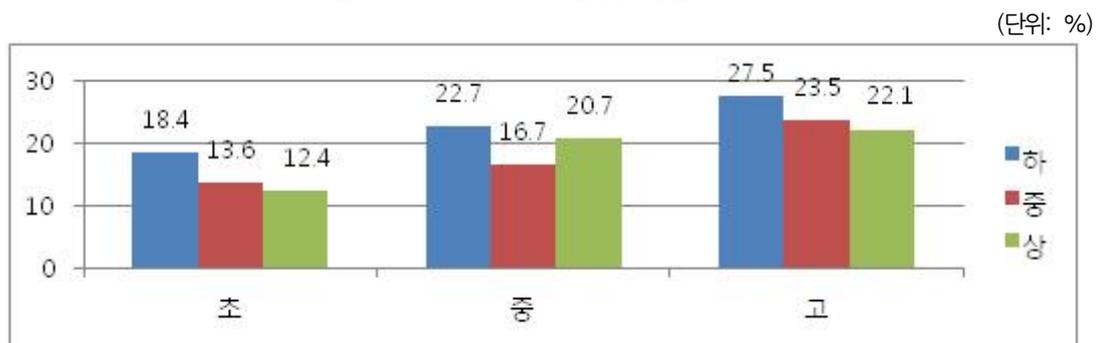
- 자살충동 경험 비율은 계층인식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응답을 상, 중, 하 세 범주로 구분했을 때 전반적으로 계층인식 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살충동 경험 비율은 감소했다. 계층인식에 따른 자살충동 경험 비율의 차이는 초등학생 집단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5-15. 계층인식과 자살충동 경험



- 또한, 자살충동 경험 비율은 학교성적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학교성적을 상, 중, 하 세 범주로 구분했을 때 전반적으로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가출충동 경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교급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한편,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이 중학생 집단만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그림5-16. 학교성적과 자살충동 경험



3. 자살충동 경험 이유

- 자살충동을 경험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부모와의 갈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44%, 중학생 44.4%, 고등학생 36% 였다. "성적하락"이 2위를 차지했는데 이 비율은 초등학생 21.5%, 중학생 15.8%, 고등학생 23.1%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생은 "친구관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주위 무관심" 때문이었다.

그림5-17. 초등학생 : 자살충동 경험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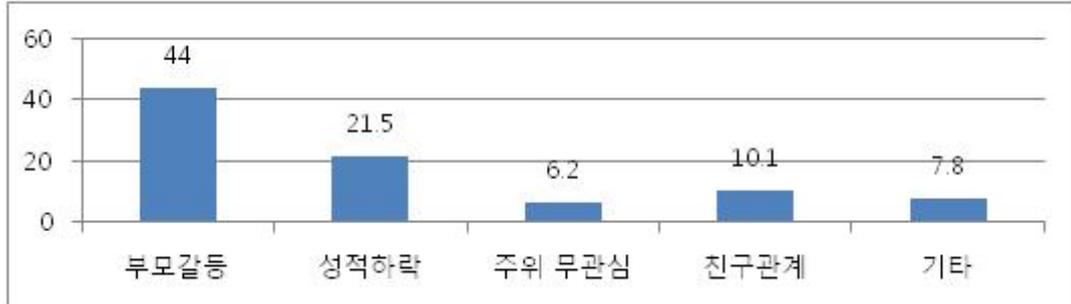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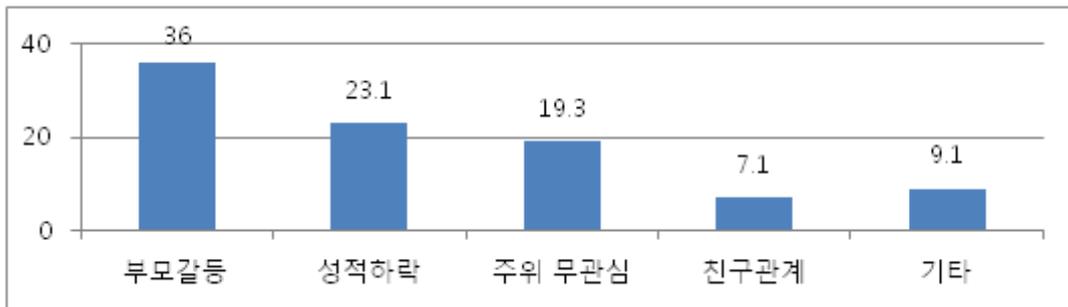
그림5-18. 중학생 : 자살충동 경험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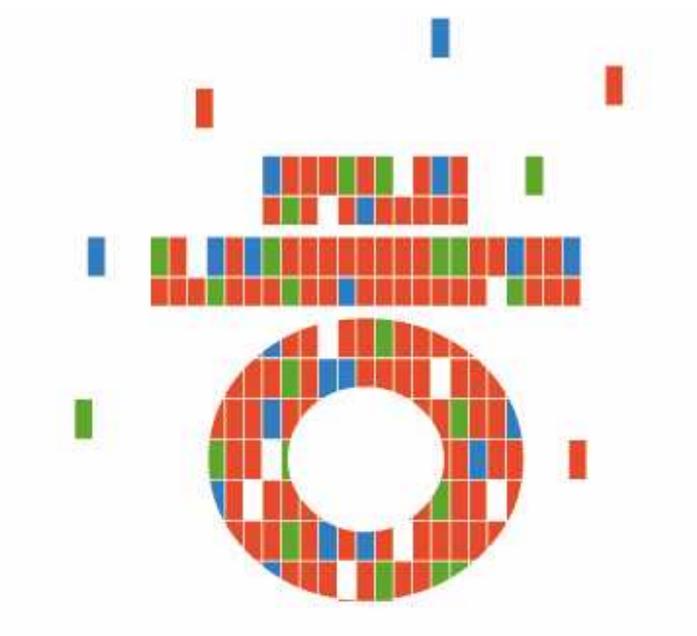


그림5-19. 고등학생 : 자살충동 경험 이유

(단위: %)



제6장 스마트폰 이용과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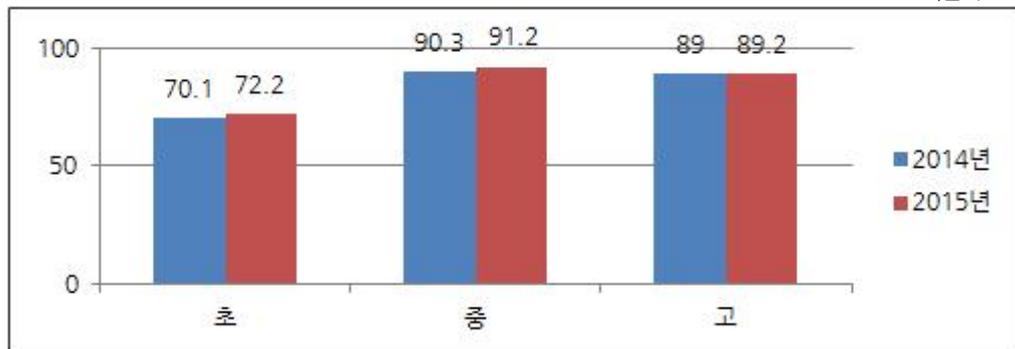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칭찬을 하면 주저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잘한 일에는 반드시 칭찬과 독려를 해 주어야 그 어린이의 용기와 자신하는 힘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I. 스마트폰 이용현황

- 이 절에서는 스마트폰 보유율과 이용시간을 교급별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0명 중 9명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 중 고 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그림6-1. 초·중·고 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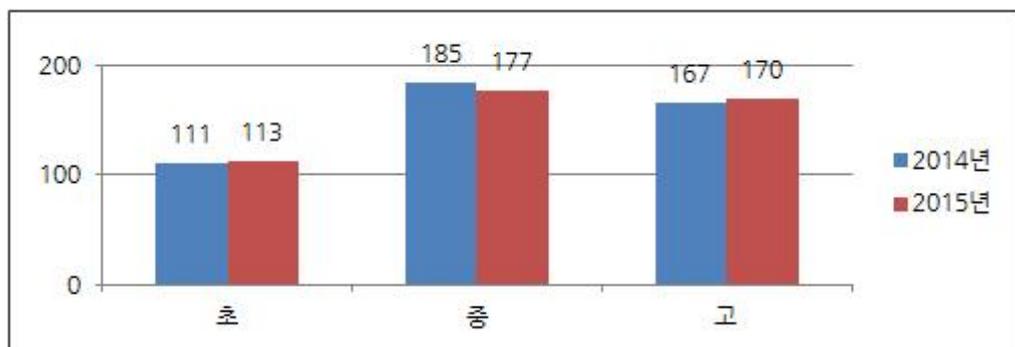
(단위: %)



-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교급별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이 하루 평균 177분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고등학생 170분, 초등학교는 113분 수준이었다.

그림6-2. 초·중·고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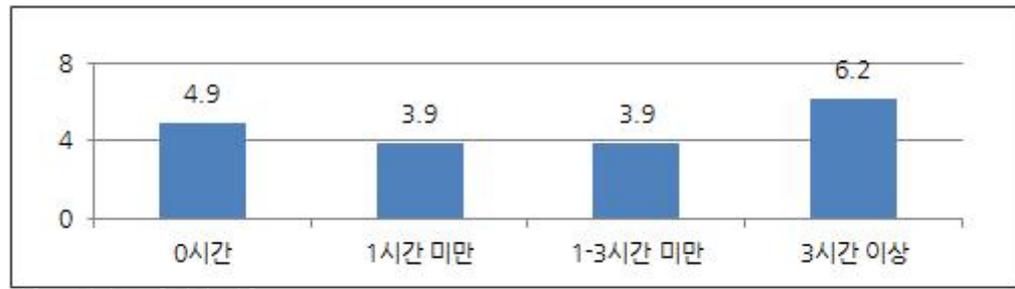
II. 스마트폰 이용과 스트레스 경험

1. 부모관계 스트레스

-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경험비율이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유(U)자형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의견충돌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4.9%에서 하루 평균 1시간 미만 이용할 때 3.9%로 감소했고, 3시간 이상일 때는 6.2%로 다시 증가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이러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따라 유자형을 나타냈다.

그림6-3. 초등학생 : 부모와의 의견충돌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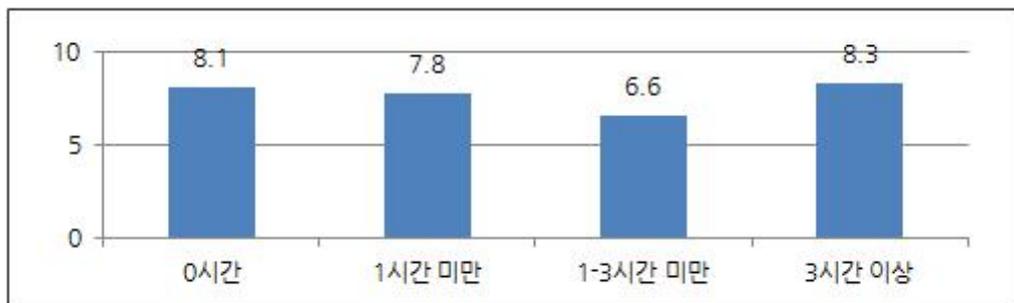
(단위: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6-4. 중학생 : 부모와의 의견충돌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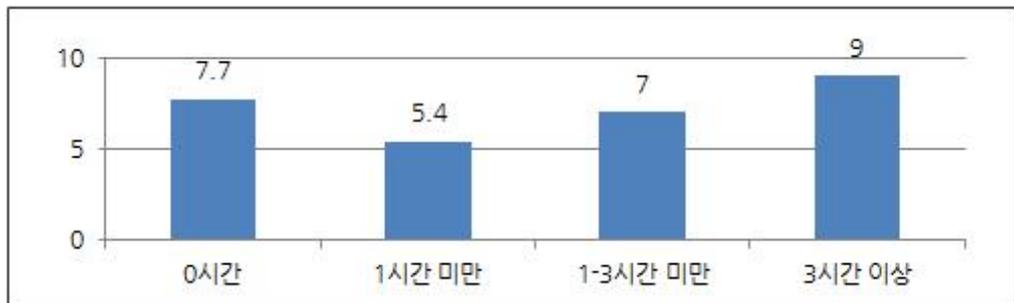
(단위: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6-5. 고등학생 : 부모와의 의견충돌 스트레스

(단위: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 또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대체로 유사형을 나타냈다. 초등학생의 경우 이 비율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을 때 4.7%에서 3시간 미만 이용할 때 3.2-3.3%로 감소했다가 3시간 이상 사용할 때 4.8%로 증가했다.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유사형 곡선이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은 스마트폰을 1-3시간 미만 사용할 때 가장 낮았다.

그림6-6. 초등학생 : 부모의 지나친 간섭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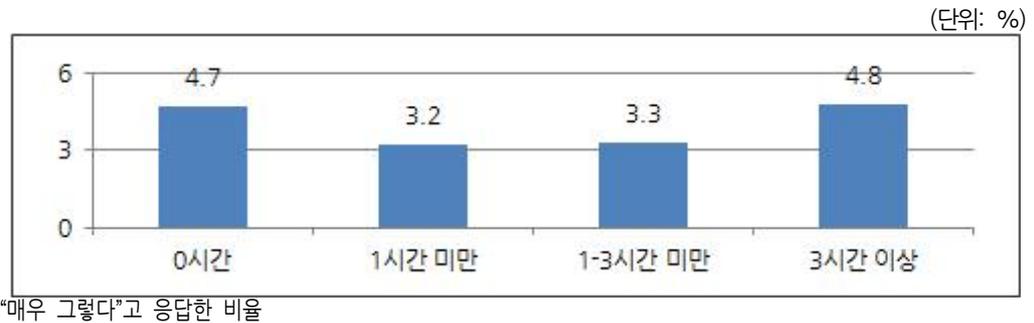


그림6-7. 중학생 : 부모의 지나친 간섭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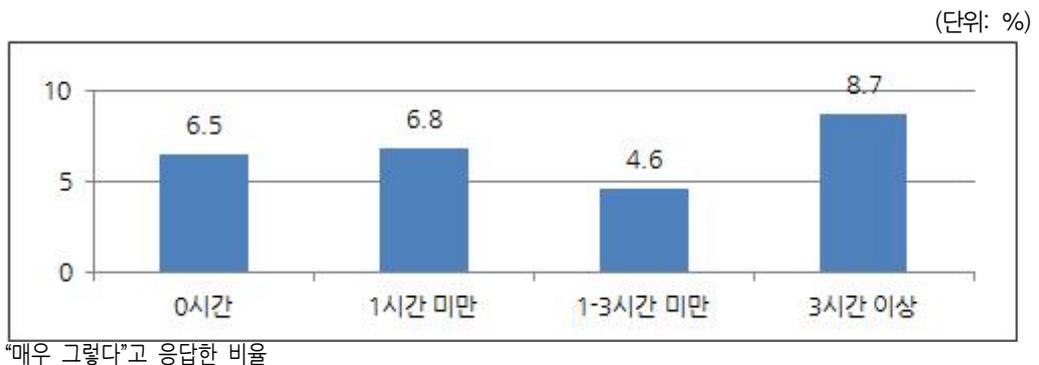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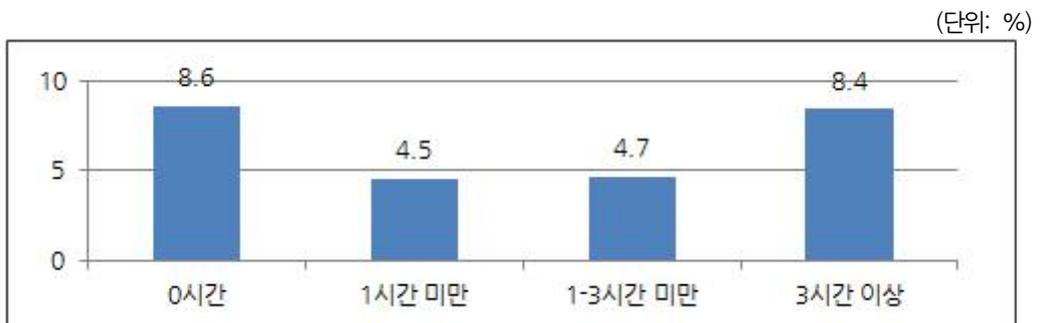


그림6-8. 고등학생 : 부모의 지나친 간섭 스트레스



2. 공부 · 시험 스트레스

- "공부가 지겨워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공부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8.4%에서 스마트폰을 하루 1시간 미만 사용할 때 5.1%로 감소했으며, 3시간 이상 사용할 때 12.4%로 증가하는 U자형을 보였다.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는 공부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림6-9. 초등학생 : 공부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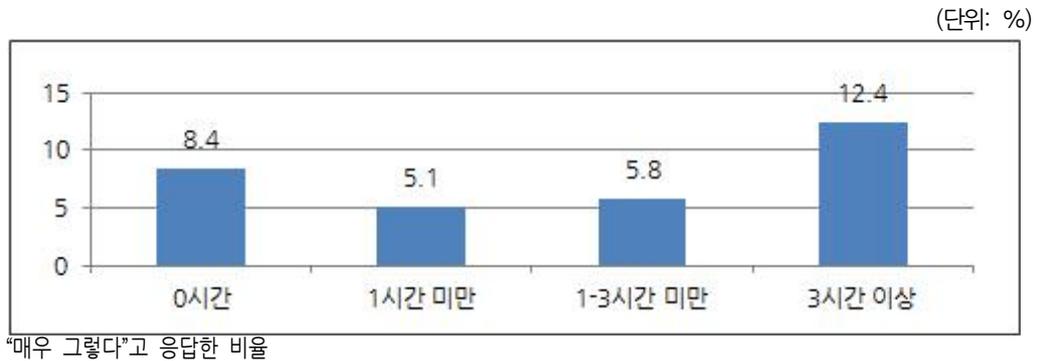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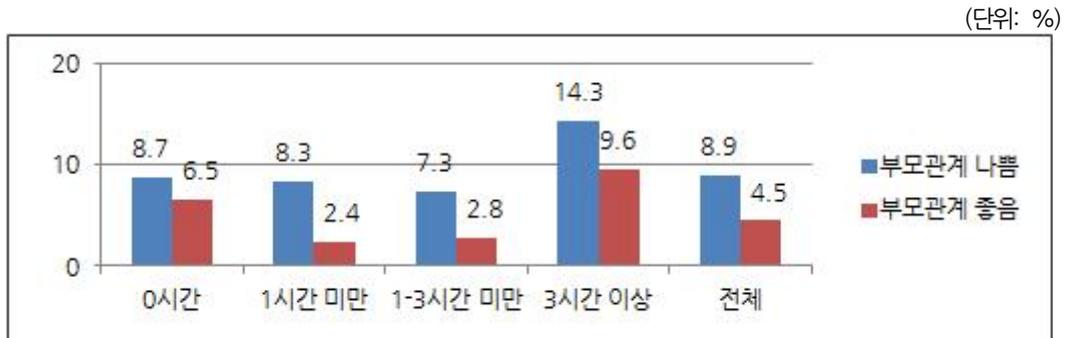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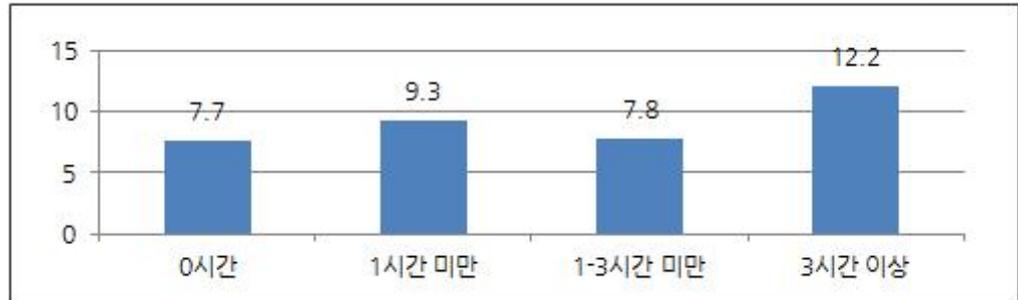
그림6-10. 초등학생 :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공부 스트레스



-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공부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1-3시간 미만 사용할 때 가장 낮았다.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이 비율이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낮았다.

그림6-11. 중학생 : 공부 스트레스

(단위: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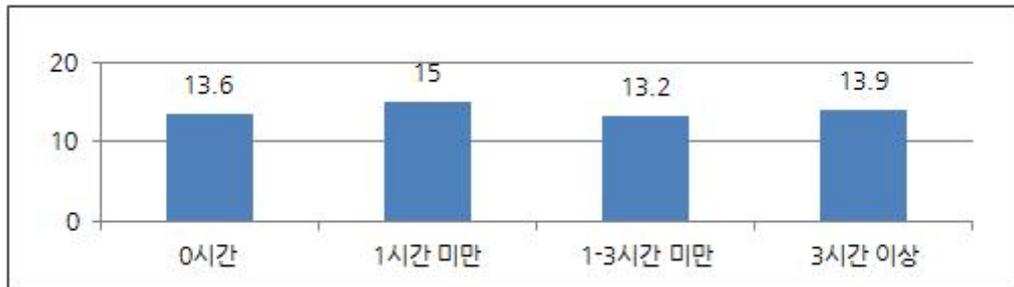
그림6-12. 중학생 :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공부 스트레스

(단위: %)



그림6-13. 고등학생 : 공부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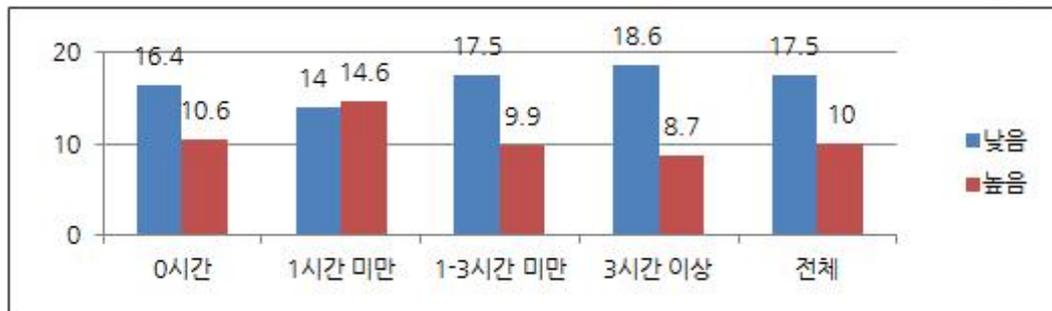
(단위: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6-14. 고등학생 :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공부 스트레스

(단위: %)



- 숙제와 시험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 비율도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숙제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초등학생 집단에서 이 비율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9.2%에서 스마트폰을 3시간 미만 사용할 때 8.1-8.3%로 감소했으며, 스마트폰을 3시간 이상 사용할 때 15%로 증가하는 유사형을 나타냈다.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는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6-15. 초등학생 : 시험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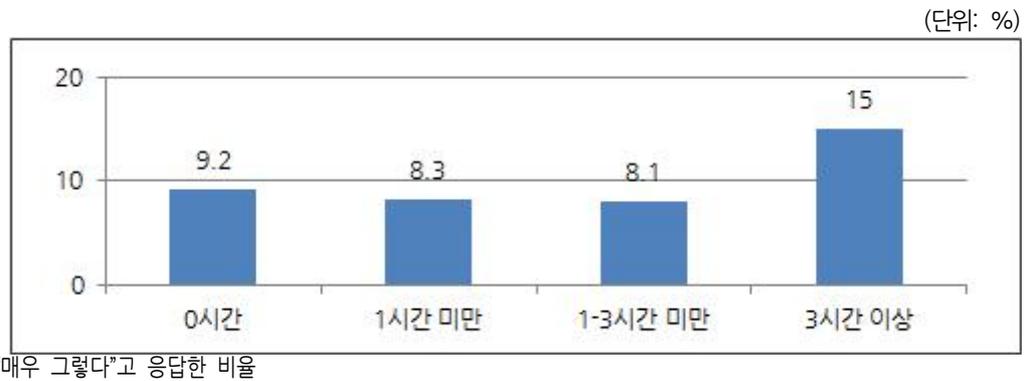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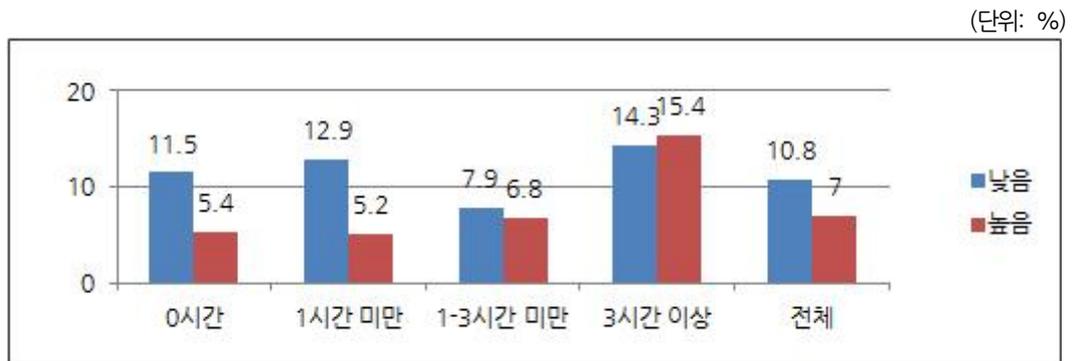


그림6-16. 초등학생 :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시험 스트레스



- 한편, 중학생의 경우 숙제와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1-3시간 미만 사용할 때 가장 낮았으며, 고등학생은 스마트폰을 3시간 이상 사용할 때 가장 낮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그림6-17. 중학생 : 시험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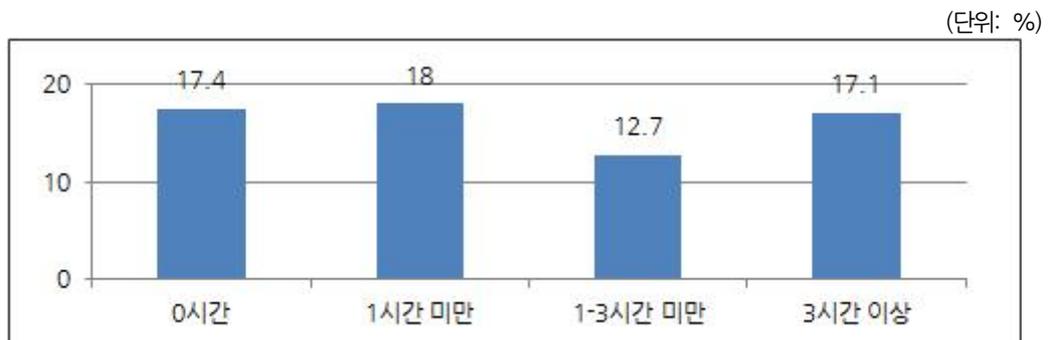


그림6-18. 중학생 :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시험 스트레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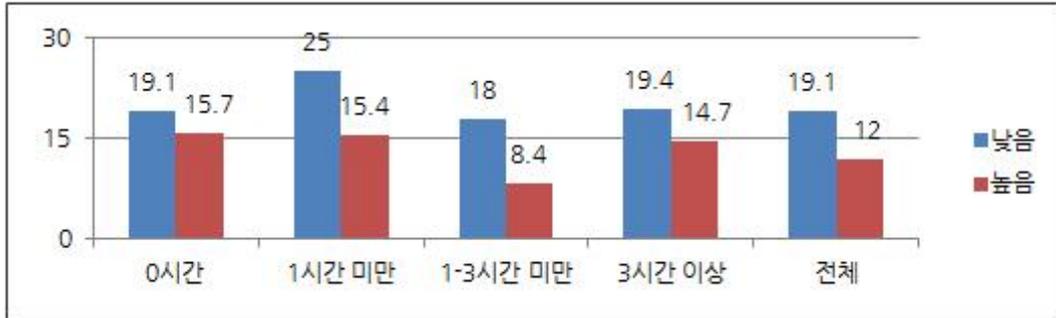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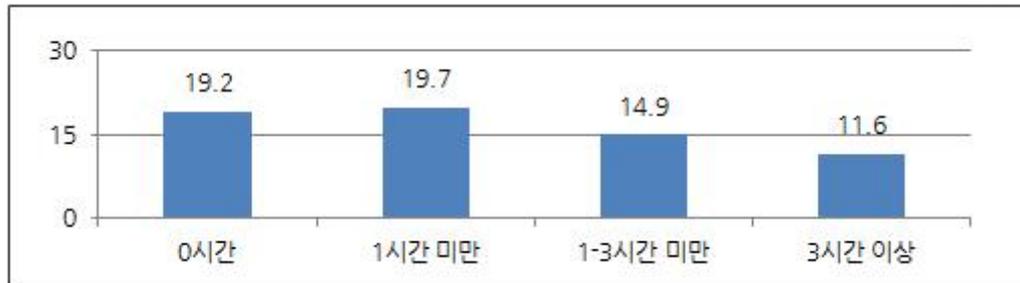


그림6-19. 고등학생 : 숙제/시험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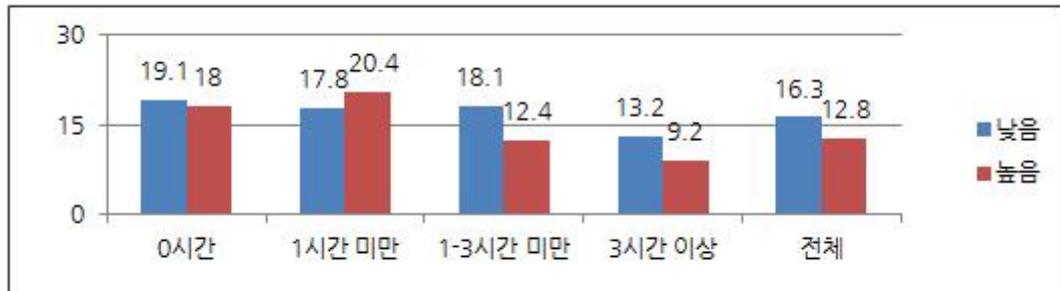
(단위: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6-20. 고등학생 : 부모와의 관계수준과 시험 스트레스

(단위: %)



3. 친구관계 스트레스

- 친구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은 부모관계나 공부 스트레스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교급이 올라갈수록 친구관계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비율 역시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경우로 측정했을 때 초등학생의 경우 이 비율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0시간 일 때 4.3%에서 3시간 미만 일 때 3.2-3.4%로 감소했으며, 3시간 이상일 때는 4.5%로 증가하는 유사형을 나타냈다.

그림6-21. 초등학생 : 친구의 놀림/무시 스트레스

(단위: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6-22. 중학생 : 친구의 놀림/무시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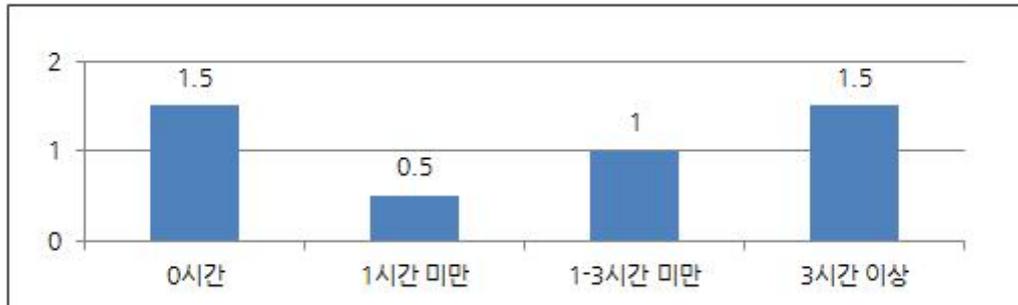
(단위: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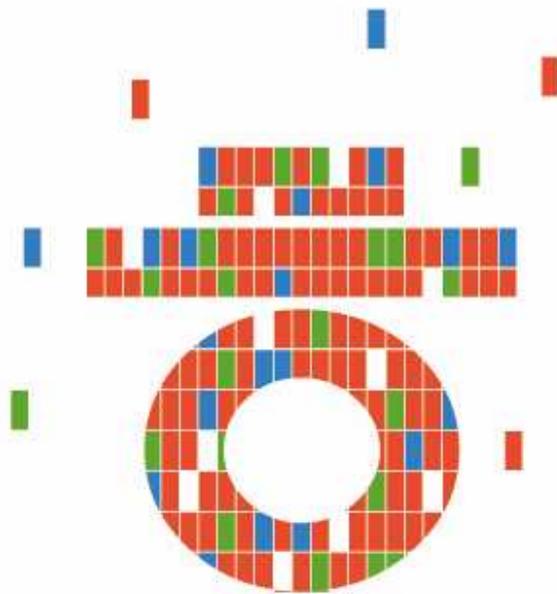
그림6-23. 고등학생 : 친구의 놀림/무시 스트레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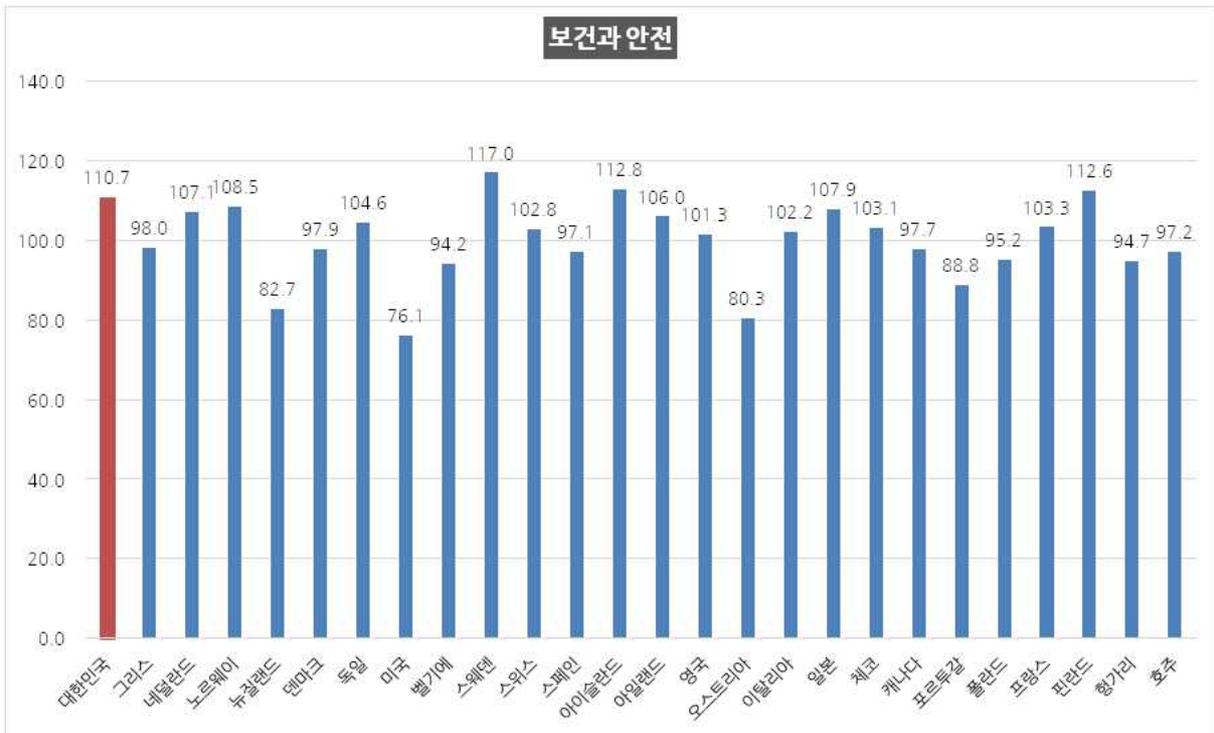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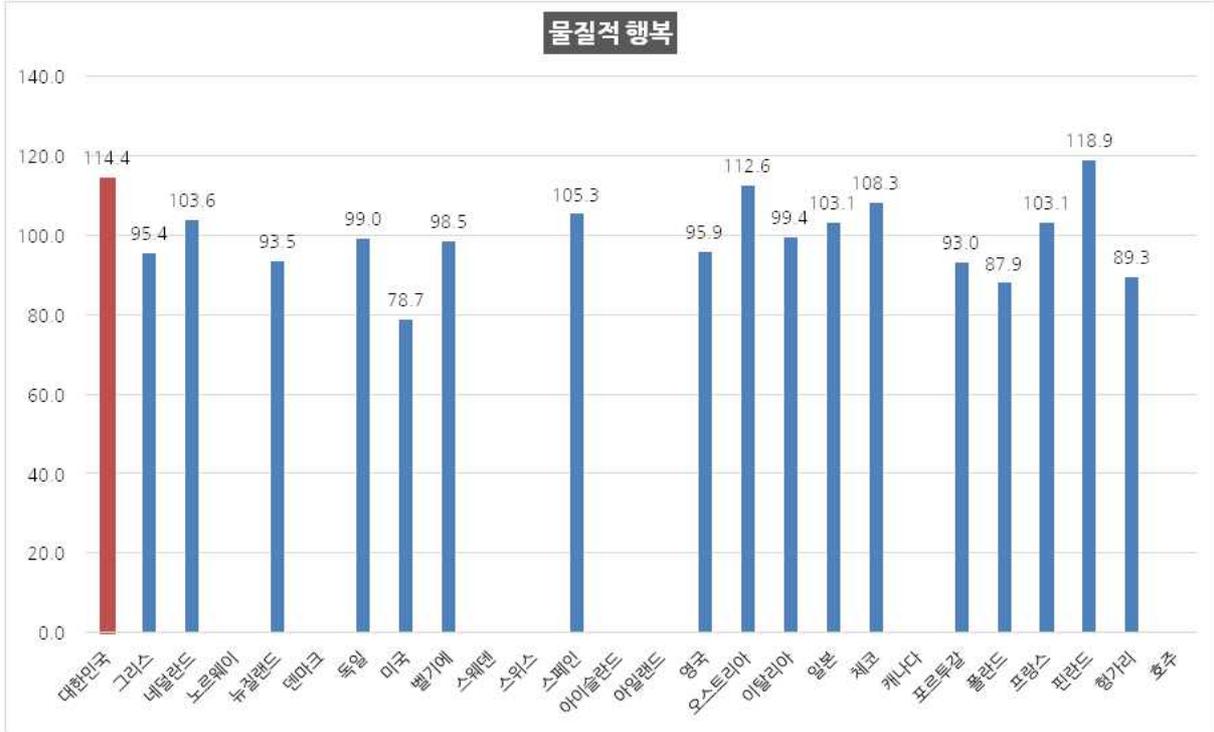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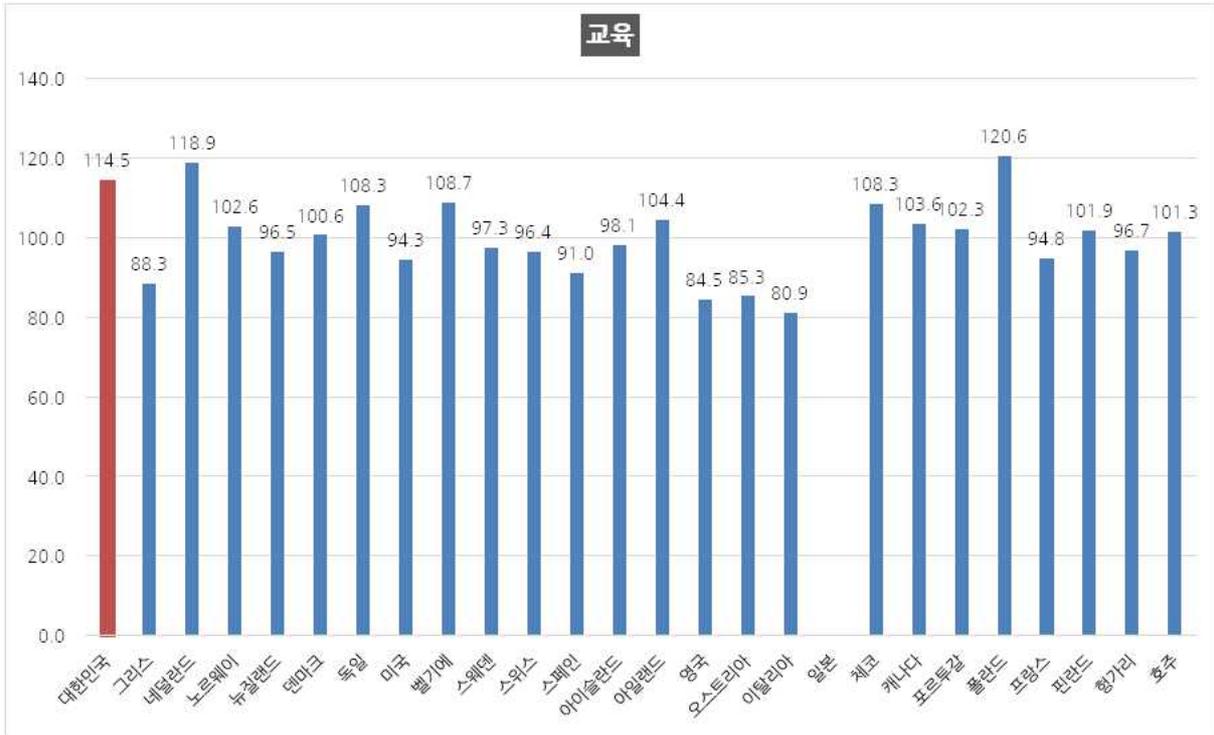
부록1.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영역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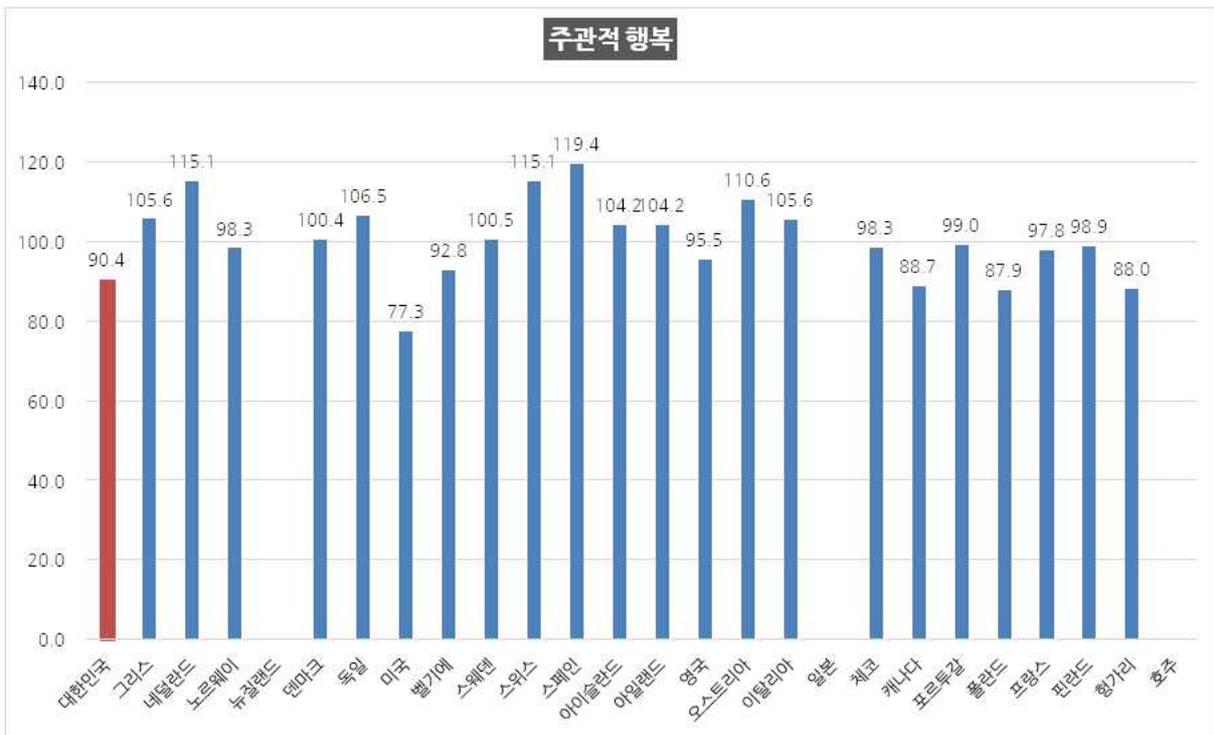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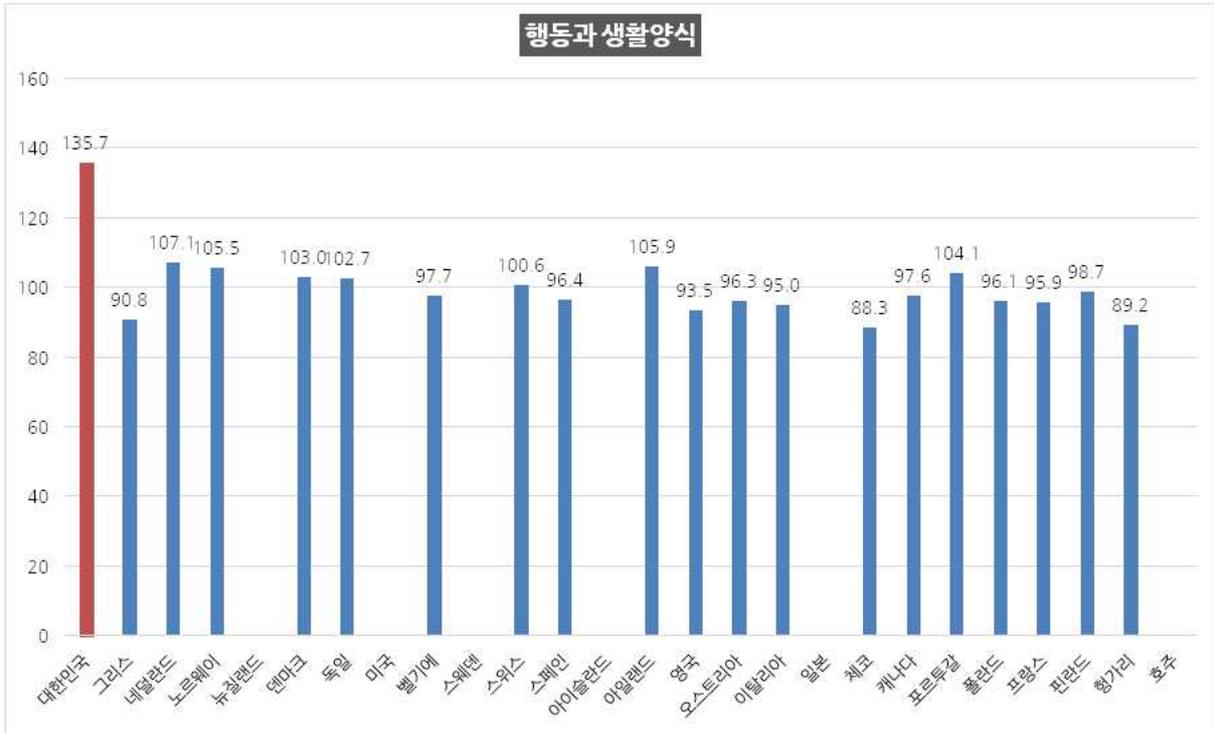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야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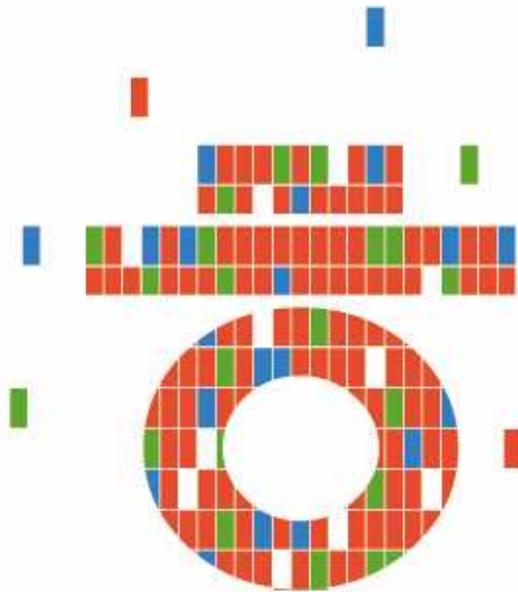


부록 : OECD국가의 행복지수 영역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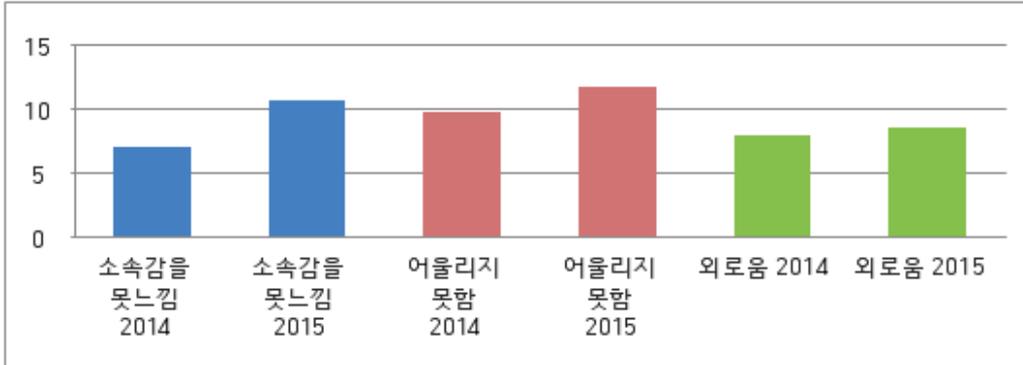


부록2. 주관적 행복지수 증가경향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자주지 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 주도록 하십시오.” _ <어린이날의 약속>, 1923년 5월 1일 동아일보

1.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 상승은 외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악화된 것의 반사 효과이다



주 : 2014년에는 PISA 2003 데이터를, 2015년에는 PISA 2012 데이터를 사용

2. OECD 내 주관적 행복지수의 순위 상승은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개선된 결과이기도 하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관적 건강	75.6	73.5	73.8	77.4	80.4	80.0	82.5
학교생활 만족	29.4	27.0	30.3	34.0	35.6	37.6	45.0
삶의 만족	55.4	53.9	55.4	63.6	66.6	67.6	74.3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	10.1	18.3	15.9	11.5	16.3	13.0	14.3
어울리지 못함	8.2	7.7	7.2	6.3	6.7	5.7	4.8
외로움	20.1	16.7	16.2	16.1	15.3	18.0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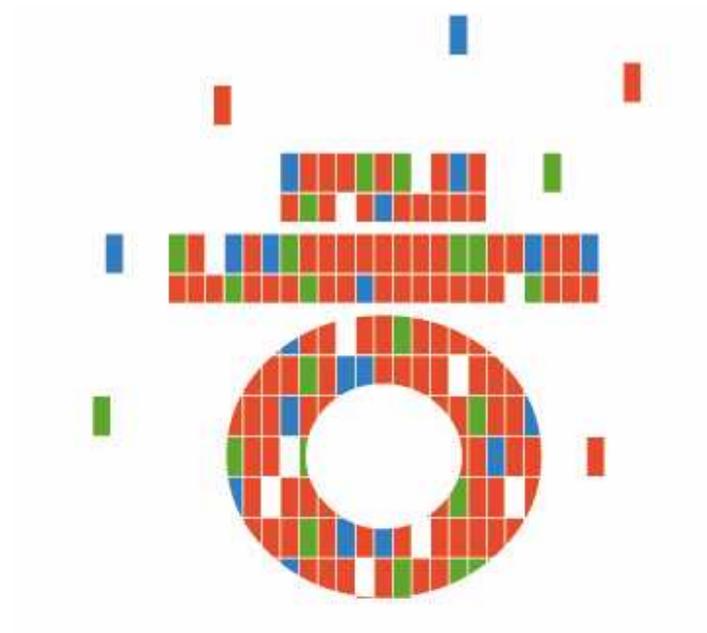
3. 본 연구와 동일한 경향이 많은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NYP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횡단조사 데이터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자살 생각 경험	자살 시도 경험	생활만족도	사는 게 즐거움	걱정거리 없음	행복함
2011	-	-	3.14	84.9	81.4	49.9
2012	23.4	3.4	3.18	-	-	-
2013	20.9	3.1	3.23	-	-	-
2014	-	-	-	88.5	86.4	59.1

* 생활만족도 : 부모님과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수준, 친구와의 관계, 여가생활,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적, 건강 등 총 8항목을 통해서 측정된 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통계 (중 고등학생 대상)				
	10-14세 자살률 (10만 명 당)	15-19세 자살률 (10만 명 당)	우울감 경험률 (%)	스트레스 인지율 (%)	최근 12개월 자살생각률 (%)	최근 12개월 자살계획률 (%)	자살 시도율 (%)
2009	2.3	10.7	37.5	43.2	19.1	-	4.6
2010	1.9	8.3	37.4	43.8	19.3	-	5.0
2011	1.8	8.9	32.8	42.0	19.6	6.8	4.3
2012	1.5	8.2	30.5	41.9	18.3	6.3	4.1
2013	1.3	7.9	30.9	41.4	16.6	5.7	4.1

부록3. 설문지



문1. 집에 책이 모두 몇 권 있나요?
(만화책, 잡지책, 참고서 제외)

- 1) 1~10권 2) 11~25권
3) 26~100권 4) 101~200권
5) 201~500권 6) 501권 이상
7) 전혀 없다

문2. 집에 '자동차'는 몇 대 있나요?
(트럭 포함)

- 1) 1대 2) 2대
3) 3대 이상 4) 없다

문3. 집에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있나요?
(노트북, 넷북, PDA 등 포함)

- 1) 1대 2) 2대
3) 3대 이상 4) 없다

문4.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5로)

문4a.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나요?

이용 횟수 : 하루 평균 회
이용 시간 : 하루 평균 시간 분

문4b.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간에 숫자를 쓰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응답간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input type="text"/>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input type="text"/>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input type="text"/>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input type="text"/>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input type="text"/>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input type="text"/>

■ 다음 질문은 아주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주 친한 친구란 학교친구, 학원친구, 동네친구들 중에서 평소 매우 자주 어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으면 5명 정도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문5. 아주 친한 친구는 몇 명 인가요? 명

* 아주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는 '0'명이라고 쓰신 후 문7로 건너 가세요.

문6. 다음은 친한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간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간
1)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input type="text"/>
2)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input type="text"/>
3)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input type="text"/>
4)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input type="text"/>
5)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input type="text"/>
6)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input type="text"/>
7) 내 친구들과 나의 학교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지난 학년)	<input type="text"/>
8) 나와 내 친구들의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input type="text"/>

■ 다음은 학교 및 학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 '지난 학년 때' 같은 반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나요?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8.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에서 골라 응답간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간
1) 나는 학교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input type="text"/>
2) 나는 학교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input type="text"/>

문13e.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 0) 도움을 요청한 적 없다
- 1) 부모님께 알렸다
- 2) 학교에 알렸다(담임선생님 등)
- 3) 친구들에게 알렸다
- 4)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에 상담, 신고하였다
- 5)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 6) 기타 _____

문14. (만약)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누구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1) 부모님 2) 학교(담임선생님 등)
- 3) 친구들 4)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실
- 5) 경찰서에 신고 6) 기타 _____

문15.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경험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16으로)

문15a.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경험이 모두 몇 번 있나요?

 번

문15b. 최근 1년간 자신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준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16.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칸에 모두 ✓ 표시해 주세요.

- 1) 친아버지 2) 친어머니
- 3) 친할아버지 4) 친할머니
- 5) 외할아버지 6) 외할머니
- 7) 의붓아버지 8) 의붓어머니
- 9) 남자형제 10) 여자형제
- 11) 기타 _____ 12) 해당 없음

문17. 아래 각 항목별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님과 일주일(7일)에 몇 일 정도 함께 하나요? 응답칸에 '0~7일' 사이의 숫자로 기입해주세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응답칸에 숫자 "9"를 기입해 주세요.)

	응답칸
1) 아버지와 일주일에 몇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2) 어머니와 일주일에 몇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3)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와 함께 일주일에 몇일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4) 아버지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일 시간을 내나요?	일
5) 어머니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일 시간을 내나요?	일

문18. 아버지(친아버지 혹은 새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아버지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아버지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아버지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은 서로 잘 알고 있다	
8) 아버지와 내 친구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19. 어머니(친어머니 혹은 새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어머니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어머니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어머니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은 서로 잘 알고 있다	
8) 어머니와 내 친구 부모님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20.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신가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 | |
|-------------|-------------|
| 1) 전혀 좋지 않다 | 2) 별로 좋지 않다 |
| 3) 보통이다 | 4) 좋은 편이다 |
| 5) 매우 좋다 | 6) 해당사항 없음 |

문21.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 | | |
|----------------|---------------|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 3) 고등학교 졸업 | 4) 2년제 대학교 졸업 |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이상 |
| 7) 학교를 다닌 적 없음 | 9) 안 계심 |

문22.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을 빈칸으로 두시거나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 | | |
|----------------------|---------------|
| 1) 사무/전문/관리직 | 2) 판매/서비스/영업직 |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 4) 농림어업 |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 6) 주부 |
| 7) 무직/기타 | 9) 안 계심 |

■ 다음 질문은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23. 다음 질문들에 대해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문24.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1) 매우 행복하다
- 2) 대체로 행복한 편이다
- 3) 별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행복하지 않다
- 5) 모르겠다

문24a. 평소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만약 '별로 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주로 어떤 때 행복감을 느낄 것 같습니까?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공부가 재미있을 때/공부할 때
- 2) 성적이 좋을 때
- 3)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 4) 부모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 5) 가정형편이 넉넉할 때
- 6)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 7) 기타 _____

문24b. 그럼,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학습부담이 너무 클 때(학교, 학원)
- 2)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 3)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 4)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느낄 때
- 6)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 7) 기타 _____

문25. 평소 '행복'을 느끼는 곳을 한 군데만 고른다면 어디인가요?

- | | |
|-------------|-------------------|
| 1) 집 | 2) 학교 |
| 3) 학원 | 4) 친구와 모이는 장소 |
| 5) 동아리 | 6)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
| 7) 기타 _____ | 8) 특별히 없다 |

문26.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 | | |
|------------|------------|
| 1) 매우 불행하다 | 2) 약간 불행하다 |
| 3) 보통이다 | 4) 약간 행복하다 |
| 5) 매우 행복하다 | |

문27.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건강
- 2) 돈
- 3) 성적 향상
- 4) 동성 친구
- 5) 이성 친구
- 6) 화목한 가족
- 7) 자유
- 8) 종교
- 9) 자격증(기술 등)
- 10) 기타 _____

문28. 다음 항목을 읽고 “1) 예 2) 아니오” 중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 주세요.

보기 : 1) 예 2) 아니오

	응답칸
1) 과일을 매일 섭취하나요?	
2) 등교 전에 아침식사를 챙겨 먹나요?	
3)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한 날수는 몇 일 인가요?	일
4)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체육 시간 이외에 운동을 한 날수는 몇 일 인가요?	일
5) 최근 2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에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6)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나요?	
7) 최근 2주 동안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8) 1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	
9)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를 한 적이 있나요?	
10) 최근 12개월 동안 신체적인 싸움을 한 적이 있나요?	
11) 최근 12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나요?	

문29.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게임 등)을 해본 적이 있나요?

- 1) 있다
- 2) 없다 (→ 문30으로)



문29a.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얼마나 자주 했나요?

- 1) 매일
- 2) 1주일에 5-6회
- 3) 1주일에 3-4회
- 4) 1주일에 1-2회
- 5) 거의 하지 않았다

문29b.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하루에 얼마나 했나요?

- 1) 1시간 미만
- 2) 1-2시간 미만
- 3) 2-3시간 미만
- 4) 3-4시간 미만
- 5) 4시간 이상

문29c. 지난 6개월 동안 게임을 주로 어디서 했나요?

- 1) 집
- 2) 학교
- 3) PC방
- 4) 친구 집
- 5) 기타 _____

문29d. 게임(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핸드폰 게임 등)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세요.

보기	그런 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2) 나는 원래 계획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3)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생각하며 보낸다	
4) 나는 게임을 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동안 해야 직성이 풀린다	
5) 나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지만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문39. 자신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4) 2년제 대학교졸업
- 5) 4년제 대학교졸업 6) 대학원 이상

문40. 최종 학교를 마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나요?

- 1) 사무/전문/관리직 2) 판매/서비스/영업직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4) 농림어업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6) 주부
- 7) 무직 8) 기타 _____

문41. 부모님은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문42. 자신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문43. 평소에 부모님과 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나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1) 학교 및 학원생활 2) 공부와 성적
- 3) 친구관계 4) 미래 진로와 직업
- 5) 취미와 여가활동 6) 기타 _____
- 9) 안계심

문44. 평소 닮고 싶은 역할모델(롤모델)이나 멘토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 없다면 '없다'라고 적어주세요.

문44a. 그 분(롤모델)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절취선

※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는 향후 저희가 수행하는 조사에 참여해주실 패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패널로서 조사에 참여하시면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답례를 하고 있습니다. 패널로 활동하시길 원하시면 아래의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적어주신 내용은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자 성명	
E-mail	

문1. 집에 책이 모두 몇 권 있나요?
(만화책, 잡지책, 참고서 제외)

- 1) 1~10권 2) 11~25권
3) 26~100권 4) 101~200권
5) 201~500권 6) 501권 이상
7) 전혀 없다

문2. 집에 '자동차'는 몇 대 있나요?
(트럭 포함)

- 1) 1대 2) 2대
3) 3대 이상 4) 없다

문3. 집에 '컴퓨터'는 모두 몇 대 있나요?
(노트북, 넷북, PDA 등 포함)

- 1) 1대 2) 2대
3) 3대 이상 4) 없다

문4.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 문5로)

문4a.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나요?

이용 횟수 : 하루 평균 회
이용 시간 : 하루 평균 시간 분

문4b.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를 쓰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응답칸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input type="text"/>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input type="text"/>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input type="text"/>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input type="text"/>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input type="text"/>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input type="text"/>

■ 다음은 학교 및 학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지난 학년 때' 같은 반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나요?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6.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학교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input type="text"/>
2) 나는 학교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input type="text"/>

문7. 현재 사교육(학원, 과외, 공부방 등 학교 정규 수업이외의 교습을 받는 형태)을 받고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문8로)

문7a. 사교육을 모두 몇 군데에서 받고 있나요? 군데

* 사교육 : 학원, 과외, 공부방 등 학교 정규 수업이외의 교습을 받는 형태

문7b. 일주일에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총 몇 시간인가요? 시간 분

문7c. 사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보기]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쓰세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6'으로 표기하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사교육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input type="text"/>
2) 나는 사교육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input type="text"/>
3) 사교육선생님과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input type="text"/>
4) 사교육선생님과 나의 (지난 학년) 학교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input type="text"/>

■ 방금 문14에서 “아주 친한 친구 **명” 이라고 했는데요, 그 친구 한명 한명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문15. 먼저 아래 박스에 아주 친한 친구 이름(또는 별명)을 친한 순서대로 최대 7명까지 써 주세요. 이름이나 별명을 쓰기 불편하면 그냥 A, B, C, D ...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문15a. 그 친구의 성적은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문15b. 그 친구는 지난 1년간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나요?

문15c. 그 친구는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나요?

친구 한명 한명에 대해 각 질문을 잘 읽으신 후 해당 보기 안에 표시해 주세요.

문15. 친한 친구의 이름/별명 또는 A, B, C...	문15a. 친구의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문15b. 친구는 지난 1년간 ‘나랑 같이’ 또는 ‘나와는 따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 은 경험이 있나요? * 없으면 ‘없다’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해 주세요	문15c. 친구는 지난 1년간 ‘나랑 같이’ 또는 ‘나와는 따로’ 학교폭력을 <u>행사한</u> 경험 이 있나요? * 없으면 ‘없다’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해 주세요
1) 친구1 _____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2) 친구2 _____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3) 친구3 _____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4) 친구4 _____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5) 친구5 _____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6) 친구6 _____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7) 친구7 _____	<input type="checkbox"/> 1) 상 <input type="checkbox"/> 2) 중 <input type="checkbox"/> 3) 하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input type="checkbox"/> 0) 없다 <input type="checkbox"/> 1) 나랑 같이 <input type="checkbox"/> 2) 나와는 따로 <input type="checkbox"/> 3) 둘 다 (나랑 같이 & 따로)

문16. 다음은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응답칸
1)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2)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3)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4)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5)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6)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7) 내 친구들과 나의 (지난 학년) 학교선생님은 잘 알고 있다	
8) 나와 내 친구들의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은 서로 잘 알고 있다	

■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17.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칸에 모두 ✓ 표시해주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1) 친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2) 친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3) 친할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4) 친할머니 |
| <input type="checkbox"/> 5) 외할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6) 외할머니 |
| <input type="checkbox"/> 7) 의붓아버지 | <input type="checkbox"/> 8) 의붓어머니 |
| <input type="checkbox"/> 9) 남자형제 | <input type="checkbox"/> 10) 여자형제 |
| <input type="checkbox"/> 11) 기타 _____ | <input type="checkbox"/> 12) 해당 없음 |

문18. 아래 각 항목별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부모님과 일주일(7일)에 몇 일 정도 함께 하나요? 응답칸에 '0~7일' 사이의 숫자로 기입해주세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응답칸에 숫자 "9"를 기입해 주세요.)

	응답칸
1) 아버지와 일주일에 몇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2) 어머니와 일주일에 몇일 함께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3)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와 함께 일주일에 몇일 저녁식사를 하나요?	일
4) 아버지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일 시간을 내나요?	일
5) 어머니는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일 시간을 내나요?	일

문19. 아버지(친아버지 혹은 새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아버지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아버지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아버지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은 서로 잘 알고 있다	
8) 아버지와 내 친구 부모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20. 어머니(친어머니 혹은 새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새)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응답칸
1) 어머니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2)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5) 어머니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6) 어머니와 나의 (지난 학년) 학교 선생님은 서로 잘 알고 있다	
7) 어머니와 나의 사교육선생님(학원 과외 공부방 등)은 서로 잘 알고 있다	
8) 어머니와 내 친구 부모님들은 서로 잘 알고 있다	

문21.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신가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에 '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 | | |
|-------------|-------------|------------|
| 1) 전혀 좋지 않다 | 2) 별로 좋지 않다 | 3) 보통이다 |
| 4) 좋은 편이다 | 5) 매우 좋다 | 6) 해당사항 없음 |

문22.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 | |
|---------------|---------------|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업 |
| 3) 고등학교 졸업 | 4) 2년제 대학교 졸업 |
| 5) 4년제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이상 |
| 7) 학교를 다닌적 없음 | 9) 안 계심 |

아버지	어머니

문23.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다음 중에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응답칸을 빈칸으로 두시거나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 | | |
|----------------------|---------------|
| 1) 사무/전문/관리직 | 2) 판매/서비스/영업직 |
|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 4) 농림어업 |
|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 6) 주부 |
| 7) 무직/기타 | 9) 안 계심 |

■ 다음 질문은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24. 다음 질문들에 대해 [보기]에서 해당번호를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칸
	1	2	3	4	5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문25.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 | |
|-------------------|----------------|
| 1) 매우 행복하다 | 2) 대체로 행복한 편이다 |
| 3) 별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행복하지 않다 |
| 5) 모르겠다 | |

문25a. 평소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주로 어떤 때입니까? 만약 '별로 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면' 주로 어떤 때 행복감을 느낄 것 같습니까?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공부가 재미있을 때/공부할 때
- 2) 성적이 좋을 때
- 3)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 4) 부모님과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 5) 가정형편이 넉넉할 때
- 6)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 7) 기타 _____

문25b. 그럼,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1) 학습부담이 너무 클 때(학교, 학원)
- 2)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 3)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 4)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느낄 때
- 6)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 7) 기타 _____

문26. 평소 '행복'을 느끼는 곳을 한 군데만 고른다면 어디인가요?

- | | |
|-------------|-------------------|
| 1) 집 | 2) 학교 |
| 3) 학원 | 4) 친구들과 모이는 장소 |
| 5) 동아리 | 6)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장소 |
| 7) 기타 _____ | 8) 특별히 없다 |

문27.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 | | |
|------------|------------|
| 1) 매우 불행하다 | 2) 약간 불행하다 |
| 3) 보통이다 | 4) 약간 행복하다 |
| 5) 매우 행복하다 | |

문28.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한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1) 건강 | 2) 돈 | 3) 성적 향상 |
| 4) 동성 친구 | 5) 이성 친구 | 6) 화목한 가족 |
| 7) 자유 | 8) 종교 | 9) 자격증(기술 등) |
| 10) 기타 _____ | | |

문29. 다음 항목을 읽고 "1) 예 2) 아니오" 중에서 골라 응답칸에 숫자로 써 주세요.

보기 : 1) 예 2) 아니오	응답칸
1) 과일을 매일 섭취하나요?	
2) 등교 전에 아침식사를 챙겨 먹나요?	
3)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한 날수는 몇 일 인가요?	일
4)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체육 시간 이외에 운동을 한 날수는 몇 일 인가요?	일
5) 최근 2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에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6)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나요?	
7) 최근 2주 동안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8) 1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	
9)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를 한 적이 있나요?	
10) 최근 12개월동안 마약/본드를 흡입한 적 있나요?	

문3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칸에 숫자를 써 주세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6'으로 표기)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6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8)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9)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0)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2)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3)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4)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5)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6)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7)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37. 현재 자신의 키가 얼마인가요? cm

문38. 현재 자신의 몸무게가 얼마인가요? kg

문39. 부모님(친척 포함)에게 받는 한달 용돈은 얼마나 되나요? 원

문40. 한달 동안 지출하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원

문41. 2014년 2학기 기말 기준으로 자신의 성적은?

반 전체인원 명 중 등

문42. 자신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2년제 대학교졸업
5) 4년제 대학교졸업 6) 대학원 이상

문43. 최종 학교를 마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나요?

1) 사무/전문/관리직 2) 판매/서비스/영업직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4) 농림어업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6) 주부
7) 무직 8) 기타

문44. 부모님은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문45. 자신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나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문46. 평소에 부모님과 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나요?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시다면 '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1) 학교 및 학원생활 2) 공부와 성적
3) 친구관계 4) 미래 진로와 직업
5) 취미와 여가활동 6) 기타

9) 안계심

문47. 평소 닮고 싶은 역할모델(롤모델)이나 멘토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 없다면 '없다'라고 적어주세요.

문47a. 그 분(롤모델)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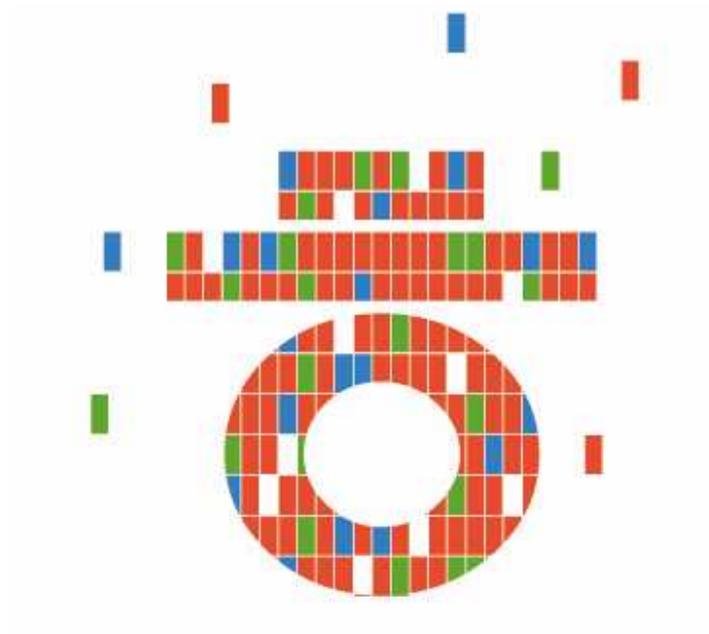
♣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절취선

※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는 향후 저희가 수행하는 조사에 참여해주실 패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패널로서 조사에 참여하시면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답례를 하고 있습니다. 패널로 활동하시길 원하시면 아래의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적어주신 내용은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자 성명	<input type="text"/>
E-mail	<input type="text"/>

부록4. 1922~1923 어린이날 선언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어린이날 선언

‘어린이’, ‘어린이 날’ 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 많은 사람들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련한 어린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에서 어린이 운동을 펼쳤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의 어린이 사랑과 그가 몸을 던져 했던 모든 활동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걸고 오늘보다 내일에 사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운동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셨던 겁니다. 더욱 의미깊은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인권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922년 어린이날 선언, 1923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날의 취지와 함께 소년운동의 기초조건, 어른들에게 쓰는 글, 어린이에게 쓰는 글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이 훗날 아동권리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창시자 에글렌타인 쥘 여사가 1923년 만든 아동권리선언의 초안이 1924년 국제연맹(현 유엔)에서 제네바선언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보다 1년 앞선 일이어서 아동문학가 윤석중 씨는 이를 두고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태동했다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날 선언문, 국제사회가 어린이의 존엄성을 인식하기 전부터 아동권리의 선구자인 방정환 선생님이 아동의 조화로운 전인발달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뜻이 9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 1922년 어린이날 선언

‘천도교소년회’는 창립1주년이 되는 1922년 5월 1일을 우리 나라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고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때 ‘어린이날’ 선전문을 배포했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행사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방정환 선생님이 작성했거나 혹은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방정환 선생님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제1회 ‘어린이날’ 선전문

- 一.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하지 말아 주십시오.
- 二. 어린 사람을 늘 갖가히 하시고 자조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 三.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 四.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 五. 리발이나 목욕 가튼 것을 때맞처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六. 낮분 구경은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조 보내 주십시오.
- 七. 장가나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街路로趣旨宣傳

자동차대의창가대로난호아
작은어린이날의대선언

천도교소년회(天道敎少年會)를 창설한것을위사하여 그
최소소년보호운동(少年保護運
動)은 때때로가차의발에성대하
거행하였는데 처음으로는 당우의
방향을엇지못하여 매우승장을
하였으나 이후한시이아르다
행하선권사의배표의사가선권의
허가를엇게되앗으므로그회원을
동년대로의년중아총로를이
하사 할말은원(原)·피(皮)·화(火)
·뽕(糖) 기타각취에서 창가를할며
취지를선권한동사의의한편으
로 그소년회와형제의 관계가있
는년도피칭년회중의우치외
소년회원으로연말하여 조직된
자동차선권대는체제의자동차에
『어린이날』소년보호(童)문
구를대시를쉬어보치고 중(中)
권장을위사하여 시내각취를 달
려나며 선권을써리었다는
대동시에인(仁)에서되외와
가차와스며 밤의경우동년
도교에서 그소년회의 창립원
주년기념식을성대하 거행하였
스며 작업에배포한 선권서도
고최는것을합하여 데까지이며
그중의어린이날이라고되며두
한것을원대로 소개하되다음
과갓다라

一. 어린사람을 헛말로속하지
말아주십시오
二. 어린사람을늘 갖가히하하고
자조리하기하여주십시오
三. 어린사람에게경어(敬語)를
쓰시되 늘부드럽게하여주십
시오
四. 어린사람에게수면(睡眠)의
운동을충분히하게하여 주십
시오
五. 리발이나 목욕가튼것을 때
맞처도루하여 주십시오
六. 낮분구경을 쉬히지마시고
동물원에자조 보내주십시오
七. 장가와시집보낼 생각마시
고 사람답게만하여 주십시오

電車衝空

삼십일밤에
동구압혜서

삼십일 오중일한시 이십분
의주중(義州通)에서 동대
로가드일백이십호연차가
삼십일삼사반미압을자
그압레딩거하였도 구십구호
차와충돌하여 일백이십
운년대의 구십구호의 차
류리창이 모나 깨지고
간 바락치는동한소매가
우소장이 이리대스나다행하
개의 부상은없고 다만차창의
리를조금상하였는데 손해
의해차관계로별안간이행
차가불을끄고 덩어리가
뒤에차가 그대로오다가
뚱하다라

光復軍의 순사들

근원평남 덕천경찰서(平南
警察署)에서는 대한광복군
원 김경진(金敬鎭)·광복군
원 김경진(金敬鎭)·독립단원
하여밤중 엄중하위조중의
대제세한 내용(內容)이적보
견이나 모커로부터 립지한
의하면 권의진정면은본
군대국면 太極團을성으로
조선독립을 희망하다가 때

『동아일보』 1922.5.2. 3면

○ 1923년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물 : 소년운동의 선언,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 동무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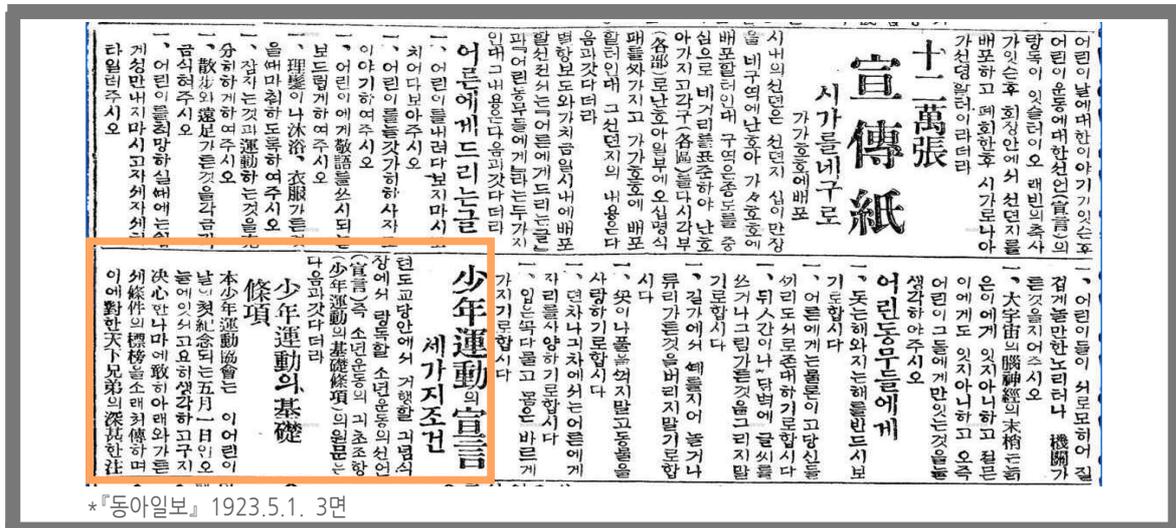
이 선전문물은 1923년 5월1일 ‘조선소년운동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물입니다. 이것은 1924년 국제아동권리선언인 ‘제네바선언’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아동문학가 윤석중은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1. 취지 : 젊은이나 늙은이는 일의 희망이 없다. 우리는 오직 나머지 힘을 다하여 가련한 우리 후생되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자.

소년운동의 선언 세가지 조건

본 소년운동협회는 이 어린이날의 첫 기념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 나머지 감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천하 형제의 심심한 주의와 공명과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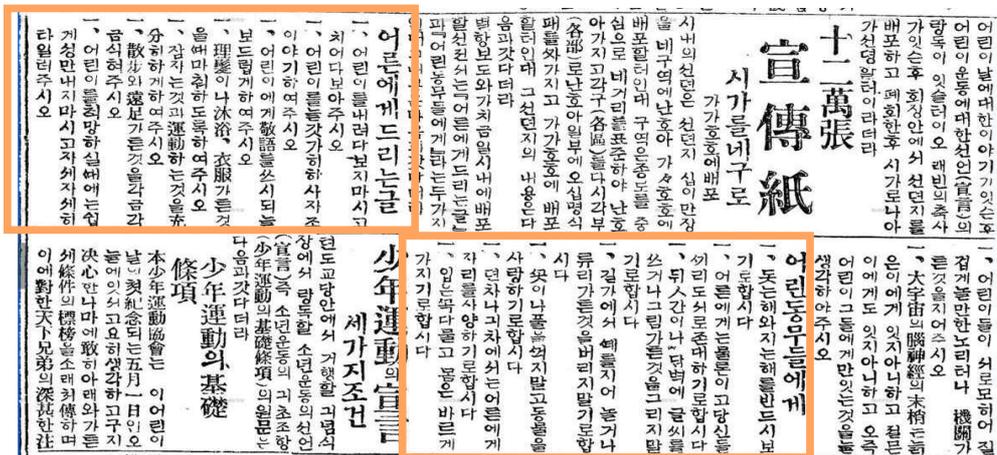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1.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1.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동아일보』 1923.5.1. 3면

어린 동무들에게

- 1. 돛은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 1.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 1.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가튼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 1.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류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 1.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 1.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 1.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동아일보』 1923.5.1. 3면

어른에게 드리는 글

-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 1. 어린이를 늘 갖가히 하사 자조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 1.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 1.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가튼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 1.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 1. 산보와 원죽 가튼 것을 각금 각금 식혀주시오.
- 1.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 1. 어린이들이 서로 모히어 질겁게 놀만한 노리터나 기관 가튼 것을 지어 주시오.
- 1.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절름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즉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어린이날의 약속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데 있을 뿐입니다.** 다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 하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른은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려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원칙상 그 싹을 위하여 그 나무는 뺏쳐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를 결코 억박지르지 마십시오. 조선의 부모는 대개 가정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습니다. 억박지를 때마다 뺏어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서 뛰어난 인물이 못 되고 남에게 끌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 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 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칭찬을 하면 주체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잘한 일에는 반드시 칭찬과 독려를 해 주어야 그 어린이의 용기와 자신하는 힘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아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 주지 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 주도록 하십시오.

날이린어 절명세의망회 날이린어이늘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어린이의 기운은 바짝바짝 줄어듭니다. 그렇게 길러온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크게 자라지 못 되고 남에게 끌리고 뒤지는 샌님이 되고 맙니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심심하게 기쁨 없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어린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 또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해 주어야 그 마음과 몸이 활짝 커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칭찬을 하면 주체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잘한 일에는 반드시 칭찬과 독려를 해 주어야 그 어린이의 용기와 자신하는 힘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집안의 어린이가 무엇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가나,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 보아 주십시오. 평상시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잘못된 뒤에 아단을 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부모들의 큰 잘못입니다.

어린이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도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 주지 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 주도록 하십시오.

2015
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연구진

책임연구자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경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이은주 (한국방정환재단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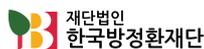
이승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 설문조사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이사 이상경)

본 보고서는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에 의뢰하여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로, 올해에는 스마트폰 및 게임이용, 친구관계에 관한 문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재단 연구위원 1분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행복지수 이외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최근 몇 년간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해 주셨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청소년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정환재단은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당면한 문제의 개선방안을 위해 본 조사를 제안하여, 현대리서치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매년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그 변화하는 양상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발행처 한국방정환재단

발행일 2015년 5월

전화 02-322-5515

팩스 02-322-5452

이메일 happy365@korsofa.org

홈페이지 www.korsofa.org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33 (신문로2가) 내자빌딩 5층 (우 03176)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